

CHURCH GROWTH

월간 교회성장
2023.7.



바로접속 QR코드

특집

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 _ 이지현 교수

저출산과 교회 캠페인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 _ 이수훈 목사

CBS 출산돌봄국민운동, 하나님이 주신 미션 _ CBS 김진오 사장

저출산 시대 교회의 돌봄과 교육 _ CTS 감경철 회장

저출산 극복 교회 사역

다자녀 가정 64% 송촌장로교회 _ 박경배 목사

사랑의교회 결혼준비학교 _ 이의수 목사

저출산 시대와 낙태! _ 이재욱 목사

저출산, 이유가 무엇일까? _ 3040 좌담회

오피니언 리더

장창수 목사(대구 대명교회)

“원초적 복음 성숙한 성도, 대구 대명교회”

문화 Take out 대한민국은 이민자의 나라가 될 것인가?

신학연장교육 히브리어의 창으로 성경 다시 보기 (3)

이달의 설교주제 치유

사역자교안 크리스천재정학교 7, 8강



CONTENTS



COLUMN	015	희망을 여는 창 이영훈 목사(본지 발행인)
OPINION LEADER	018	“원초적 복음 성숙한 성도,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대구 대명교회)
PERSPECTIVE	특집	“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
	034	Intro. 1 편집부
	036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 이지현 교수(장신대 사회복지학과)
		Part 1. 저출산과 교회 캠페인
	044	2030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054	CBS 출산돌봄국민운동, 하나님이 주신 미션 김진오 사장(CBS)
	070	저출산 시대 교회의 돌봄과 교육 감경철 회장(CTS)
		Part 2. 저출산 극복 교회 사역
	086	다자녀 가정 64% 송춘장로교회 박경배 목사(송춘장로교회)
	096	사랑의교회 결혼준비학교 이의수 목사(사랑의교회)

108 저출산 시대와 낙태!
이재욱 목사(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122 저출산, 이유가 무엇일까?
3040 좌담회

142 [Outro](#). | 편집부

MISSION 148 통계로 보는 미션 | 목회데이터연구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조사

CHURCH PLANTING 158 개척과 목회현장 | 허진욱 목사(렛츠고체플교회)
제주 버스킹 예배자

MINISTRY GUIDE 172 스페셜 현장 | 방현미 편집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 현장을 가다

180 교회고민상담 | 권오진 목사(대구 정동교회)
온라인 예배
말로 인한 상처

184 신학연장교육(TEE) | 권성달 교수(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
히브리어의 창으로 성경 다시 보기 (3)

CULTURE 192 목회와 인문학 | 이강선 박사(성균관대, 기독교인문학연구원)
바벨탑은 번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0 문화 Take out | 강진구 교수(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대한민국은 이민자의 나라가 될 것인가?

CONTENTS

SERMON

212 설교 준비 노하우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

주일예배(이달의 주제: 치유)

214 1주차 |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기적의 치유를 이루라

232 2주차 | 김형배 목사(서산성결교회)
치료하시는 하나님

244 3주차 | 김근영 목사(수원제일교회)
새 삶이 열릴지이다!

254 4주차 |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수요예배

266 1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산아 네가 무엇이나 시리즈 11
시험의 산을 옮기라

276 2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산아 네가 무엇이나 시리즈 12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286 3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여덟 계단 시리즈 1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296 4주차 |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여덟 계단 시리즈 2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계단

금요일예배

- 306 1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 314 2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기쁨으로의 초대
- 324 3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 334 4주차 |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하늘 시민으로 살기
-

다음세대

- 344 유치부 | 이재영 소장(영유아교회교육연구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 350 유치동부 | 박준우 목사(동행교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 354 중고동부 | 이민형 목사(사랑의교회)
특별한 선물
- 362 청년부 | 박기범 목사(내수동교회)
나의 하나님(feat. 이사야)



Cover

발행인 | 대표이사 이영훈
주 간 | 소장 홍영기

EDITORIAL

편집장 | 방현미
편집 | 이영미 이하늘 이지현
대외협력 | 방현미
회원관리 | 이영미
디자인 | 유혜연 김한희
사진 제공 | 국민일보 순복음가족신문
제 보 | editcg@daum.net

발행처 | 교회성장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9 영산복지센터 4층
전화 | 02) 2036-7914
팩 스 | 02) 2036-7910
웹주소 | <https://portal.icg21.com>
쇼핑몰 | www.pastor21.net

등록일 | 2002년 5월 8일
등록번호 | 문화 라 09098
통권 361호

협력업체 | 명지북프린팅, 국민 P&R, 아림디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골 3:23)

교회성장연구소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목회자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법인이사

곽주환 베다니교회
권일두 여의도순복음교회(CGI)
김명현 이천순복음교회
김영석 여의도순복음교회남구로성전
김용준 순복음도봉교회
김은호 오륜교회
김정민 금란교회
김해동 거제순복음교회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엄태욱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정재우 은혜의정원교회
정홍은 순복음성동교회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황선욱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후원이사

곽승현 거룩한빛광성교회
권준호 송전교회
김병삼 만나교회
김종수 섬기는교회
배창돈 평택대광교회
백용석 강남교회
안병찬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오영대 순복음축복교회
윤장희 풍성교회
이동현 복된이웃교회
이영환 장자선교회
이요한 수원순복음교회
이준성 역촌교회
이중관 익산샘물교회
이태근 여의도순복음은혜교회
조봉희 지구촌교회
조준철 만리현성결교회
최병락 강남중앙침례교회
최중수 삼양교회
하근수 동탄시온교회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금이 나오기 위해 용광로 안에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롬 5:3-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절망의 때에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롬 8:28).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순금과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지 발행인 이영훈 목사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특집

PERSPECTIVE

|

미션

MISSION

|

개척

CHURCH PLANTING

|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

문화

CULTURE

|

설교

SERMON

원초적 복음 성숙한 성도,
대구 대명교회 - 장창수 목사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교회에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느끼시기 때문이다.” 원초적인 복음을 전파하며, 매주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성숙 훈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를 만나보았다. <편집부>

신앙배경과 목회철학

❶ 먼저 대명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명교회는 1915년에 설립된 예장합동 소속 교회입니다. 한 세기도 더 된 그 옛날, 대명교회는 복음에 빛진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대구에 교회가 거의 없던 시절 대명리의 어느 가정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동산병원의 2대 병원장이었던 Dr.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 선교사와 의사들이 8칸짜리 초가집을 기증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❶ 목사님의 신앙성장 과정과 목회자가 되신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집안은 유교 전통이 강했지만, 어머니가 3대째 신앙을 가진 분이셨던 덕분에 어릴 적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지라, 당시 산업단지로 발전되고 있던 구미로 넘어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십이지장궤양을 심하게 앓았는데, 어떤 치료나 민간요법으로도 낫질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뒤 고침을 받았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35년의 세월 동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명교회는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올해로 19년째가 되었습니다.

Q 목사님의 삶과 목회에 영향을 끼친 성경구절이나 개인적으로 큰 영감과 은혜가 되었던 레마의 성경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도 이 질문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비단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깊이 있고 쉽지 않은 말씀인데도, 제게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저의 목회 태도를 규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 성품, 이 기심, 욕망도 다 죽어야 목회가 됩니다. 목회는 곧 죽는 것입니다.”

목회 및 사역

Q 목사님께서 아날로그 목회, 아날로그 영성을 추구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목회도 했지만, 미국 목회 보다는 한국 목회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기 위해 귀국을 결심하고, 과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한국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늘 오르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란, 한국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무후무

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제자훈련을 비롯한 온갖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그 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가지와 방법론은 풍성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는 한국 교회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교회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점에서 떠올린 단어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 옛 감성을 지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취향을 말합니다. 아날로그에는 길이와 인간성,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의 음악만 들어봐도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라디오 듣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수많은 상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상상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의 목회 특징을 질문하기에 대답했던 단어가 바로 ‘아날로그’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아날로그’는 구태의연함이 아니라 ‘옛 감성을 이어받으면서 불편하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Q 목사님께서서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대명교회의 ‘성숙 훈련’의 방법과 열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명교회의 ‘성숙 훈련’은 저의 아날로그 목회철학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한국 교회 문제는 ‘삶의 성숙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보다 핍박이 훨씬 심하고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안디옥 교회에 큰 무



리(Great number)가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Good man)은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란,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건네고 좋은 물건을 나누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끼치는 힘이 고귀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목사, 남에게 주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한국 교회의 본질, 그다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명교회의 성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성숙을 가르치기 위해 설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삶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다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교재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훈련은 지식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매주 실천해야 할 실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고, 밖에서는 고양이로 되지 말자는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20명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혼자 사는 아이에게 선물을 건네라는 식의 과제입니다.

산상수훈 설교 이후로도 십계명과 성령의 9가지 열매 등을 이어 설교하면서 후속 교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숙'은 지적 수준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 즉, '좋은 것을 주는 삶'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저출산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입니다.

❶ 교회 안의 교회인 ‘지역교회’의 성격과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전에 작은 규모에서 모든 성도가 참여했던 섬김의 기회는 오히려 적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기존의 교구라는 개념을 실질적인 다양성의 장으로 전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으로 나누다가 나중에는 지역, 연령, 계층을 모두 섞어서 지역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지역교회가 교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예배부터 분립시켰습니다. 7~8개의 지역교회가 매달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회별로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찬양대도 별도로 세우고, 헌금 운영도 독립적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섬김의 기회가 7~8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작은 구



모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경험이 되고,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부교역자들은 목회의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부교역자들에게는 모두 개인 목양실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교회별로 역동성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르게 평준화가 이뤄졌습니다. 마치 큰 울타리 속의 작은 집들처럼 각 지역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Q 대명교회는 청년들의 출석률이 높고 신앙이 뜨거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덕분에 제가 부임했을 때 30명 규모의 청년부가 지금은 350명 출석으로 부흥했습니다. 기도에 워낙 열심이라서 매주 토요일기도회에 200명 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뜨거운 신앙이라서 장년부 기도회 때 청년 몇명만 참여시켜도 금방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원초적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다 보니, 청년들은 오히려 익숙해져서 교회가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대명교회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원초적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을 설교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지옥에 관해서도 시리스로 설교합니다. 2,000명 이상 출석교회 중에 아마 청년예배 설교를 매주 담임목사가 직접 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입시나 진학, 취직을 핑계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지만, 복음이 있으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교회가 청년들에게 너무 잘해줬던 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너무 가르치지 않았습시다. 대명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하도록 가르칩시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 감사할 것 같지만, 불평과 불만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청년 스스로 직접 헌신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확실히 세워지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대명교회가 아날로그 교회인 데도,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❶ 앞으로의 목회 계획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은퇴가 15년 남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비전은 오로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건강한 바통 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수선대후(守先待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선대를 잘 이어받고 후대를 잘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단절, 찬양, 예배, 봉사도 모두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

의 본질을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대명교회에서는 유치부부터 모두 교회학교 부서가 전통적인 순서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음세대가 나중에 어른 예배에 와서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 때부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의외로 조직신학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버 단체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날로그 교회답게, 요즘 유행을 거슬러 교리를 가르칩니다. 40분씩 가르쳐도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교리를 책으로 집필 중이고, 이어서 중고등학생과 교회

학교를 위한 교리도 집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동료 및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개척,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과 한국 교회 목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척을 시도하는 목회자들의 갈급함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성공률이 3%라고 했는데, 지금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낮은 개척교회의 성공률 또한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목회 사역은 시간에 조급하여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지면 불안해지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단 1명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 목숨 걸고 설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반드시 소문나고 사람들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구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로나 행동으로 이거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다!’ 이 구호를 잊지 마십시오. ㄹ

장창수 목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철학과(M. 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미국 Azusa Pacific University(M. A. R.)를 졸업하고 Liberty University(D. Min.)에서 목회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Ph. D. cand)했다. 미국 Torrance 소재 남가주 크리스천 한인교회 담임, 대구 매일신문 칼럼니스트, GMS 세계선교회 부이사장, 대신대학교 11, 12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월드비전 목회자 홍보대사, 대구 CBS 운영이사장,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대구 대명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질문이 답이 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1, 2』, 『말씀을 따라 산 믿음의 거장들』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특집
PERSPECTIVE

- Part1. 저출산과 교회 캠페인
- Part2. 저출산 극복 교회 사역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미션
MISSION

개척
CHURCH PLANTING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문화
CULTURE

설교
SERMON

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

글 편집부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넘어 2001년부터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황에 진입했고, 현재까지 5년 연속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다.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출산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해 1.13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낮아졌다. 콜먼 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에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첫째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출산 가정에 지급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아기를 낳는 가정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주택을 제공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해 말 CBS 출산·돌봄 캠페인에 특별후원금 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한교총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저출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교계 차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심각한 단계를 넘어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때다.

이에 월간 『교회성장』 7월호에서는 “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¹⁾

글 이지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저출산 현상은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로 체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으나 산아제한 정책추진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2.0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사회가 시작되었고, 2002년에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져 초저출산 사회로 편입되었다.²⁾

그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여러 차례 수립하여 실행해 왔지만, 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까지 겪게 되면서 혼인을 저하와 출생아 수 급감으로 저출산 기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³⁾

1) 본고는 필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제106회기 교회와 사회 포럼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교회의 역할'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2) 감사원, 『감사보고서-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서울: 감사원, 2021), 12.

3) 통계청,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12에서 인출 (2023년 5월 17일 접속).

0.78명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크게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다. 앞으로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존속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존속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 사회가 40여 년의 짧은 기간에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사회로 바뀐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의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중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의식과 통념, 지향하는 가치의 변화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교회의 역할이 상당한 잠재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사회의 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대한 영향력 외에도 인적, 물질 자원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회의 참여와 협력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필자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결혼, 출산, 보육 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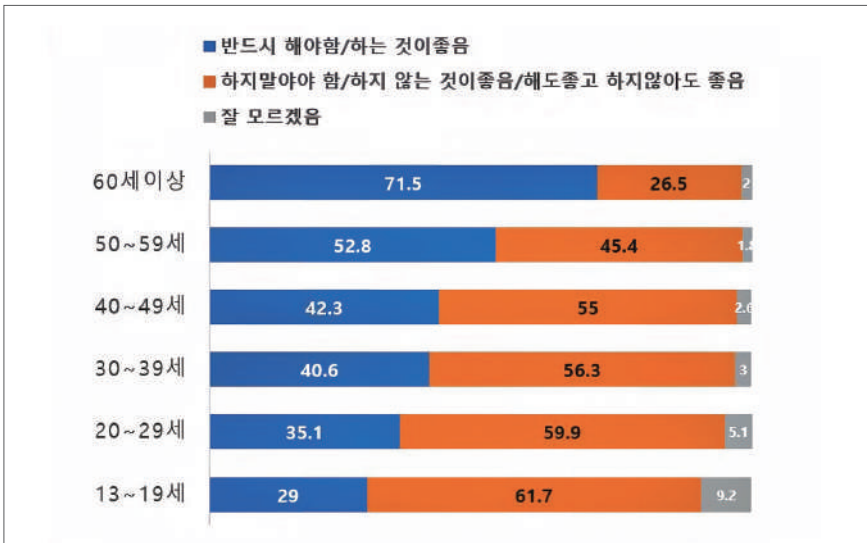
첫째,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결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당위적인 규범 인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결혼을 당위적인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세대별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그림 1]을 보면,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회의적이며 부정적 견해를 가진 비율이 50대는 40%대, 60대는 20%대인 반면, 결혼의 예비 당사자인 40대 이하 는 50%를 크게 상회하였다. 생활 능력이 있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혼 기피 현상이 젊은 세대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림 1] 세대별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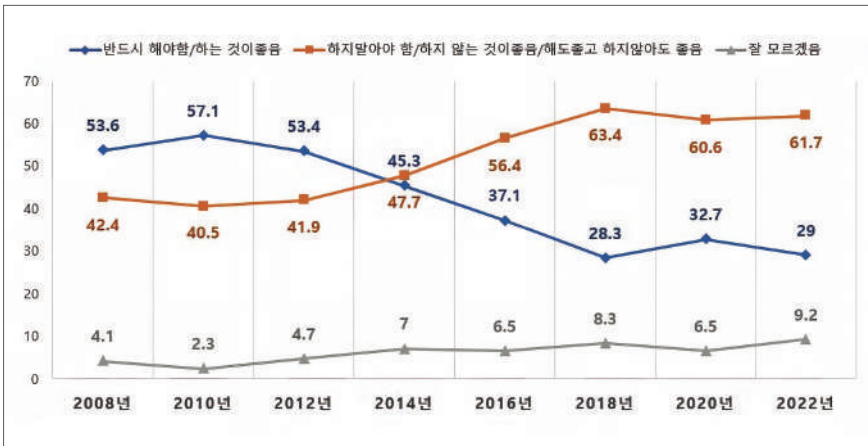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재구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ISSFAO60R&conn_path=12

더욱 심각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다음 세대인 10대 청소년층의 약 62%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50% 이상으로 집계되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2014년을 기점으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 최근까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13~19세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자료> 통계청 2008년~2022년 사회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13세~19세 인구)' 재구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conn_path=12

결혼은 인생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는 가치 규범이 다음세대인 청소년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자리해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가치관

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아 성인기 동안에도 유지된다. 이런 까닭에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도록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차원의 교육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도 교회 교육 영역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교회가 장래 우리 사회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게 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와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한국 교회는 ‘출산을 의미 있게 여기는’ 사회 재생산 가치관의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사회 재생산 활동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 무자녀 가정의 규모는 2010년 4.4%에서 2020년 8.4%로 지난 10년간 4.0% 포인트 상승했다.⁴⁾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무자녀 기혼 여성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생

4)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대전: 통계청, 2021), 16.

물학적인 불임'(19.9%)을 제외하고,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4.2%),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17.3%)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⁵⁾ 자녀 없이 부부만의 생활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변화된 가치관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자녀 없이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사회 재생산을 기피한다면, 결국 사회와 국가의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의미 있게 여기는” 가치관의 회복이 있어야만 하겠다.

기독교는 결혼과 출산의 (예비) 당사자인 40대 이하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는 비율 역시 높다.⁶⁾ 이러한 점에서 교회 내에서 성서에 기초한 출산의 가치에 대한 신앙교육이 강화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출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신앙과 가치를 세대로 전승하는 거룩한 의무라는 성서의 원리를 따라 신앙인의 의무로 행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구조도 점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 교회가 지역의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돌봄을 섬김의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박시내, 박라나, 박혜균, 『결혼기간별 무자녀 가구 특성』 (대전: 통계청, 2019), 41.

6)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자 중 19~29세, 30대, 40대의 비율은 기독교 48%, 불교 21%, 천주교 1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의 (예비)당사자인 40대 이하 종교인은 기독교가 불교보다 2배 이상, 천주교보다 3배 이상 많음. 또한,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인의 매주 종교시설 방문, 매주 성서 목상, 매일 기도 비율이 가장 높았음.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게시 2021년 4월 7일].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영유아기, 초등학교 아동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공급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저렴한 보육료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엄청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 돌봄 부족 현상은 영유아 돌봄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초등학생 돌봄 수요는 약 267만 가구에 이르지만, 현재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급량은 33만 정도에 그치고 있다.⁷⁾ 초등 돌봄 절벽이라고 표현될 만큼 돌봄 공급량이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취업모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재출산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 돌봄 공급 부족이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것이다.

교회가 저출산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고충에 감응하고, 보육이 부모만의 부담이 되지 않게 공적 보육·돌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는 5만여 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 외에는 많은 시설이 유휴 공간으로 남고 있다. 교회가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에 참여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내의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시설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중심

의 돌봄 체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829개소가 설치 운영 중인데, 정부는 2023년 올해 예산 확대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⁸⁾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전국의 많은 교회가 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의 기회로 여기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주중에 사용하지 않는 교회의 시설이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지정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적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등불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한국 교회가 가진 신앙적 유산과 자원, 조직력을 선용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결혼과 출산의 가치 회복에 대한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적 보육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도 다시금 세상을 이롭게 밝혀주는 거룩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

8)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세종: 보건복지부), 4.

이지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B. A.),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MSW),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Ph. D.)을 졸업하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재단법인 현동장학회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및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

- 평균연령 29세, '돌봄'으로 '출산'의 기적,
당진동일교회

글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인 20여 년 전부터 저출산 위기를 느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교회학교 학생 한 명이 큰 열쇠를 들고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은 곧, 그 아이가 집에 가도 그 시간에 부모들이 일을 하고 있기에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다. 또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은 그럴 수도 없어 거의 방치되는 상황이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무료 공부방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해 보니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야 했다. 그래서 간식도 주고, 사람을 초빙해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 수가 200명이 넘어 있었다. 어머니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도우미로 자원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어머니들을 훈련시켜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니, 정말 자



기 아이처럼 정성껏 돌봐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아이를 다 돌봐 주니 더 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방위적 출산 운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3명 낳기 운동’을 하다 ‘5명’으로 늘게 되었다.”

결국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전체 인구가 17만인 당진시에서 2020년도 초등학교 중 약 12.4%가 우리 교회 소속일 정도였다. 우리 교회 교인의 평균연령이 29세인데, 농어촌 교회에서 평균연령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어린이가 많다는 의미이다.

당진동일교회는 20여 년 동안 초등학교들에게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원 대신 교회로 오게 하였고, 교회 교육관에서 인성교육, 학업지도, 생활 지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변하고 학업 성적도 올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작은 돌봄 사역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농촌 지역임에도 성도 평균



연령이 29세밖에 되지 않고, 가정마다 평균 자녀 3명을 출산한다. 매일 오후 교회 마당에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온 교회는 희망과 활력이 충만하다. 27년 전 교인 1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출석 교인 수가 무려 5천여 명, 그중 비신자 전도로 교인이 된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큰 부흥도 이뤘다.

그 모델을 국내외 교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출산돌봄 사역’ 계기와 전략, 비전을 나누었다.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열게 된 계기

그동안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탐방을 온 교회들이 많았다. 그 수가 4, 5천 교회 정도는 되지만 다들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실제 행하는 곳은 적었다.

그러던 중 미국 뉴욕에서 ‘4/14 윈도우 무브먼트’(‘4세부터 14세까지’에 초점을 맞춘 선교운동)의 김남수 목사님과 최완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자 하여 뉴욕 대회와 파나마 대회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고무되어 경비를 덜 테니 목사님들을 모시고 출산 운동을 하자는 제안으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다.

특히 이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컨퍼런스에서는 1,200여 교회들이 참여해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방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고자 마련하였다. 우리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뉴얼을 통해 우리 교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 자신의 교회에 적용할 실제적 방안을 꼭 찾으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존속되려면 한 해 출생아 수가 최소 30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5만 명 미만으로까지 내려갔다.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남녀 각각 15만 명 정도로, 그들이 다 아이를 한 명씩 낳는다 해도 겨우 15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 인구분포를 보면 20대는 670만 명, 10대는 470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사라졌다. 이 나라는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성적이고 안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을 중시하는 곳은 교회뿐이다.”

사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돈을 주면 아이를 낳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200만 원을 받자고 아이를 낳아서 평생 육아의 짐을 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장 그들에게 가장 큰 벽은 ‘돌봄’과 ‘교육’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엄마는 아이한테 붙잡혀 적어도 3년은 움직일 수 없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하교 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야 한다. 지난해 학원비 지출은 총 23조에 달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워도, 정작 중요한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이의 인성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출산돌봄 컨퍼런스’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된다면 적어도 1년에 5-6만 명 정도 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대표적 교회들 50곳 내지 100곳이 모여 1,200개 교회만 나서도 1년에 50명씩만 낳으면 6만 명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이 한국 교회에 큰 깃발을 꽂았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해결 못 한 큰 숙제인 저출산·고령화를 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또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운동’이 되리라고 본다.



교회 출산돌봄 프로그램 소개

아이 1명으로 시작해서 21년이 지난 지금 당진동일교회에서는 매일 200명을 돌보고 있다.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교회에 오면 간식을 먹고 1시간 동안 형, 누나, 동생들과 신바람나게 논다. 그리고는 소그룹별로 영어로 대화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토론을 한다. 또 조금 뒤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를 하나씩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1시간 동안 더 놀고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교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 오히려 부모가 먼저 퇴근해서 아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늘 교사들에게 ‘엄마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들을 ‘이모’라고 하는데 이모들이 늘 칭찬과 사랑을 주니 관계가 너무 좋다. 아이가 늘 사랑을 알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니 인성도 점점 좋아진다. 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피곤한데 아이가 맘대로 안 크면 자꾸 꾸짖게 되고 아이와 점점 거리가 생긴다. 하나도 힘든데 돌을 낳겠는가? 그런



데 한 아이를 잘 돌보아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둘째를 또 낳는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 ‘엄마, 동생이 필요해’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도 자연스럽게 둘째를 낳고, 셋째도 낳는다.

또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부모와 식사를 잘 하지 않고 어찌 다 같이 해도 각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끝난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형, 누나, 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예의와 배려를 배운다. 당번을 정해 간식을 섬기는 부모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가족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쓰고, 자기 생각을 적게 하면 언어 능력과 논술도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5분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옛 동요를 부른다.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은 50대 초반까지도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더 보고 싶어, 며느리를 찾아가 설득한다.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합쳐져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은 교회도 이 모델을 접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상가를 임대해 교사 1명으로 돌봄을 시작했는데, 금방 20명이 되었다. 교사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었을 때 교사 한 분을 더 초빙하고, 부모들도 욕심이 생겨 각자 전공과 특기를 살려 봉사하다 보니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다 같이 못 배웠고 배고팠다. 그런데 도시화되면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대적 빈곤이 6·25 때보다 더 심각하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더 불행한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부모대로 짐이 더 커지고, 아이는 아이 대로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혼자 살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가정에 담아 두셨는지 강조한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가정에 내가 들어가는 건 짐스러워지지 않나?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 가정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힘들 때 어디서 위로받으며, 나는 좋은 걸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정밖에 없다. 이런 것을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및 국가 기관과의 연대

제가 충청남도 저출산대책 위원이다. 그런데 관청이 움직이는 데는 너무 벽이 많다. 예산이 ‘센터’라는 곳들로 흘러 들어가 자체 소모가 되고 정작 부모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저출산 대책이 나올수록 젊은이들은 화가 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불신이 커져 있다.



그래서 시장, 시의원, 담당 공무원들을 계속 만나 그 숙제를 풀었다. ‘교회가지고 있는 시설을 시에서 무상 임대 계약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새로운 시설들을 지을 필요가 없다. 물론 학교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부유한 집 아이들은 퀄리티 높은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사들도 이미 번아웃 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 이후에 무언가를 하기 힘들다.

“교회 시설들은 주중에 텅 비어 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내어 주자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목사님들이 인성 훈련이 된 분들을 잘 세워 놓으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 그리고 당국의 예산을 출산지원금으로 쓰면 교회도, 부모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출산돌봄 운동에 대한 교회 지도자 호응도

교회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걱정도 많이 한다. 그런데 잘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담임목사님들이 먼저 찾아오시고, 장로님들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순복음춘천교회의 경우 출산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불과 3-4년 만에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한 고학력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이들 땀 냄새를 맡으니 살맛이 난다”라고 하신다. 서로 행복해지고 교회가 젊어지니 이 운동이 참 살아있는 운동이라 확신한다. ☺

이수훈 목사

고려신학대학원(M. 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Th. M.)를 졸업하고, 1996년 그린 하우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현재 평균 교인 연령 29세로 한국에서 가장 젊은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살렘 어린이집’, ‘비전스쿨(방과후학교)’, ‘시내산중고등학교’(대안학교), ‘예수촌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집중하여 14,000명 정도의 등록교인 중 3,000명 이상이 주일학교 학생이며, 당진시 초등학생 12.4%를 동일교회에서 돌보고 있다. 현재 한국소그룹연구원 연구위원장 및 목회전략연구소 소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충청남도 저출산대책위원 충남연구원 이사, 당진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왜 그 교회는 젊은 부부가 몰려올까?』, 『두드리면 열립니다』, 『꿈꾸는 교회, 춤추는 하나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회복하라』 등이 있다.



Part 1-2. 저출산과 교회 캠페인

CBS 출산돌봄국민운동,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인터뷰이 김진오 사장(CBS)
진행 방현미 편집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것은 교회에 다음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가 소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말하며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여 CBS출산돌봄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김진오 CBS 사장을 만나보았다. <편집부>

Q 먼저 사장님과 CBS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8년에 CBS 기자로 입사해 34년간 취재 일선을 누비다 지난 2021년 6월, CBS 제10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진오입니다. 방송환경은 물론 언론지형도 나날이 변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성경사무자’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별 畧, 볼 見, 일 事, 없 無, 놈 者’ 즉,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다. ‘먼지 같은 존재이자 안개 같은 존재’라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먼지처럼 미미한 존재이고, CBS 사장이라는 직함도 하나님께서 제게 잠시 맡기신 자리인 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54년 12월 15일에 첫 전파를 발사한 CBS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한국기독교연합회의 후원하에 미국인 선교사 감의도(甘義道, Decamp, O.E.)의 주도로 기독교적 교양 육성, 그리스도의 복음선교, 도의심 향상을 목적으로 개국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세워진 CBS는 지난 69년 동안 이 땅의 국민들에게 선교기관으로서, 언론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방송으로 ‘위안과 소망’을 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CBS는 특히,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정도 언론’의 길을 오롯이 걸으면서, 한국 사회의 파수꾼이자 한국 교회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69년 주년을 맞이한 CBS는 서울 본사와 14개 지역 본부에서 라디오와 TV, 인터넷 노컷뉴스, 스마트 콘텐츠 등을 제작 방송하는 크리스천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했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공정한 언론매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CBS는 한국 교회 각 교단의 추천을 받은 1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연합 선교기관이자 언론기관입니다.

< 이사 파송 교단 >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대
한본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
신),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복음교
회 (무순)

❶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까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이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져 그야말로 ‘초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옥스퍼
드대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우리나라가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란 예측을 하기도 했죠.

사실, 저출산의 원인은 복잡한 실타래 같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해서 발생한 결과인 것이지요. 당장 혼인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자연스럽게 출산, 양육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결혼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
으로 경제적인 부담, 소득 격차, 살인적인 주거비용 증가 등이 출산을 주
저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지만 낮은 양성평등지수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독박 육아’가 그것이죠.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했는데 세상 환경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걸 저명한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바로 서울 중심, 수도권 집중현상입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뉴스만 틀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세대, 출산, 양육을 생각한다는 건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삶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도 쉽게 볼 수 있고요.

❶ CBS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및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CBS 광주 본부장을 할 때, 몇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출산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도 못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냐”며 몇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께서 ‘교회들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서고 아이들을 키워주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CBS 사장이 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장선출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 선거에 1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CBS 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다름 아닌 출산돌봄운동을 몸소 실천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CBS 사장이 된 이후 저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으로 받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해, 특히 교회를 향해 입을 크게 열어 출산·돌봄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BS 매체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TV와 라디오, 노컷뉴스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 저출산 위기의 실태를 보도하고 더 나아가 보도국을 중심으로 노컷뉴스 출산돌봄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언론사 최초로 ‘출산·돌봄 연중 기획보도’를 통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계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포럼’과 ‘출산돌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출산돌봄의 우수사례를 대안으로 제시



함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2021년 11월에 한국 교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❶ 현재까지 CBS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6월 1일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시편 127편 3절 성경구절을 모토로 ‘CBS출산돌봄 캠페인1273’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15개 주요 교단과 함께

‘CBS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한국 교회와 함께 범교단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주 2개 교회 이상을 방문해 목사님들에게 출산돌봄 사역에 적극 동역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0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10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22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했고, 그해 11월 23일엔 한국 교회와 함께 CBS출산돌봄캠페인 1주년 보고대회와 감사예배, 출산돌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4월 17일에는 2박3일 일정으로 당진동일교회에서 1,000여 명의 목회자를 초청해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4월 26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70여 명의 국회의원, 한국 교계 지도자 등 각계인사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CBS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인구포럼과 출산돌봄 컨퍼런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교계와 정계, 학계 인사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합니다. 지난 3월 24일엔 서울시와 CBS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와 CBS는 교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같은 놀이시설과 돌봄시설을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구축하기로 하는 등 아이 돌봄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CBS엔 14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요. 지역본부 차원의 출산돌봄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CBS가 지역 교계는 물론, 정치, 행정, 시민사회를 총망라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주, 전북, 대전, 포항, 강원 등 곳곳에서 지역 CBS와 대학,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출산돌봄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19일에는 순복음대구교회에서 대구CBS 주최로 ‘2023 대구경북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❶ 지난 4월 17일~19일에는 당진동일교회에서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하셨는데요, 컨퍼런스의 목적과 진행상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견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CBS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와 4/14(포포틴) 윈도우 무브먼트, 당진동일교회, 뉴욕프라미스교회가 마음을 모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전국 1천

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되는 등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 지면을 통해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 뉴욕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진동일교회는 저출산 극복 모범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와서 방과 후 수업부터 또래 친구들과의 놀이, 심지어 저녁 식사까지 해결한 뒤에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수훈 목사께서 말씀하시길 “처음부터 거창한 교육철학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종의 탁아소 개념으로 첫발을 뗐는데, 차츰 지경을 넓히다 보니 오늘날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돌봄의 멋진 본보기를 일궈낸 현장의 사례, 돌봄의 노하우, 교회 부흥의 비결을 전국 목사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마련한 게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였습니다.

컨퍼런스 2박3일 동안 내내 빈 좌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극복과 다음세대 양육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지와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뜨거운 도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대한민국 출산돌봄컨퍼런스 추진 배경

- * 합계출산율 0.78명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가 미래세대를 위협하면서 '저출산 극복'은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
- * 이에 전사적인 출산돌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CBS는 당진동일교회(이수훈 목사)와 함께, 1,200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미래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한국 교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2023 대한민국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
- * 당진동일교회가 실증한 출산돌봄 성공사례 발표 등 목회 노하우 공개 및 솔루션 제시.

※ 당진시 초등학교생 비율 12.4%(2020.1)

※ 당진동일교회 운영 매뉴얼 제공

❶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양성평등 문제 등 사회문화 영역이 복잡하게 연계된 고차원 방정식 같습니다. 즉, 모든 영역의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수도권외의 과밀로 인한 무한경쟁, 부동산값 폭등, 사교육비 지출 폐해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파격적인 지원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최고 부촌인 압구정동에 70층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다자녀 가구들에게 추첨권을 주고 싼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게 해 20년 이상 살게 한다든지, 혹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또 인구부흥부를 만들어,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만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아닐 겁니다. 저출산에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부모를 돌려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봄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사회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먼저일 테니까요. 여기에, 독박육아가 아닌 남녀 성평등에 기초한 보육환경, 경력 단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과 승진 기회가 보장되는 기업문화가 작동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끝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전국에 5만여 개 있습니다.

“출산율 사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교회’가 돌봄사역이라는 공동체성을 발휘해 부모에게 온전히 쏠려있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강단에서 생명과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며 ‘아이 낳는 것이 행복이자 축복’이라는 가치관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지금처럼 나날이 추락하는 저출산 그래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교회의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한국 교회엔 교회학교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진동일교회가 대표적이죠. 돌봄사역이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 기르는 부모들이 몰려들었고 전체 교인의 평균연령이 29세며, 당진시 초등학생의 12.4%가 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부산 금정구에 있는 동상제일교회(조수동 목사)도 출산을 적극 권장하며 아이 웃음소리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예비학교를 진행해 부부 사이 갈등 해결 방법부터, 재정 관리, 자녀 교육까지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물론, 선교원을 운영하며, 교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출생 3개월부터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를 맡아 돌봐줍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출산과 육아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 결과, 이 교회 부부들의 평균 자녀 수는 3명에 달하고 전체 교인 5명 가운데 1명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입니다.

이외에도 세 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 다음세대 양육에 힘을 쏟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등 아이들을 품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❶ 출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2030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80.9%는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에게 무한경쟁, 경제적 두려움 등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꿈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결혼 예비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결혼과 출산,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시스템을 교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과 교회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르겠지만, 앞서 당진동일교회의 돌봄사역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와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출산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돌봄,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제2의 한국 교회 부흥은 출산과 돌봄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❶ CBS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CBS는 2021년 11월 교계와 함께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교계와 연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출산돌봄캠페인을 비롯해 인구포럼, 출산돌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CBS는 언론사이자 선교회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자 또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CBS는 앞으로도 뉴스,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인 방송콘텐츠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사 본연의 역할을 다해갈 것이며, 한국 교회 주요 교단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회가 선도하는 저출산 해법의 이정표를 만들어 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와의 MOU를 통해 밝혔지만, 한국 교회의 유희공간 발굴을 통한 돌봄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찾아가는 출산돌봄 컨퍼런스’ 등 출산돌봄캠페인을 보다 실효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확산하는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라는 성경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 바로 출산돌봄이라 생각하며 CBS 모든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끝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장을 해야겠다고 결정되면서 2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첫 번째는 ‘THINK GOD THINK JESUS CHRIST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이것

을 CBS의 슬로건화 하는 일, 지금도 진행형이자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일입니다. CBS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CBS 사장으로 임기 동안 출산·돌봄 사회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해 주실 것이고 목사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CBS을 두고 바깥에서 왜 선교 방송이 대중음악을 틀고, 세상 뉴스를 외치냐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CBS는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CBS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인 방송국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CBS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오 사장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미디어학부)를 졸업한 후 1988년 C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CBS 워싱턴 특파원과 CBS 보도국 보도국장, CBS 광주방송본부 본부장, CBS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장을 역임한 후 현재 제10대 CBS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제26회 한국기자상 수상(1994년), 제31회 한국방송대상 수상(2004년) 및 한국기자협회 주최 이달의 기자상을 다수 수상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대문중앙교회 권사로 섬기고 있다.



Part 1-3. 저출산과 교회 캠페인

저출산 시대 교회의 돌봄과 교육

인터뷰이 **감경철 회장**(CTS기독교TV)
진행 **홍영기 목사**(교회성장연구소장)

2000년대부터 CTS영유아문화원을 만들어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해 온 CTS기독교TV는 작년 8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였다. 저출산 문제에 한국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아동 돌봄과 교육이라고 강조하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을 만나보았다. <편집부>

Q 먼저 회장님과 CTS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TS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 감경철 장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CTS는 1995년에 케이블방송이 탄생하면서 순수복음방송을 모토로 출발한 한국 교회 최초의 TV 방송



국입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미디어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EBS 다큐프라임 <저출생 보고서>와 MBC <100분 토론>에서도 다루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던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말았고, 젊은이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선택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택, 교육비, 환경문제, 치솟는 물가 등 이유가 산재합니다. 여성에게는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의 두려움 등 낮은 양성평등지수의 불합리한 구조가 쉽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아동 돌봄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믿을만한 돌봄 손길을 찾기가 어려워 조부모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예쁜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연약한 조부모에게까지 더해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간을 다 사용해도 저출산의 이유를 모두 들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Q CTS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세미나를 열고, 작년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미디어 기관으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생이라는 어려움을 목도하고 이를 돕고자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2010년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21년에 기독교를 넘어 범종교가 함께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와 함께 다음세대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IMF경제위기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영역의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를 겪은 뒤,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 성공을 위한 갈망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세대에게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재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는 CTS가 만든 것은 아니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하신 활동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당시 교육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남녀노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독교대안학교운동은 약 20여 년 동안 인식도 개선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미래교육으로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 합계 출산율 1.5명 이후 계속 떨어지면서 2010년 1.2가 되었습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2006년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소멸국가 1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감으로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공감을 받지 못하여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큼



니다. 2022년에 함께 출산율이 0.78이 되면서 누구나 저출산, 저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위기감에서 2022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로 재발족을 했습니다.

❶ 현재까지 CTS에서 진행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연원은 2000년대로 올라갑니다. 다음세대에 집중하면서 영유아 돌봄 및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CTS영유아문화원을 만들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제1호 제휴 어린이 집을 맺은 후 28개 제휴 어린이집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모차 걷기 대회, 다자녀 출산가정 시상식, 출산장려 이벤트 등 활동을 통해 출산 장려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이벤트나 캠페인만으로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출대본을 출범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기관들이 실제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

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기관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지난해 2022년 1월과 8월 아동정책세미나를 각각 CTS와 국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돌봄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대정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도 지역 출범식을 하면서 지방 정부의 돌봄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전반기에는 3월부터 매일 아동돌봄정책 포럼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5월 11일 경북 의성군과 함께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을 진행하였는데, 군의 인구가 2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저출생대책운동을 17가지 주제로 요약 정리해서 지난 4월 1일에 <저출생대책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돌봄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미디어 기관으로 미디어 행태와 기업문화 개선 그리고 아동소



아과 관련 분야도 담았습니다. 이 책자를 살펴주시면 구체적 내용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책제안서는 www.happybor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02-6333-2502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❶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간이 감당할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돌봄’과 ‘교육’입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값이나 기업 문화 등은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돌봄’입니다. 이것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2021년 돌봄사역에 관한 조사).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78.2%가 집 가까이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에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전국 읍면동 중에 554개 지역이나 됩니다. 심지어 동작구에 167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노량진2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웅변적으로 말해 줍니다. 돌봄이 없는 곳에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이가 없으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경제 논리를 들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한 명의 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돌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❶ 그동안 취재하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교회의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에서도 지역본부를 출범하며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출산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 설교를 하시고, 교회에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출산장려위원회 등을 조직하거나 기도 모임을 조직하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외 한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교회에서 지원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들을 세워주고 장학금을 주는 등의 지원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2012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죠. 최근에는 지급 금액도 올려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선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들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멀리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하면 저출산 극복은 열매로 맺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지금 주어진 다음세대들을 잘 섬기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힘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당진동일교회(이수훈 목사)가 있습니다. 저희와도 여러 차례 세미나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CBS와 대대적인 세미나를 가져서 그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대광교회(신정 목사)는 종합복지센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임신부 학교를 운영하면서 임신에 따른 우울증 및 임신성 질환을 예방하고 임신부들의 영양 관리와 다양한 교육으로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그 외 엄마랑 아기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규모지만 각 지역에 맞게 지역과 관계하면서 활동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광현교회(서호석 목사)는 0-3세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 사역을 하면서 대예배실을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주중에 베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등의 지역과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금성면의 탐리교회(오덕은 목사)는 지역아동센터가 교회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교실,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마을 잔치에도 참여해서 전 연령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의 두란노교회(이상문 목사)는 교회 내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 아이들 누구나 와서 놀고 갈 수 있도록 해 두었고, 교회 건축할 때부터 영유아 부서를 고려해서 영유아 예배실 입구로 비는 유모차를 세워둘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아이와 부모가 교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상문 담임목사님이 미디어를 통해 육아 우울증에 대해 듣고서 젊은 부모 세대를 섬기기 위한 아기 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출산 늪 탈출전략 303 프로젝트』 책을 내시고 활동을 하시는 이병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책을 펴게 되셨고, 에스터기도운동 등 교회 대상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책 제목과 같은 <303 프로젝트>입니다. '30대에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선교사님이 특유의 온화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최근 선교사님을 CTS직원예배에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홍보대사로 부탁도 드리고 함께 협력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도록 도전과 격려로 사명을 심어주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❶ 프랑스와 스웨덴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해외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유럽은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환경적으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나라 간 경계가 낮고 일찍이 이민정책으로 문이 열려 있었고 또한 결혼을 해야 자녀를 갖는 문화가 아닌 동거만으로도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민청을 세우는 이슈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TS는 이주민선교포럼과 4년째 포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주민 선교포럼도 우리나라에 머무는 다양한 국적의 다음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음세대는 다문화 가정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도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육아휴가보다는 근로시간 유연근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가정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기업에서 세금을 거두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연근무는 소득은 감소하지만 경력이 유지되면서 육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양립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노동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의 캠페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❶ CTS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꾸준히 돌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돌봄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7세는 90% 이상의 아이들이 돌봄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연령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등학교 입학한 저학년입니다. 정부는 돌봄학교 등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맡도록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돌봄 프로그램, 콘텐츠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집중해서 준비하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0-3세 영유아입니다. 고위험군의 아이들 대상이라 어린이집도 많지 않을뿐더러, 부모와 애착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연령이라 사랑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니라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동 케어뿐 아니라 부모 케어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한 돌봄 정



책이 아닌 가족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월 30일에 CTS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교회 대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와 교회형 아동돌봄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실내형 공공 놀이터를 서울시 모든 동에 1개씩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 공간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이들의 첫 번째 놀이터가 교회 공간이 된다면 교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고 친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형 아동돌봄터 콘셉트는 옛날에 품앗이 돌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하시면 운영매뉴얼과 프로그램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아이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멘토맘을 두어서 육아 초보인 부모를 돕도록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 교육까지 이어지게 되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공간을 아동 돌봄의 공간으로 내어

주면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돌봄 사각지대가 없게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또 포럼, 세미나 등으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며 실제 교회들이 아동 돌봄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갈 생각입니다. 앞에 소개드린 저출생 대책 정책제안서도 더 확장할 생각입니다. 저희에게는 다양한 제안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❶ 끝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기사에 <軍도 저출산 쇼크... ‘동해 지킴이’ 8군단 임무해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세 남성 인구가 2035년 23만 명, 2040년 13만 명 등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추계를 감안해서 육군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2·20·26·30 사단이 해체됐고, 특히 지난 연말에는 ‘이기자 부대’로 유명한 화천 27사단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저출산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5월 2일자 모 중앙일간지는 <세계 최고 양육비 드는 한국, 출산을 세계 최저일 수밖에>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기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가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78.3%, 총 사교육비 시장규모가 26조 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약 3억 6,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을 꿈꾸고 자녀를 낳아 키울 엄두를 내겠습니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가



정을 꾸리며,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공간과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세대를 선교한다는 사명으로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직접 돌봄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처럼 직접 학교도 세우고 아동 돌봄터도 세울 수 있지만, 다음세대 부모들에게 세속화된 세상에서 기독교 교육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의 시대에 거꾸로 가는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란 다음세대가 결국 세상을 바꿀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다음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

감경철 회장

국제대학교(경제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수료),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개발학과(석사)를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선교학 명예박사, APU(Azusa Pacific University) 인류학 명예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후 백석대학교 명예언론홍보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옥산레저(주) TGV C.C 회장, 한국 광고 단체인협회 이사, CTS기독교TV 사장, WCBA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회장, 재단법인 한코리아 이사장, 세계한인방송협회(WAKB)회장, 국가조찬기도회 제7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CTS인터내셔널 이사장과 CTS기독교TV 회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숲을 꿈꾸며 밀알을 심다』, 『숲을 꿈꾸며 밀알을 심다 2』가 있다.



다자녀 가정 64% 송춘장로교회

글 박경배 목사(송춘장로교회)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증병에 걸렸다. 첫째는 저출산이고, 둘째는 거짓이고, 셋째는 국민 분열이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저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성과 원인을 진단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송춘장로교회의 출산장려운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출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육 번성하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의 복을 주셨다(창 1:28).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인간은 번성할 수 없다. 생육, 번성하지 않는 것은 재앙이고 비극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여 19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 아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불과 5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다.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국가 정책을 따랐다. 생육, 번성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강단에서 이에 대한 설교가 부족했다.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생각 없이 정부 정책에 순응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사조에 끌려가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육과 번성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한다.”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결혼해야 한다.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다.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창조 질서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는 자녀를 낳아야 한다.

성경은 자손이 많은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 시편 127편 3-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기를 낳아야 한다. 개인을 위해서도 출산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출산해야 하고,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도 출산해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 100만 명이던 출생률이 2022년 2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 파탄과 국방력 저하, 지역 소멸로 대한민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전국 6,200여 개의 초등학교 중 131곳에서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았고, 125개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단 1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1명 이하일 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변화 예측을 통해 300년 뒤 지구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당시 합계출산율 1.19명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대한민국 인구가 2074년 3,000만 명, 2136년 1,000만 명으로 줄어든 뒤 2256년 100만 명으로 급감하고 2750년엔 나라 자체가 소멸된다는 발표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 총재는 2017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를 집단자살 사회로 진단했다.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요즘 청년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고 한다. 슬픈 현실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한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들고 출산 이후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현실에서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치러야 할 대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기조에는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관의 변화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를 왜곡시켰다. 특별히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능력이며, 출산과 양육은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간은 낭비이며, 희생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혼자 사는 것이, 성공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돌싱’과 같은 신조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전시인권센터가 지난 4월 26일 발간한 <대전인권신문> 4월호에 한남대 이형우 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이라는 개념의 원형에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라는 존재로서의 인식이 포함돼 있다. 대개의 가정에서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대상은 주로 어머니’라고 기고했다. 이에 대

하여 일부 언론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생을 즐기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다. 부부가 즐기는 데 아이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잉태하면 과감하게 낙태를 선택한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가리켜 ‘딩크족’이라 한다. ‘수입은 두 배, 자녀는 NO’, 인생을 즐기자는 쾌락주의 사조의 영향이다.

셋째는 사탄의 문화 때문이다.

지금까지 280조의 출산 장려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극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을 위한 사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학교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남녀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법적 범위를 넘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발의안이다.

결국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남자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정하자는 법이다. 이는 저출산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요, 기존의 가족제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생육과 번성이 멈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문화는 불신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생육과 번성은 믿음의 일이다. 출산하지 않는 문화, 출산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담론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도들에게 생육과 번성은 단순한 문화 현상만이 아니다. 믿음의 일이다. 신앙의 문제다. 세속의 가치와 사란의 문화와 싸워 이겨야 하는 사명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

송촌장로교회의 사례

송촌장로교회는 10년 전부터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서부터 35살까지를 한 교구로 묶었다. 이러한 ‘한 몸 교구’ 편성은 담임목사로서 목회철학과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한 몸 교구를 특별히 만든 이유는 이 나이의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률이 낮고 이탈률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제 사회의 초년생으로, 바쁜 직장생활에 치이고 육아와 양육으로 정신이 없는 세대다. 더구나 교회의 배려는 부족한데 헌신만 강요당하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이 부담되기도 한다. 세대 간의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하여 한 몸 교구를 만들었다. 신앙 성장과 교제, 출산과 자녀 양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실 젊은 세대로만 구성된 교구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교회 안에 존재했다. 어린 세대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세대 간 시간이 조금 줄더라도 비슷한 연령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송촌장로교회에는 다자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교구 내 88개 가정 중 세 자녀 이상이 34%, 두 자녀 이상 30%나 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교회에는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북 군산에서 6년 전 대전으로 이사와 송촌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김태정 집사는 ‘한 몸 교구’에 편입되면서 교회 적응이 무척 수월했다고 말한다. 교구 안에서 또래 교인들과 신앙과 육아에 대해 소통했고, 특히



아이들을 배려해 주는 교회와 교구 분위기가 큰 힘이 됐다는 것이다. 김 집사는 “담임목사님은 자녀의 소중함과 출산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강조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데 큰 격려가 되었다”라고 했다. 김 집사가 가정에는 지난 5월 15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김 집사는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셋째를 낳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기른다는 생각에 부담보다는 기대가 훨씬 크다”라고 고백했다.

송촌장로교회를 15년째 섬기는 이주현 집사는 신혼 초부터 출석해 현재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 집사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과 함께하는 구역 활동이 어려웠다. 물론 많이 이해해 주셨지만,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울까 구역예배 때 눈치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 몸 교구에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어 정말 좋았다. 신앙적 고민과 육아의 고충을 나누므로 큰 도움이 됐다”라고 했다. 이주현 집사는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막내가 4살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자녀가 자연스럽고, 성도분들 누구나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용기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처음엔 교구 편성에 부정적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금방 교인들도 적응이 됐다. 무엇보다 부부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앙에 소홀했던 남편들의 교회 활동이 왕성해졌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을 중심으로 구역 활동이 많은 다른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다.”

한 몸 교구 담당 교역자 김경숙 전도사의 말이다.

“한 몸 교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한 몸 교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은 기본이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도 ‘교회 모임에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춘장로교회는 출산을 강조하고 있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인들이 셋째를 출산하면 1백만 원, 넷째는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젊은 부모에게는 격려가 된다. 2024년부터는 2자녀 1백만 원, 3자녀 이상은 2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3자녀 이상의 식구들이 앞에 나와 특별찬송을 하고, 교회에서 가족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교회적으로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다.

송춘장로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대안학교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여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들의 신앙적 양육을 위한 ‘마더와이즈 교육’도 하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의 관심과 교회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다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도들 역시 자녀가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출산을 위한 대안

첫째로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자.

둘째는 작은 것이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물질적 도움을 주고 축하해 주자.

셋째는 대안학교나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만들어 자녀들을 돌봄과 성적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넷째는 자녀들이 거짓된 인권 교육이나 잘못된 성교육을 받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바른 교육을 하자.

다섯째는 잘못된 인권을 확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운동 및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 보도 준칙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자. ☞

박경배 목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전기독신학대학 교수, 대전CBS 7대 운영이사장, 대전성사회대운동본부 9대 대표회장, 미래목회포럼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대덕사랑교육문화복지재단 대표이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대전시민문화센터 대표,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예자연 실행위원장, 대전자유시민연대 대표, 한국성서화운동협의회 이사,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Integrity School(정직학교) 교장 및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교회』, 『솔로몬의 아가라』, 『노헤미아의 리더십』, 『떡 없는 떡집』이 있다.



사랑의교회 결혼준비학교

인터뷰이 **이의수 목사**(사랑의교회 사랑패밀리센터)
취재 이하늘, 이지현 기자

MZ세대들은 행복한 가정보다는 IMF를 맞아 실직하고 이혼하는 등 불안한 삶을 살았던 부모들을 보고 자랐다.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는 부모 세대처럼 가정에 대한 짐을 지고 살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랑패밀리센터 이의수 목사를 만나 '결혼준비학교'의 사역과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부>

Q 먼저 목사님께서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정사역자 중 90%는 이혼 직전의 위기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경우 신대원 시절부터 경험했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예비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마고 데이'(Imago Dei),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두란노서원에서 나오는 가정사역 콘텐츠들을 탐독했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처음으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오픈하는 일에도 나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중 가정사역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어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옥한흠 목사님 시절부터 이 사역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거 한동안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역들을 알아서 도태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사역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던 덕분입니다.

❶ 사랑패밀리센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의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한 햇수도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패밀리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비싼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매년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등록합니다. 초신자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거의 30%가 전도 대상이거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얻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회복되어야 믿음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사역이 구원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사역자로서 가장 행복한 지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은 행복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단계별 양육 시스템은 우리 가정사역의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준비교실이 있고, 이어서 태교교실, 가정경제스쿨, 부부 회복 프로그램인 사랑의 순례, 아바러브스쿨, 중년들을 위한 인생2막스쿨, 인생광야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돌리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높은 회비가 책정된 만큼, 교회로부터의 지원은 적은 편입니다. 하

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회비 이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❶ 사랑의교회 결혼준비학교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예비’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우리는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준비학교의 교육은, 결혼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커플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참여자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지금까지 3천여 커플이 여기를 거쳐 갔습니다.

결혼준비학교는 결혼 후 처음 3년을 잘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그것들을 기초로 삼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위기 상담으로 찾아오는 커플의 숫자가 적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를 가르칩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체험하도록 돕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부부란 이런 느낌인가’ 를 경험합니다. 불신자 참여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매리지(Marriage) 멘토링’은 결혼 준비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려진 미국 교회들도 탐방해 보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리지 멘토링’을 제대로 진행하는 곳은 우리 교회뿐이거든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홍콩이나 괌에 사는 예비부부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사역이 정말 괜찮나보다 하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교

육이 진행되는데, 봉사자들은 다 합쳐 25~30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선별된 부부가 함께 헌신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 결혼을 위해 실질적으로 30시간을 헌신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예비부부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은 부부 헌신자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 관계를 맺습니다.

Q 우리나라도 비혼 및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과거에 보건복지부 민간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누구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거든요. 커다란 맨홀이 뚫리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문제를 말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책을 세우는 이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직접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IMF 당시 실직했던 가장들의 거의 절반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지금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던 부모들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가정은 보호처와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된다는 현실을 보며 성장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세대처럼 짐지고 살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높은 이혼율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거에는 잘 예측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비혼과 저출산입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일수록,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크게 줄었는데, 가족 수는 줄지 않았거든요.

결국, 과거 인구정책의 결과 및 경제 발전 속에 드리운 이혼의 그림자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사는 것만 초점을 맞춘 채,
행복하게 사는 인생에 대해 거의 강조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통해 점차 안정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
를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고 누구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❶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사랑 패밀리센터나 결혼준비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녀 출산 이슈는 결혼준비학교에서 다루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부부의 성이나 성 문화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습니
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준비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출산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란
'진정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녀를 낳고
'헌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경제적 공동체도 아니고, 부부관계를 위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가정은 평등한 공동체가 아니라, 도리어 비합리적인 공동체거든요. 비합
리적인 것일수록 아름다운 것임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네 것과 내 것을
나누어 서로가 수평적이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깨뜨리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부족하고 불
균형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교육 덕분에 결혼준비학교를 거친 예비부부들 대부분이 결혼 이



후 태교 교실에 등록하는데,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❶ 예비부부들 가운데 자녀 없는 삶을 원하는 부부도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불행했던 경험이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가르침은 깊이 새겨집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까?’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치열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이는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무슨 직업을 가질지를 결정합니다. “아빠를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도 인생의 경쟁력도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겠더라”라는 딸의 고백이 감사하고 기특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애초에 이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하는 현상은 사회적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자문위원 활동을

을 통해 이혼숙려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더 많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결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Q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현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실 때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기업은 관계의 기업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영역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혼자 서 있는 인생은 초라할 뿐입니다. 독립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혼 선언식을 보면 젊은이들의 객기로 느껴집니다. 코로나를 통해 고립의 어려움을 모두가 느끼지 않았나요? 혼자 살면 119가 와도 문을 열어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같이 살면 즐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저 1+1이 아닙니다. 둘이 합하면 100이 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몇 대 몇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뉘지는 그런 현실은 허상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애써 합리적인 것으로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결혼과 인생에 프로인가요? 삶은 늘 무언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 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나뉘지는 법입니다.



❶ 결혼 장려를 위해 교회가 감당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교회는 감당하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책은 없고 방향만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비혼과 저출산은 당분간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인구 대책은 출산 대신에 해외 노동자 이민에 의존하려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영적인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맞지 않는 모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천 가족들이 제대로 잘 살아서 사회에 모델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교회 강단의 메시지도 믿음에 관하여, 일터를 향하여,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가정사역을 5월의 특별 사역으로만 제한시킵니다. 결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사역은 마치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공기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1년 내내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같아야 하고요. 교회가 상시적으로 가정사역을 하고, 부부를 위한 상담치료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변에 위탁 기관을 찾아 서로 연계하려는 시도라도 해야 합니다. 이미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대형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형교회를 비판만 하지 말고, 도리어 대형교회를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날, 유모차에 탄 아기가 비를 맞지 않고도 천천히 건물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교회 헌금의 일정 부분이 젊은 부부 교인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하드웨어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의 조직 시스템도 가족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요. 기존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처럼 가족을 찢어놓은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뭉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가치를 강조한다 해도, 그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다음세대의 믿음을 키워주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가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이의수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을 전공하고 평생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아버지와 남성 사역 전문기관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 및 윌리엄 새들러 박사의 Third Age Leadership Center에서 지도자 훈련과정을 수료했으며 1997년 아버지재단을 설립했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아버지, 행복건축가>를 개발했고, KBS 연수원 퇴직자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관공서와 기업에서 행복 리더십과 아버지와 남성들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다. KBS1 <아침마당>, <생방송 세상의 중심>, MBC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등에 활동이 소개되었고,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CBS TV 연속특강 <행복토크 가족 - '남편 기살리기'>, CBS <기쁜 소식 좋은 세상>과 극동방송 <출발 좋은 아침>의 진행을 통해 행복한 가정 문화를 전파해 왔다. 저서로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큐티하는 남자』, 『남자 리뉴얼』, 『남성학과 남성운동』이 있고, 옮긴 책으로 『남자들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등이 있다.



저출산 시대와 낙태!

글 이재욱 목사(참사랑교회,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행동하는프라이프 이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이 시대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미 여러 매스컴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합계출산율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이며, 심지어는 1명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인구 붕괴 상황이라 봐도 무방하다.

국가통계포털자료에서 게시한 대한민국 신생아 수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신생아 수 64만 명에서 2010년 47만 명, 2020년 27만 2천 명으로 10년 단위로 17만에서 20만씩 떨어져 왔다. 2023년 2월 22일 통계청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2년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이 줄어 4.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의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음을 밝혔다. 반면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으로 밝혀 현재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국가 위기를 넘어 소멸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1년 3개월이나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러시아 정부와 인구 전문가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젊은 남성들이 전장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목숨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인구통계학자 알렉세이 락샤(Alexey Raksha)는 “러시아에 군인이 없다는 건 남자가 없다는 뜻이다. 고로 아기도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러시아는 전쟁 전까지 합계출산율 1.5명(러시아 국가통계청)을 유지하다가 올해 1.2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여겨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말 내각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출산율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중이라 해도 출산율이 1명 이상 유지되는 것은 보통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보다 더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문제와 다가올 교회 문제

우리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단지 국가적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 청교도 혁명 당시 국교회 장로파 젠트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신학자들을 소집하여 장로회 신앙의 기본 틀을 정립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이 문서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회 신앙의 핵심 문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땅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신조로 삼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다루는데, 24장 2항에는 이렇게 말한다.

2항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창 2:18), 합법적인 자녀 생산을 통한 인류 증가와,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서(말 2:15), 그리고 성적 불결(不潔)을 막기 위해(고전 7:2, 9)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자녀의 출산은 인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거룩한 자녀 세대를 통한 교회의 증가 즉, 출산은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 다음세대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말이다.

필자가 20년 만에 찾아간 모교인 고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1/3로 줄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폐교 관련된 소식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교회 다음세대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10년 안에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어



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고민할 때다.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이 시기를 준비해야 하며,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교회 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것, 그에 따른 교회 재정 감소가 가속화될 것, 교회마다 세대교체 이후 원로목사의 예후와 교회

의 재정 건전성 등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은퇴한 원로목사들의 노년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맞물리면서 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통합 관련 문제들도 곧 다가올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많은 과제들을 던져 주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낙태 문제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는 다양한 원인 분석과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필자도 ‘성’과 관련되어 다음세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야에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 교계에는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성 개념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들과도 MOU를 맺어 교육하는 ‘카도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 & 가정 & 결혼’을 넘어 ‘저출산’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 소재한 주안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

로 2주간 강의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성 & 결혼 & 가정 &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출산 시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설교를 하였다. 당시 다뤘던 내용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러 원인 중 ‘낙태’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낙태 현황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낙태는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 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모체 안에서 살해하거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산부인과의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에 의뢰해 낙태 수술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루 평균 1천 명이 수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하루 평균 3천 명이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평균 1천 건씩 365일로 계산하



면, 36만 5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산부인과의사회가 추정하는 실제적인 평균 낙태 수술로 계산하면 109만 5천 건에 달한다.

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신생아 수는 43만 9천 명이 었다. 당시 하루 1천 명의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계산했을 땐, 엄마의 배 속에서 죽은 아이는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83.1%로 놀라운 수치이며, 본래 2005년도에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의 45.3%가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은 것이다. 이것을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추정한 수치로 계산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2017년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해 임신 된 태아의 24.6% 즉, 1/4 정도만 신생아로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3/4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생명운동의 최대 연합 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는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 이전부터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이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온 바 있다. 산아제한 정책 당시에는 ‘아기를 지우다.’, ‘아기를 뎀다’는 식의 표현들도 쉽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에 강력한 저항 대신,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취했다. 결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낙태 경험자들을 방임했다. 그 당시 국가의 정책적 제안과 개인적인 삶의 만족, 안녕과 풍요한 요구가 잘 맞물렸다. 그래서 이러한 반생명적인 정책들을 핑계 삼아 그 길에 편승했는지 모른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낙태 실태 조사를 하였다.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낙태를 한 여성들은 20대 여성들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7세였다. OECD에서 한국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을 32세로 집계했으며, 국내에서 조사된 평균 초혼 연령 중 여성은 31.3세였다. 20대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은 낙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기혼 여성이었으며, 미혼 여성과는 10%정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수는 혼외에서 일어난 낙태였으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들도 꽤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반(反)성경적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까지 낙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지목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현재 건전한 가치관을 흔드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급진적 여성우월주의(급진 페미니즘)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함’이다.”

먼저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자. 기본적으로 급진 페미니즘은 전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인 공교육 현장에 침투해 있다. 그와 같은 사상을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페미니즘의 사상적 내용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보는 교내 문고에도 그러한 책들이 다



량 비치되어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로 가르치고 있으며, 더 이상 여성의 ‘자궁(子宮)’을 자궁이 아닌 ‘포궁(胞宮)’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보는 ‘여성 인권’이나 ‘성(性)’ 관련된 도서에는 여성의 인권 척도를 ‘낙태의 자유로운 유무’로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와 같은 영향을 받으면 초기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낙태라는 것을 알게 되며, 태아는 생명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기 충분하다. 여성의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낙태’를 주장하게 된다.

실제로 필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친후 서울 흑석동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청소년학을 공부하였다. 해당 전공에 대한 학부 지식 보충을 위한 학교 정책으로 사회복지학과에 내려가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중 담당 여교수님이 낙태 문제를 언급하였다. 찬반 토론을 하자고 하였으나, 21-22세 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강의실에선 반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학원생이라 참관만 하던 중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 표했다. 반대 관련한 의학적, 법적, 윤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며 태아 생명을 변론하였다. 그러나 여대생 모두는 만장일치로 여성의 권리로서 낙태를 주장했다.

그중에는 분명 크리스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니라고 발언하는 학생은 없었다. 적어도 그중에는 말이
있을 것이다. 어렸을 적 동생을 임신한 어머니를 보면서 배 속에 있는 태
아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태아가
생명이라는 직간접 교육을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반성경적 이론이 이렇
게 사고를 뒤바꿔 버린다.

오늘날 페미니즘 관련된 도서들은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도서들에서 말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의 권리
로 배 속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러한 풍조는 책을 넘어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도 점차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중이다.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
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
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 특히 MZ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나르시시
즘(Narcissism;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로 이들은 ‘자신의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자신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태중의 생명이라도 자신을 위해 희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라고 응답

한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이다. 이 '경제 상태'라 함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제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어도, 출산으로 인해 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여가 생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고 계산되면 낙태를 선택한다. 또 '자녀계획 때문(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라고 그다음 이유를 들었다. 자녀를 원치 않아서 배 속에 이미 생긴 자녀를 없앨 수 있고,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 자녀의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참 놀랍고 한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고대 근동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다. 열왕기하 3장 26-27절에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데려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자신과 나라의 안녕과 평안, 승리와 성공을 위해 취한 끔찍한 행동이다. 또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에 지나게 하며(렘 32:35),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르길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왕상 11:33) 모습들을 보였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자기의 안녕과 만족, 물질적 번영과 성공을 누리기 위해 (배 속에 있는)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서는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라고 말한다. 또 시편 139편 13-16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시편 71편 6절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밖에도 태중에 세례요한을 품고 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지라’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아이는 ‘브레포스(Infant, Baby)’ 아기를 말한다. 성경은 더 많은 구절들을 통해 태아도 어린 아기와 같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임을 증거한다.

이 시대의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



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함으로 두려워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었다.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면,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이번엔 극단적 조치를 내렸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이라 생각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도 무참히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태어나는 아기들 보다, 빛도 보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아기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개인의 풍요, 안녕, 성공, 삶의 질 등 여러 이름으로 사

람들을 위협하며, 배 속에 있는 태아를 그모스, 몰렉, 밀곰에 바치라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써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나 어둠의 권세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미디어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결혼제도와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내는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복이 아닌 저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특히 당장에 죽어가는 태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해외 선교도 좋고,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도를 구상해 보는 것도,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위에 나열한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반 생명 문화 가운데 생명 교육으로

교회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음세대들을 가르쳐야 한다(엡 5:15-17).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다. 바로 여기 최소 단위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에 더해 말씀을 통해 태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쳐야 한다.”

해외 선교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타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미혼모 관련 사역과 입양 관련 사역 등 교회가 할 일들이 많다. 특히 반 생명 문화가 창궐한 이 시점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문화를 일으킬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세대들을 무장시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세대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실상 다음세대를 넘어,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본다. ☞

이재욱 목사

한세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아동청소년학과)을 졸업(석사 수료, 논문 진행 중) 후, 현재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전문위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교육팀장, 크리스찬 성교육 전문강사, 코람데오 닷컴 연구위원장, 다음세대 교육 칼럼니스트(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코람데오닷컴 등 기고)로 활동하며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Part 2-4. 저출산 극복 교회 사역

저출산, 이유가 무엇일까?

진행 방현미 편집장

대담 박상균·김수영 부부, 백승민·이지현 부부, 이영미, 김찬양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 2.06명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최근 5년간 1명 이하의 현실을 마주하며 월간 『교회성장』에서는 실제 젊은 부부의 가정들의 자녀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이며,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PART 1. 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가?

사회자(방현미 편집장)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김찬양(기혼·無자녀)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워라밸(Work-and-Life Balance)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일도 해야 하고, 또 퇴근 후에 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박상균(직장대) 사회적인 구조가 아이를 낳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고학력 시대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또 사회 자체가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뿐 아니라 출산도 꺼리는 시대가 된 거죠.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노키즈존(어린이 제한 구역)’이 생겨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퍼진 것도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영(다둥이맘)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면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임신과 출산은 시작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1인당 육아비용이 많이 드니 둘째, 셋째를 낳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다 부모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랜 기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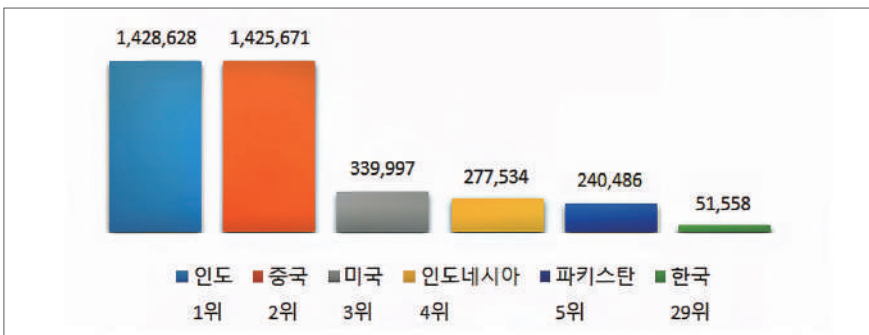
백승민(직장대) 저출산 문제는 모든 공동체의 존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모든 시스템이 전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고 맡고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직장맘)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가 인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구 변화에 따른 중국의 세계적 입지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그와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국가별 인구 자료

(단위: 1,000명)



<자료> 통계청

이영미(다둥이 직장맘)

실제로 출산하여 아기를 안아보기 전에는 아기를 낳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아기를 낳으면 생기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만 극대화하여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보면 경제적 부담이 큼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근 시 아이 돌봄에 대한 문제예요. 둘째 낳고 복직을 위해 베이비시터 비용을 알아보니 1명 돌봄에 월 24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 낳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자

예전에 비해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박상균

예전에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20대 중후반에 결혼했어요. 지금은 최소한 대학교까지 학업이 이어지니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결혼 준비를 끝내면 40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돈이 하나도 없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교육전도사의 사례비가 50만 원이었는데, 뭘 몰랐으니까 결혼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10년간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수영

생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죠. 특히 여성들은 출산까지 하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오히려 교회 청년들의 결혼이 더 늦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친구들의 경우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맞춰서 대소사를 이뤄 가는데, 교회 친구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친구들과 같이 몰려다니다 보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김천양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경쟁 구도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인은 직장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경쟁 구도 사회예요. 대학입시를 위해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도 끝없는 자기 계발과 실적 경쟁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지현 미국은 미취학 아이들에게 지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집마다 기본적으로 자녀를 셋씩 낳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왜 지원이 없어도 아이를 많이 낳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가 빨라요. 20세 이후에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 결혼도 더 빠른 것 같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생 때 부모에게 용돈 받는 청년들이 많죠. 만약 대학에 다니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며 사회로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스스로 실패도 경험해보면서 자립하게 되면 결혼의 시기도 좀 당겨질 것 같아요.

이영미 남자의 경우, 결혼하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취업의 어려움 등 현실 때문에 더 늦어지죠.

반면 여자의 경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삶의 목표가 현모양처였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했겠지만, 지금까지 사회에서 이룬 것들이 단절된다는 두려움에 망설이게 되는 거죠. 특히 출산하면 육아에 집중해야 하고 5-6년 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두려움’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백승민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의 눈이 높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해요. 정말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선 그에 맞는 완벽한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도 뜻을 모아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시간은 흐르고 나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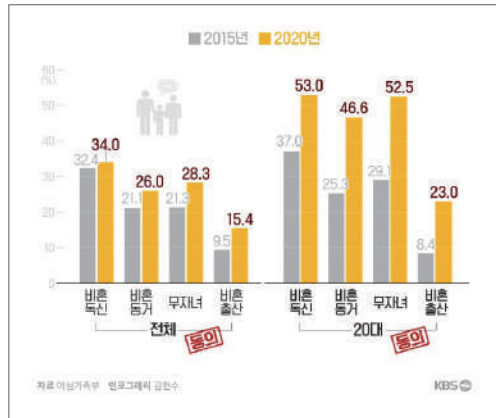
그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원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 힘쓴다면 당연히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결혼하라고 하지만 부모의 모습을 보면 결혼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엄마를 보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집 안 정리를 좀 하면 아이들이 오고, 또 저녁 시간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자녀로서 30년 넘게 봐오니 자신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미루다 보니 40대쯤 되어서야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 10-20대 여성 중 60% 가까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가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느껴져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단위: %)



사회자 결혼을 결정할 때 고민했던 것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박상균 현실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가?’였어요. 당시에 교역자가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김수영 결혼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의 가장 큰 일인데, 준비과정에서 결정권 없는



우리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영미 결혼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건 ‘과연 이 남자에게 나를 위탁해도 되는가?’였어요. 저희는 기독교 중개 앱인 ‘크리스천데이트’로 만났어요. 그렇다보니 내 평생을 진짜 믿고 의지해도 되는 존재인지가 제일 큰 고민이었죠. 그것을 놓고 한 달 동안 큐티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을 주셔서 믿고 결혼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지금은 가끔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 언제 밭에서 나오나요?” 하면서 웃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어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허례허식 빼고, 서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찰이 생겼죠. 우리와 개념이 다른 어른들의 방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찬양 저는 이미 5-6년 정도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양측 부모님의 이견을 조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부로서 가장 고민은 스텝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였어요. 나이도 있고, 직업 특성상 결혼식도 많이 다니다 보니, 결혼할 때 원하는 취향이 확고해졌어요. 원하는 곳에서 식을 올리고, 입고 싶은 드레스로 웨딩 촬영도 원하는 분위기에서 찍고 싶어,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백승민 저의 경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걸 고민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딸에게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남편의 모습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시는,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 누구도 이 시대의 아버지상, 아버지의 역할, 롤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아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꿈을 접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결혼 준비 기간은 저 스스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누군가 제게 물어보면 ‘아내가 직장맘일 때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조언하기도 해요.

어려웠던 것은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처가 5분 거리로 정했어요. 아내의 직장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 섭섭해 하셨어요. 우리 둘의 결혼인데 이런 것까지, 두 사람 외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PART 2. 결혼생활과 출산 그리고 현실

사회자 결혼 후에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김수영 저는 결혼 전에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기에 아이를 낳는 것에는 겁을 내진 않았어요. 단순히 많이 낳아서 재밌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첫째를 낳고 보니 매우 무모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첫째를 출산했는데, 육아하면서 논문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성격상 맡은 것을 완벽히 해내야 하는데 육아, 공부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또 다른 어려움은 출산 후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으니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준다며 굉장히 배려하듯 말했어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빠져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함께 했는데, ‘왜 나만 빠지지?’, ‘왜 나만 뒤처지지?’ 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아이에게도 영향이



갔어요. 정말 무척 속상했어요.

그 후로 셋째까지 낳고 나니 손이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육아휴직을 해도 셋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아이가 하나였다면 우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가 많아질수록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편히 키우면 되는데, 첫째 하나만 있을 땐 ‘편히’가 안됐던 거죠. 셋째까지 낳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입니다.

백승민 저의 경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니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키울 만하니 보내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쳐 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또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 설교를 준비할 때 목숨 걸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있고, 또 집안일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설교 준비만 할 수 없었어요.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박상균 저는 원래 혼자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밖에 나가 놀고 소통해야 하니 참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내만큼은 아니라도 저도 당연히 육아와 사역 모두 다 잘하고 싶죠.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 모임을 하다가 7시만 되면 인사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분이 참 아쉬워요.

이지현 출산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날, 시어머님이 맛있는 미역국을

뽀여주셨어요. 남편은 저를 배려한다고 어머니를 가시게 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갓난아기와 둘이 집에 남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 우는 아이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고 잤어요. 그때부터 첫째가 손을 타서 몇 개월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이영미 저는 결혼하면 셋을 낳자고 했고, 남편은 하나만 낳자고 해서 두 사람이 합의 본 게 두 명이었어요. 어찌다 지금은 셋이 됐네요. 그때 무슨 용기로 셋을 낳자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해 보니 아무리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아이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 정말 힘들었어요. 한 배에서 나와도 정말 아이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른 성향이에요. 첫째 때 됐던 것이 둘째, 셋째에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처음처럼 육아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같이 육아를 하더라도 뭐가 필요한지 잘 눈치 채지 못할 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찬양 저는 출산은 안 해서 모르지만,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편과 생활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 남편은 저녁형 인간이다 보니 서로 함께하고 싶은 시간대가 달랐죠. 지금도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워요.

사회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찬양 가장 큰 것은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것 때문이에요. 분명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부가 생활하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에 깊어져야 할 책임감과 짐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하는 분야에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임신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 것이 망설이게 해요.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환경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져놓은 후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안정적인 상황이 돼야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스트레스가 덜 가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부모가 보여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재정적,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안 좋은 영향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가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자 직장맘인 경우 자녀로 인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김수영 현재 스타벅스 관리자로 있다가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라고, 휴식이 끝나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무 매장도 집과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발령받아 가는 매장에서는 그런 직원을 반기지 않아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일주일 전에 다음 주 근무표가 나와요. 탄력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휴무를 정하지만, 쉬고 싶은 날은 모두가 다



같은 날이에요. 만약 아이들을 위해 공휴일에 쉰다고 하면 과연 어느 동료
가 이런 직장맘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말이 좋아 탄력 근
무이지, 현실적으로 직장맘으로서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오히려 마치 모
두에게 민폐 덩어리가 되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레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급하게 조
퇴를 하거나 휴무를 신청하면 탄력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
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겨 급하게 가야 할 때
믿고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거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미취학 아이들에겐 지원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어린이집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길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
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까지는 등하교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
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이지현 지난 한 주간 아이들이 아팠어요.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아이들
이 입원하면 어떻게 하지?’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입원하면 24시간 보
호자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부부가 함께 스케줄을

조정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 중 한 사람은 24시간 보호자로 병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집에 남은 아이를 돌 봐야 해요.

만약 내가 아파서 입원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병가라도 받지만, 자녀가 아플 때는 병가 처리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가 입원했을 때 ‘자녀 병가 제도’가 있다면 직장맘들이 조금 한시름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상균 제도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분위기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죠. **학원을 학습만이 아니라 보육 때문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미 교육도 필요하고 좋지만, 시간상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아요. 등원보다 출근 시간이 빠르고, 퇴근 전에 아이들이 끝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남편들의 육아휴직은 분위기도 문제지만 휴직할 경우, 가정 경제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면 죄책감이 생기고, 반대로 함께 시간은 보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남들처럼 못 해주는 것이 마음 아프니 어떤 경우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백승민 어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일 잘하고, 좋은 남편 만나면 결혼할래? 그러면 아이도 낳을래?” 그렇기만 하다면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환경이 개선되면 인식도 개선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서울시에서 ‘종일 돌봄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아래 댓글에는 “아이를 하루종일 감옥에 가둬둘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이

었어요. 저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보육 기관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일정 시간 일하면 다음 11시간 정도는 법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요. 부모들은 그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갖고 다시 직장으로 갑니다. 이런 제도를 보면 그 핵심 기반을 ‘정서’에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속한 직장 주변에 어린이집이 생겨야 합니다. 언제든지 바로 달려가서 케어가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직장과 어린이집이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같이 제휴하며 활동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이나 소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이런 제도가 보편화된다면 더 좋겠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PART 3. 자녀출산을 위한 우리의 과제

사회자 자녀 출산을 위해 교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무엇인가요?

김수영 저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것을 근간으로 아이를 낳고, 우리가 함께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출산 전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 가정의 긍정적인 역할들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인식 전환에 애써주면 좋겠어요.

앞에서 ‘아이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냐’라고 했지만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감옥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악기나 예체능을 배우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순간 반짝, 의미 없이 돈을 풀기보다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피아노와 같이 악기들을 배우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좋은 돌봄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의 높은 장벽을 낮추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거예요.”

박상균 다음세대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포함해요.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다음세대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양보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 공간을 양보하겠다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에 교회학교와 청년세대가 급격히 줄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니까, 굳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세대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공간, 재정 등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8-90년대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크리스천 가정에 건강한 아버지 상을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버지학교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는가?’, ‘아빠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런 것을 배울 곳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낳아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이지현 다음세대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음세대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아예 다음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의 모든 것이 돌아가요. 당진동일교회는 매일 2,000명의 아이가 교회로 와서 방과후교실을 해요. 용인제일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지역 사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다음세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 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교회 자체가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진 않 아요. 정말 다음세대를 살리고 싶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교회가 앞장서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다음세대에 맞춰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영미 우리나라는 출산하면 지원이 꽤 많아요. 또 교회에서도 재정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죠. 그러나 아이는 출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 요. 그 후부터가 더 장기적인 문제의 시작이죠.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육 아에서 첫째, 경제적인 부담, 둘째, 과연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

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여성교회에서는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만약 잘 아는 교회, 신앙이 있는 권사님들이 돌봄 사역을 한다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권사님들의 돌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이를 함께 양육한다는 생각에 사회적, 신앙적으로 만족도가 클 것 같아요.

백승민 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 자녀는 내가 직접 키우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 좋은 활동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직접 케어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출산 숫자만 늘리기 위해 수조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내 자녀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Outro.

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 요약

정리 편집부

1.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로 바뀐 것은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의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결혼과 출산의 (예비) 당사자인 40대 이하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신앙 생활을 신실히 하는 비율 역시 높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내에서 성서에 기초한 출산의 가치에 대한 신앙교육이 강화된다면, 초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_ 이지현 교수(장신대)

2.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안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을 중시하는 곳은 교회뿐이다.

교회 시설들은 주중에 텅 비어 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내어 주자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목사님들이 인성 훈련이 된 분들을 잘 세워 놓으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 그리고 당국의 예산은 출산지원금으로 쓰면 교회도 부모도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_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CBS는 한국 교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출산돌봄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사실 젊은 세대에겐 무한경쟁, 경제적 두려움 등 출산은 커녕 결혼마저 꿈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_ 김진오 사장(CBS)

4. 교회가 감당할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돌봄’과 ‘교육’이다. CTS는 2006년 ‘생명희망의네트워크’를 시작으로 2010년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21년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한국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돌봄’입니다. 이것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2021년 돌봄사역에 관한 조사).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78.2%가 집 가까이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에 운영하는 돌봄시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_ 감경철 회장(CTS기독교TV)

5. 송춘장로교회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서부터 35세까지를 한 교구로 묶었다. 비슷한 연령대 간의 소통 및 출산과 자녀 양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한 몸 교구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한 몸 교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도 ‘교회 모임에 아이를 데려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교구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_ 박경배 목사(송춘장로교회)

6. 결혼준비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출산이 갖는 진정한 의미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녀를 낳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부부란 이런 느낌이구나’를 경험합니다. 불신자 참여자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_ 이의수 목사(사랑의교회 패밀리센터)

7.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2017년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57,771명이다. 109만 5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 해 임신 된 아이들의 24.6% 즉, 1/4 정도만의 신생아만 세상에 빛을 본 것이다. 나머지 3/4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낙태만 줄여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있는 상황이다.

_ 이재욱 목사(카도쉬아카데미)



8. ‘3040 좌담회’를 통해 젊은 부부 가정들의 자녀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이며,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피아노와 같이 악기들을 배우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좋은 돌봄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의 높은 장벽을 낮추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_ 김수영

“내가 낳은 자녀를 직접 케어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출산 숫자만 늘리기 위해 수조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내 자녀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 백승민 ☎

미션
MISSION

- 통계로 보는 미션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특집
PERSPECTIVE

개척
CHURCH PLANTING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문화
CULTURE

설교
SERMON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조사

자료 제공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의 결혼 의향 높다!

가정의 시발점인 결혼과 출산에 관련한 지표가 해마다 낮아지거나 줄어들고 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합계출산율)는 2022년 0.78명이며*,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2020년 기준). 한국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보고 있으니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층은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2030세대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0%에 불과했고,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서 29%만이 동의해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희망적인 결과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청소년기에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일수록 결혼 의향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넘버즈 <190호>에서는 결혼과 출산/자녀와 관련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하였다.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과 고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교회와 사회가 결혼과 출산에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통계청(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통계)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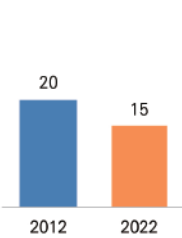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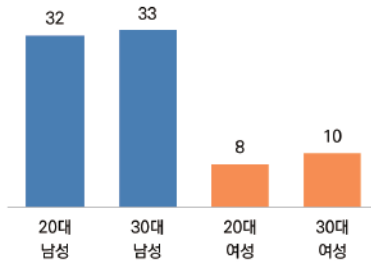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2030여성 10%에도 못 미쳐

- 우리 국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2022년 기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은 15%로 10년 전 대비 5%p 감소했다.
- 성·연령별로 보면 2030남성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2030여성은 8~10%에 불과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 비율, %)



[그림]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 비율, 2022,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2년/202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12.20./2022.11.16.

**자료 출처 : 시사네(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형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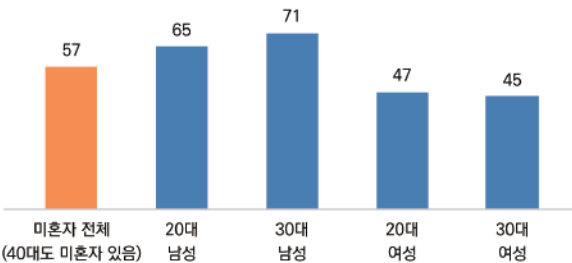
***5점 척도임

2

[미혼자의 결혼 인식] 2030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률, 50%에도 못 미쳐

-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을 살펴봤다. 미혼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57%,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였다.
- 성·연령별로 비교 시 격차를 보였는데 ‘결혼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20대, 30대 남성의 비율은 각각 65%, 71%인데 반해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결혼 의향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40%대에 그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결혼 의향률 (미혼자, ‘의향 있음’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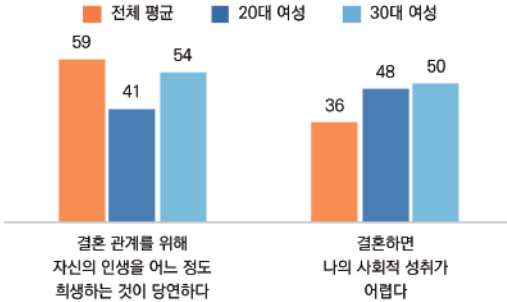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네(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형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2030 여성 절반,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

- 만 18~49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을 ‘희생’과 ‘사회적 성취’의 관점을 통해 살펴봤다. 먼저 ‘결혼 관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59%는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20대 여성 동의율은 41%로 전체 평균 대비 18%p나 떨어졌다.
-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대, 30대가 각각 48%, 50%의 동의율을 보여 2030 여성의 절반 정도는 사회적 성취에 있어 결혼을 방해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결혼에 따른 사회적 성취 또는 희생 관련 의식(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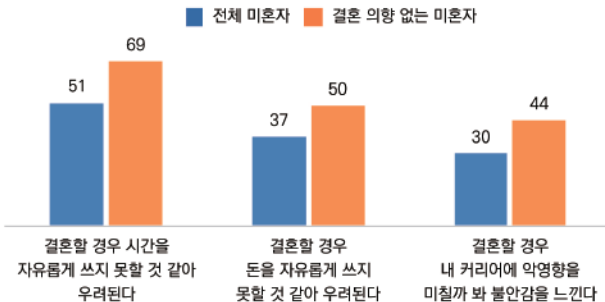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세인(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임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례·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 10명 중 7명, ‘결혼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못 쓸 것 같아 걱정’!

- 결혼에 대한 불안감을 확인하고자 ‘시간’, ‘돈’, ‘커리어’ 세 가지를 전체 미혼자 전체와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커리어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 모두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자가 전체 미혼자 보다 1.3~1.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사적으로 향유하는 시간과 물질을 결혼의 유익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결혼에 대한 불안감(미혼자, %)



*자료 출처 : 시세인(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임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례·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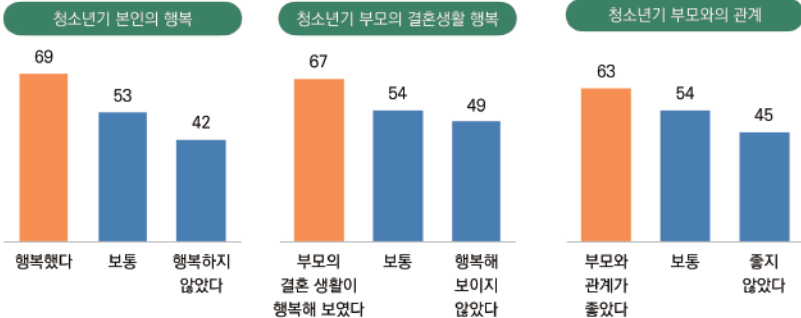
3

[결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수록 자녀 결혼 의향 높다!

- ▶ 청소년기 경험과 결혼 의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8~49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기에 본인이 행복했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기에 부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부부의 행복한 가정 생활이 결혼·출산율 등 전체적인 가정/사회 지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청소년기 경험에 따른 결혼 의향률 (미혼자, '의향 있음'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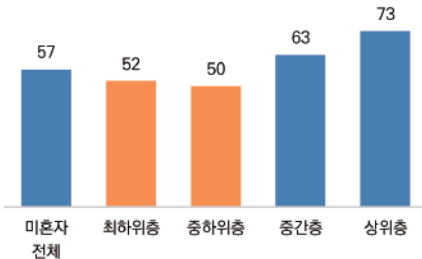


*자료 출처: 시사네(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형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 ▶ 결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의식을 살펴봤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응답자 중 본인이 '상위층'이라 인식하는 경우 73%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아져 '최하위층'(52%), '중하위층'(50%)의 경우 2명 중 1명 정도만이 결혼 의향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른 결혼 의향률 (미혼자, '의향 있음'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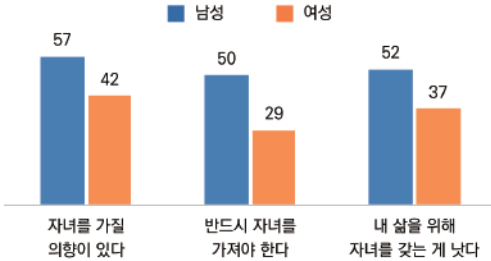
*자료 출처: 시사네(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형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4

[출산·자녀에 대한 의식] 2030여성 10명 중 7명, '반드시 자녀를 안 가져도 된다!'

- 2030세대를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2030세대 남녀의 의식 차가 극명했는데 '자녀를 가질 의향'에 있어서 남성은 57%, 여성은 4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 50%, 여성 29%가 동의해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가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30세대 출산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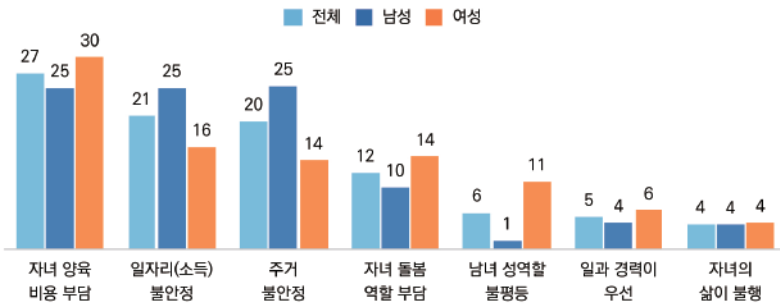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예 안 낳는 게 부상에" 요즘은 남편들이 '당크... 기사 참조, 2022.03.09.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 조사, 전국 20~39세 남녀 8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7~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782#home>)

◎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출산율 감소 원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 1위

- 2030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출산율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2030세대)의 27%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일자리(소득) 불안정' 21%, '주거 불안정' 20%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일자리(소득) 불안정', '주거 불안정' 등 경제적인 요인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자녀 돌봄 역할 부담', '남녀 성 역할 불평등' 등 남녀 역할적인 요인을 선택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2030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출산율 감소 원인 (전체 기준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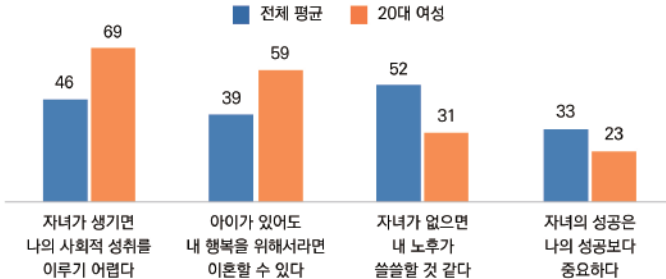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예 없는 월천만원 부부, 예 낳은 월550만원 부부...이게 달랐다 기사 참조, 2022.03.08.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인식 조사, 전국 20~39세 남녀 800명, 온라인 조사, 2023.02.27~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5485#home>)

◎ 한국 20대 여성 10명 중 7명,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동의해

- 개인의 사회적 성취 또는 희생과 관련하여 자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했다. 먼저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와 '아이가 있어도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8-49세)의 동의율보다 20대 여성의 동의율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나, 젊은 여성층 중심으로 자녀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 반면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동의율이 33%로 낮았는데, 20대 여성의 동의율은 23%로 그보다 10%p 더 낮았다

[그림] 자녀-사회적 성취 또는 희생 관련 인식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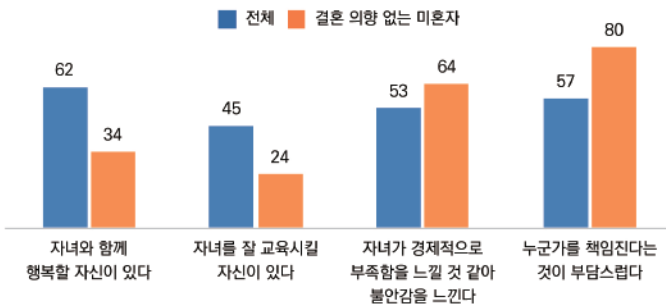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험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 - 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 결혼 의향 없는 미혼 집단일수록 자녀를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 낮다!

-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부담감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녀와 함께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18-49세)의 62%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 반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집단의 경우 이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34%로 나타났다.
-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에 대한 불안감,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결혼 의향 없는 미혼 집단(각각 64%, 80%)이 전체 응답자보다 높았다. 자신감은 결여되어 있고, 불안감과 부담감은 높으니 결혼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다.

[그림] 자녀 양육 책임지는 삶에 대한 자신감/부담감 (%)



*자료 출처 : 시사IN(808호), "우리 결혼 안 합니다" 생애 모험을 거부하는 사람들 [2023 연애 - 결혼 리포트], 2023.03.14.(만 18-4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미혼 579명, 결혼유경험자 421명), 웹조사, 2023.02.10.-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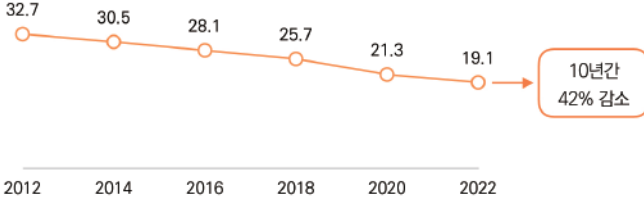
5

[혼인/출산 통계지표]

2022년 우리나라 혼인, 10년 동안 42% 감소!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12년 32.7만 건에서 2022년 19.1만 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42%가 줄었고,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혼인 건수 추이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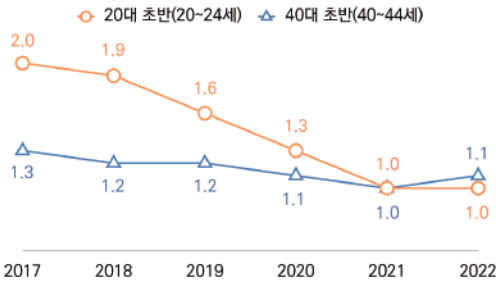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혼인·이혼 통계, 2023.03.15

◎ '40대 초반' vs '20대 초반' 혼인 건수 2021년부터 역전!

- 지나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1만 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 혼인 건수인 1.0만 건 대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보다 높았고, 그 격차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여성 혼인 건수 추이 (20대 초반 vs 40대 초반,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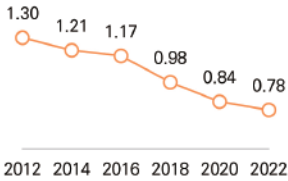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혼인부부의 연령별 혼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2&conn_path=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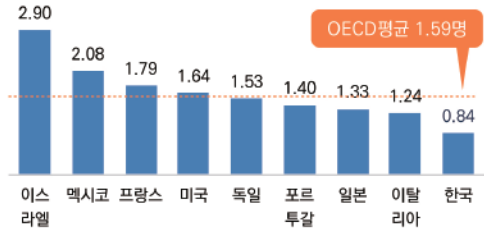
◎ 한국의 출산율, 0.78명으로 OECD 평균 절반 수준!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명 미만에 접어들었는데,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평균 출산율은 1.59명인데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골짜기를 기록하였다.
- 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한데, 세계 최장수국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3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림] 합계출산율 추이 (명)



[그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2020년 38개국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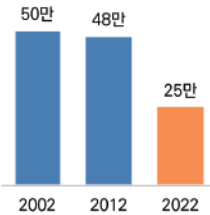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 사망통계(잠정), 2023.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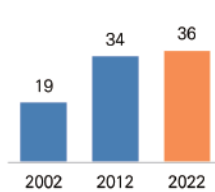
◎ 한국 출생아 수, 20년 전 대비 절반으로 뚝

-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22년 36%로 20년 전 대비 2배가량 늘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첫째아 출산 연령 또한 평균 33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9세보다 4세 정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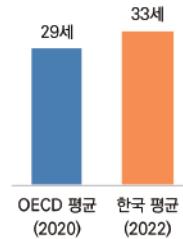
[그림] 출생아 수 추이 (명)



[그림]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 추이 (%)



[그림] 첫째아 출산 연령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 사망통계(잠정), 2023.02.22.

시사점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결혼과 출산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¹⁾ 결혼과 출산이 우리 공동체의 지속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학자가 '한국인의 멸종'을 거론할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²⁾ 인구 감소의 문제는 교회라고 해서 피해 갈 수 없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인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전도 부재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고, 저출산 이전에 '결혼 기피 현상'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넵버즈」 155호에서 분석한 혼인 건수 감소 이유에서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55%)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넵버즈」 190호에서도 사회경제적 주관적 인식이 최하위층인 미혼자들의 결혼 의향률이 52%였는데, 이는 상위층의 73%보다 21%p 더 낮은 수치이다.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2016~2021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약 50% 상승했지만,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약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근로소득자가 돈을 모아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 특히 저소득 가정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이번 호의 데이터를 보면 2030세대의 출산율 감소의 제1원인을 '자녀 양육 비용 부담'(27%)이라고 꼽았다. 2위는 '일자리(소득) 불안정'(21%), 3위는 '주거 불안정'(20%)으로 출산율 감소의 1위~3위 요인 모두 경제적 요인이었다. 보육 및 교육 비용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에 약 26조로, 전년도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하였다.³⁾ 학생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을 주목하고자 한다.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청소년기의 가정 경험 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행복

했다'는 응답자의 결혼 의향률이 69%인데 비해 '행복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로 무려 27%p나 더 낮았다. 청소년기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았다'는 응답자는 67%,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9%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응답자의 결혼 의향률은 63%, '좋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5%였다. 종합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결혼 의향이 더 높았다.

아이는 태어나 자라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데 사회화의 첫 번째 통로가 가정이다. 부모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알게 되고 배우자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 여자는 아버지 닮은 남자와, 남자는 어머니 닮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사회화 과정에서 새겨진 배우자 모델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자신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는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가정을 갖는 것을 꺼리게 된다.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데에는 분명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 하지만 가정에 대한 인식이 무시 못 할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이 행복한 곳'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교회가 화목한 가정을 강조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남녀의 가정 역할이 동등한 가정, 아내와 어머니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부모가 자녀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가정이 될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동시에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넵버즈 25호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136호 '출산 관련 종교인 인식', 155호 '한국인의 결혼관 그리고 자녀관' 등
2) 폴 몰런드, 영국 런던대학교, 인구학 권위자, 저서 [인구의 힘]
3) 한국대학신문,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인 26조 원... 전년 대비 10.8% 증가'(2023. 3. 7) (<https://news.um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395>)

개척 CHURCH PLANTING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
특집
PERSPECTIVE

|
미션
MISSION

|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
문화
CULTURE

|
설교
SERMON

제주 버스킹 예배자

인터뷰이 허진욱 목사(렛츠고채플교회)
취재 이지현 기자

❶ 렛츠고채플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9년 1월 8일에 제주도 조천읍 신촌리에서 개척한 허진욱 목사입니다. 개척하여 교회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교회 이름으로 외쳐야겠다고 생각해서 ‘렛츠고채플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시골이고, 대부분 노인이지만 모두 영



어 ‘렛츠 고!’는 아실테니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자!”라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멘토로, 천국을 사모하셨던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목사님의 유언인 ‘렛츠 고’ 메시지를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❷ 특별히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을 찾았

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의 복음화율은 9.9%였어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제주도로

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왔냐면 사실 선교지에 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고, 선교지에 나갈 기회를 얻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자랐고, 생활도 있고 해서 선교지에 간다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고 결심하고,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에서 5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안수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주신 비전에 따라 목회를 해보고 싶었고, 더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부교역자로 사역한다고 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목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더 많이 부딪혀 보고 싶은 마음에 개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뜻에 아내가 동의해 주어 빨리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5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개척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이왕 할 거면 빨리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때마침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8년 1월에 이곳 신촌리에 이사 오고, 아이들은 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 아동부가 있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제주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개척 준비

1년 동안 제주를 다니며 개척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부담만큼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 제주도에 올 땐, 도심이 아닌 산속에 개척하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 쉽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SNS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하여 산에 개척하자'는 생각으로 많이 알아봤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산에는 건물이 없어서 땅을 임대하고 건물을 올려야 했는데, 그러자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 생각을 바꾸고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사는 동네까지 오게 됐어요. 결국, 우리 집 바로 옆에 신축 중인 건물을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의 공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코앞에 좋은 장소를 두고, 다른 데를 막 찾아다니다가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눈에 띄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개척 그리고 코로나

제주도에는 연고도 없었고, 개척 멤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라 개척 후 4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의 공방에 보자기나 매듭, 라탄, 마크라메 등 수공예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도에 살러 온 자매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 두 가정과 청년 자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개척 후 1년쯤 지났을 때, 코로나19가 기승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당장 제주 삶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코로나의 여파로 본가가 있는 육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청년 자매도 직장과 가까운 중문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 중문 쪽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고 코로나 기간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가끔 여행자들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척 전에 이런 상황도 꿈꿨던 그림이기는 한데 관광객이 적은 지역이라 그마저도 많지는 않아 지금은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가끔은 관광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❶ 제주도는 어떤 곳인지 알려주세요.

날을 정하여 곳을 하는 제주도

제주도민들은 보통 불교 신자라 말하지만, 무속 신앙이 아주 강합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다 바다라서 특징적으로 골목마다 신당과 작은 절도 많고, 곳곳의 신당에서 굿을 하죠. 무속 신앙과 불교는 다른데 이분들은 이것을 혼용해서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4·3사건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주동 세력들이 기독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불리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4·3 사건이 현재 복음을 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에 처음 제주도로 단기선교를 왔을 때, 선교를 준비하며 영적 도해(Spiritual Mapping)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제주도는 뱀신을 믿고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굿을 합니다. 또 굿하는 날이 연간 행사로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1월, 3월 등에 여러 번 있어 그것을 '마을 포제'라고 하는데, 마을별로 현수막을 걸



어가면서 축제처럼 진행합니다. 제주도에선 교회 행사 현수막을 보긴 쉽지 않은데, 포제 현수막은 쉽게 볼 수 있어요. 볼 때마다 ‘이렇게 헛된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주도 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니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분들은 당연히 일하러 가세요. 이분들은 그 시간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주변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을 바꿔 보기도 했지만, 뿌리 깊은 의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11시 예배로 정착한 상태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저의 마음과 에너지를 그것에만 몰두하여 모두 쏟지는 않아야 저도 길게 사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도인 아내와 두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잘 전하려 합니다. 지금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Q 목사님께서 버스킹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와 열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긴어게인’처럼 전도하다

2017년도쯤 개척을 준비할 때 TV에서 방송된 버스킹 프로그램을 보면서 교회 고등부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교회 전도부에서 친구들과 영등포역에 나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면서 노숙자 아저씨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었습니다. <비긴어게인>이라는 버스킹 프로그램을 보며 ‘어? 저거 내가 했던 건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버스킹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2019년 함덕에서 시작해서 동문시장 앞 광장에서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기타 들고 찬양하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때론 저희 아이들이 함께 나가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미안해지는 분위기가 되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잠시 쉬다가 날씨가 풀리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 앞에 배너를 세워둡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찬양을 한 소절이라도 들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합니다. 간혹 관광객들이 짝 둘러설 때도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이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중국인들이 저를 둘러설 때도 있어요. 중국으로 단기 선교

를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배웠던 악보를 꺼내어 중국어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부릅니다. 중국어로 몇 곡 찬양하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말을 알아듣는 줄 알고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하는데,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God bless you”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버스킹 사역으로 크게 눈에 띄는 열매를 얻기는 어렵지만, 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❶ 사모님의 공방 사역도 활발한 것 같은데 목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보자기 공예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보자기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공방을 열고, 학생들에게 보자기 공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주 수공예 학원을 따로 운영하며, 거기에서 보자기 포장이나 매듭, 염색, 라탄, 마크라메 같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극동방송 사모님들이 진행하는 증보기도 프로그램에서 월요일마다 라디오 진행도 했습니다.

아내의 공방에 오셨던 분들이 성도가 되기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었거든요. 점차 아이들이 자라니 목회자 사례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내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아내도 이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니 감사하더라고요.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 저도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 덕에 제가 집안일을 더 해야 하지만, 아내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화곡순복음교회 김병철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주변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사실 교회 성도가 없고, 자기 시간이 많으면 목사는 다들 너무 무기력하게 있더라. 우리가 목회하며 수많은 자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많은데 그때마다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하는 것도 잠깐이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책을 좋아해서 책도 많이 보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또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뭔가를 배워보자’ 하고 알아보니 국가 지원 교육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기’였는데 등록하고, 배우면서 자격증까지 따게 되니 학원에서 취업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기 건설업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를 넣는 일을 합니다. 전기를 넣기 위해서 많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일을 한 지가 2년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서 가계 부담이 많이 해결되었고, 저도 제 시간을 잘 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 쉬고, 주일에는 쉬지 않거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주말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계약서에 명시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싫으면 고용주는 채용을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가정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❶ 개척 준비하는 목회자분들께 주의할 사항 및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선순위에 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을 앞서지 말자”로 늘 성령을 따라가는 사역과 그러한 예배자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❶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를 복음으로 살아내자!

특별한 비전이나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제일 큰 관심은 현재예요. 지금,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 삶에서 특별히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집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집, 애들과 나가서 노는 것, 사역 준비하는 것.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목회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하니 누군가가 컨트롤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 이제 스스로 삶을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목사, 사역자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우리 가족 앞에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애써야 했습니다.

또 개척하니 수많은 이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교회가 나오니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등 자기랑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등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움해서 ‘뭐 이런 전화가 오나?’ 싶어서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 ‘이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예수님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본래 자기가 전화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예수님 이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더 전하며 사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목표이니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청년들한테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너희들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돼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예수님 이름 한 번 꺼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술자리나 세상적으로 어울려 노는 것은 거부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니까’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현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혹은 직장 상사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나가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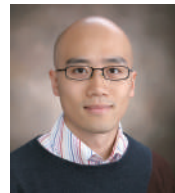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되게 편하게 대합니다. 일상적으로 거친 말들 속에서 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면 괜찮지만, 처음부터 말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랑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23살의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항상 제사를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봤다면 “형,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방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실제 과학적으로도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왜 배를 만들었고, 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들려주었습니다.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만났었던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한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만 했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

허진욱 목사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허진욱牧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으며, 현재 렛츠고채플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 스페셜 현장
- 교회고민상담
- 신학연장교육(TEE)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
특집
PERSPECTIVE

|
미션
MISSION

|
개척
CHURCH PLANTING

|
문화
CULTURE

|
설교
SERMON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 현장을 가다

글 방현미 편집장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5월 18일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5월 17-30일까지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외치다-도전과 영광의 65년'을 주제로 기도회와 학술제, 찬양제 등 은혜와 감동 넘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편집부>

1903년 하디 선교사에 의해 일어난 원산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1958년 5월 18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60-80년대 한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 2020-2022년,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 교회도 이 시기에 영적 침체기를 보냈다. 2023년 현재, 다시 영적으로 재부흥할 시점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하디 선교사의 원산부흥운동 120주년과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교회에 영적 재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5월 17-21일까지 5일 동안 대표 기념행사로 열린 ‘하디 120주년 및 교회 창립 65주년 오순절 성령강림대기도회’는 ‘다시 성경으로, 다시 부흥으로(Re-Bible, Revival)’를 주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다.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예배로 드린 첫날(17일) 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사도행전 1장 4-5절, 8절을 본문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1964년 4월, 처음 순복음교회에 참석했던 때를 간증하면서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부요와 축복이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역사는 모두 성령충만의 역사였다”고 강조하면서 “성령충만하여 권능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축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서승환 연세대 총장,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아카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등 국내 각계 인사들과 예언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 목사, 세계

오순절협의회장 윌리엄 윌슨,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교회 콩히 목사 등 해외 인사들, 그리고 김주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인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정동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등 각 교단 총회장들이 축하했다.

17일에 이어 18-21일까지 진행된 기도회에서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는 회개, 성령충만, 감사, 축복을 주제로 각각 설교하면서 하디 선교사의 1903년 원산부흥운동을 되새기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대부흥을 일으키자고 선포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배우 신현준, 미라클 모닝 김유진 변호사, 배우 김정화와 유은성 목사 부부, 위라클 팩토리 박위 대표가 간증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큰 축제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사렛성결회, 구세군대한본영 등 400만 성도의 웨슬리언 교단들이 동참했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17일을 제외하고 18-21일까지 기도가 저녁에 열렸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1만 2천 석을 꽉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하여 보조 의자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매 기도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청년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참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17-18일 양일간 웨슬리언 국제대회(대회장 양기성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렸다.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구세군대한본영 국내 6개 교단 관계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SMU 석좌교수 테드 캠벨 박사와 감신대 석좌교수인 김진두 박사의 강의에 이어 감신대, 서울신대, 성결대, 나사렛대, 구세군대학원대 5개 대학 총장의 콘퍼런스와 워크숍 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제1회 찰스 웨슬리 음악회가 함께 개최되어 바리톤 김민성, 테너 존스 등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가 넘쳤다.

23일에는 창립 65주년 기념 학술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개최됐다. 한세대학교와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이하 국신원)이 공동 주최하고 ‘부흥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제에는 여의

도순복음교회 교역자와 한세대 교수 및 학생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김형건 박사(국신원 부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첫 번째 시간에 ‘부흥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헬렌 교수(미국 에모리대)는, 1970년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빌리그래함전도대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여성들이 한국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목하여 부흥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두 번째로 ‘부흥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경배 명예교수(연세대)는 조용기 목사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 “1960년대 6·25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한국은 엄청난 피해에 시달렸다. 이때 성령의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한 것이 조용기 목사였다”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런 시대적 물결을 세계 도처에 파급시켜 현대교회의 생명력을 용솟음치게 하여 세계 역사에 성령의 제3전기를 역동하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발제에는 김호성 박사(여의도순복음교회 부목사겸 국신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카리스마와 제도와 갱신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로 발표에 나선 장 다니엘 플뤼스(전 유럽오순절학회 회장)는 “교회 역사에서 복음의 진리가 예언자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종종 새로운 자극은 특이한 방식으로만 교회 생활에 침투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자극은 쇄신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세대에도 성령이 주시는 쇄신과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배덕만 교수(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 부흥에 대해 “수많은 난관에 휩싸여 있고, 교회의 영적 동력마저 지극히 약화된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절체절명의 위기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최재웅 연구원(한교총 문화유산연구소), 한상인 목사(광주순복음교회 담임), 전용란 총장(건신대학교), 김영택 박사(성결대학교 교수)가 논찬했고, 통역은 김명희 박사(여의도순복음교회 신학연구소장)와 성광엽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CGI)가 했다.

발제가 모두 끝나고 이어진 폐회예배에는 김천수 장로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기도와 이영훈 목사의 설교 및 총평이 있었다.



총평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령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 17-18절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말씀으로 이번 학술제가 마음에 숨겨진 부흥의 도화선이 되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원한다”라면서 “기독교 신앙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절대긍정의 희망 신앙이다. 위대한 희망의 역사가 오늘 학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행사로 30일에는 뮤지컬 ‘알렐루야’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특설무대에서 공연되었다. 1, 2부로 나뉜 공연은 1부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돌로스 중창단과 유치부 찬양반, 마포대교구 3450 워십팀이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찬양을 했다.

2부에서는 국립합창단 단장이자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인 윤의중 장로가 지휘를, 오페라 연출가 홍석임 감독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 공연이 이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 및 음악가들과 여러 중창단이 참여한 공연은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65주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로써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 기념행사는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마무리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회의 부흥을 다시금 사모하는 성도들의 바람이, ‘절대긍정’과 ‘절대감사’의 삶을 통해 힘찬 믿음의 도약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



|| 교회고민상담 CHURCH DOCTOR

Q1 온라인 예배

Q2 말로 인한 상처

인터뷰이 권오진 목사(대구 정동교회)
취재 편집부

❶ 앞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 교인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신학적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이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는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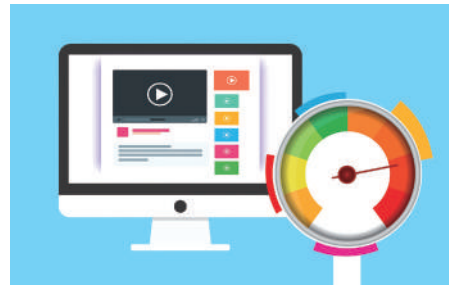


문제에서는 성도들보다 한국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신학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성도들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그간 가정에서 예배했던 것만큼이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獻身)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마음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와는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점은 인지시켜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심되어 판단하고 드렸던 온라인 예배를,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의 현장 예배로 전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❶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야고보서 3장 6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를 쉽게 받는다면, 우선은 인간의 말이 가진 보편적 특징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 말을 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삼하 16:7b)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은 시므이를 죽일 것을 요청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서, 그 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대처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가 될 때,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억울한 말이라면,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다스리실 것임을 믿는다면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말의 훈련을 통해 남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복된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

히브리어의 창으로 성경 다시 보기 (3)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인가?¹⁾

글 권성달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성경과이스라엘연구소 소장)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 12:13)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 20:2)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의 관계를 “누이”라고 표현한 곳은 창세기 12장 13절과 20장 2절 두 군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아브라함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아내’임을 숨기기 위한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역에서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갔을 때의 기록이며,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약 65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역의 서쪽 경계에 있는 그

1) 본 글은 성경과이스라엘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인 '성경과이스라엘'에 게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랄 땅에 있을 때의 기록으로 당시 사라의 나이는 약 89세로 추정됩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 89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로 인해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여 ‘아내’임을 숨긴 것을 보면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음에 틀림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심히 아름답다”(창12:14)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기 전에 과연 오빠와 누이의 관계였을까요?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 흔히 손아래인 여자를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누이’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

2.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그 둘 중 하나에 해당할까요?

창세기 20장 12절에서는 창세기 12장 13절과 20장 2절과는 달리 단순히 “누이”로 표현하지 않고 “이복 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창 20:12)

다른 한글 번역본 중 ‘우리말 성경’은 위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구절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만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두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의 아호트(אֵיחָת)이고 제 아버지의 바트(בַּת)입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바트(בַּת)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아호트(אֵיחָת)’와 ‘바트(בַּת)’라는 단어입니다. ‘아호트’는 한글 성경에서 주로 ‘누이’로 번역되고, ‘바트’는 대개 ‘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호트’는 ‘누이’, ‘자매’ 외에 ‘여자 친척’, ‘같은 족속이나 백성’, ‘동맹한 나라’ 등으로도 사용되며, 심지어 ‘신부’와 평행어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아 4:9). 또한 ‘바트’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딸’이라는 뜻 외에 ‘손녀’, ‘며느리’, ‘여자 후손’, ‘젊은 여자’, ‘성읍’, ‘나라’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0장 12절의 ‘아호트’와 ‘바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1장 26-32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창 11:26). 이 말은 데라가 70세에 장남을 낳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누가 장남일까요?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행 7:4), 데라는 205세에 죽었으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으므로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장 큰 형과는 나이 차이가 60살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데라의 장남은 하란이었으며, 아브라함은 막내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란은 1남(롯) 2녀(밀가와 이스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만일 하란이 아들 롯을 60세 전에 낳았다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작은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

와 결혼을 했습니다. 나홀과 밀가의 관계는 조카와 작은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 문헌 중 요세푸스의 고대사와 아랍어 번역본인 타르굼 요나탄에 서는 하란의 딸인 ‘이스가’를 ‘사라’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성경의 여러 기록들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인 야곱의 아내들을 살펴볼 때 이스가와 사라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은 매우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나홀과 밀가의 관계처럼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향렬이 하나 높은 관계이므로 ‘아호트’를 ‘누이’나 ‘이복 누이’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호트’라는 단어를 ‘누이’로 잘못 번역한 분명한 예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창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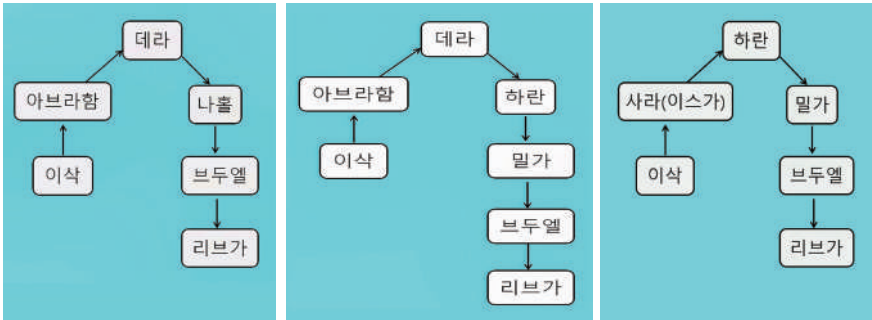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창 26장).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유대인 문헌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데라의 아들인 '나홀' 쪽을 따라 계산해 본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5촌 관계입니다.

둘째,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의 딸인 '밀가' 쪽을 따라 계산해 본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6촌 관계입니다.

셋째, 이스가와 사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이삭의 어머니 쪽을 따라 계산해 보더라도 그 둘은 5촌 관계입니다.



[1]

[2]

[3]

위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호트'는 '누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2절의 '바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으므로 데라가 하란의 딸들을 본인의 딸처럼 키웠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관계는 손녀들입니다. 데라의 부인이자 아브라함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사라는 손녀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데라의 아들인 하

란의 부인이자 데라의 며느리의 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데라 쪽으로는 혈통이 연결되지만 할머니 쪽으로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바트’는 ‘손녀’와 ‘딸’로 각각 옮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의 세 구절을 원문을 중심으로 직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발 당신이 내 **조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가 좋을 것이요.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살 것이요.” (창 12:13)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리켜 ‘그녀는 나의 **조카**’라 말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냈다. 그가 사라를 취했다.” (창 20:2)

“사실 그녀는 제 **조카**이고 제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혈통의 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창 20:12) ☞

권성달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이스라엘 예루살렘대학교에서 석사학위(성서 히브리어학)를 받고,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성서학/히브리어학)를 받았다. 박사과정 중 성서 히브리어 관련 언어인 수메르어,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시리아어, 성서 아람어, 타르굼 아람어, 아랍어, 칠십인역 헬라어 등 다수의 고대 언어를 이수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의 박사논문은 이스라엘에 있는 Youval Tal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와 성경과이스라엘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양과목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다.



문화 CULTURE

- 목회와 인문학
- 문화 Take out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
특집
PERSPECTIVE

|
미션
MISSION

|
개척
CHURCH PLANTING

|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
설교
SERMON

바벨탑은 번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바벨탑과 번역

글 이강선 박사(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기독교인문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구약의 바벨탑

번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구약성서의 창세기 11장 1-9절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흔히 인간의 허황과 욕망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다. 그러나 번역학 학자들의 경우 바벨탑 사건을 번역의 시작과 연관시킨다. 창세기에 적힌 바벨탑 사건은 다음과 같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 11:4-9)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던 요세푸스(Josephus 37-100)는 『유대 고대사』(93-94)¹⁾를 집필하면서 이 짧은 이야기에 서사 구조를 부여하였다. 덕분에 많은 이가 영감을 얻어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한편으로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실제로 존재했



대 피테르 브뤼헬의 바벨탑(1563)

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바벨탑이 유명한 덕분에 서양의 수많은 화가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 네덜란드의 대(大) 피테르 브뤼헬(Pieter Bruegel the Elder) 또한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탑은 구름 위까지 솟아 있다. 탑은 성경 묘사와는 달리 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멀리 들판이 보이며 바다와 맞닿아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탑의 그림자는 수많은 건물 위에 드리워져 있어 그 높이와 크기를 짐작하도록 만든다. 그림의 왼쪽 앞부분에는 언덕이 있고,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등장하는 인물은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왕으로 보인다. 그의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이는 그의 권력을 대표적으로 말해준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도구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수레를 끌고 탑을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저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1) 『유대 고대사』는 1-4권까지 한글로 번역되어 나와 있다.

탑이 바닷가에 위치한다는 것은 건설 물자가 이 도시에서만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거대한 건물이라면 많은 물건이 끊임 없이 공급되어야 하니 바닷가라면 물자 공급이 쉬울 것이다. 그림의 부두에는 많은 배가 정박하거나 항해하고 있고 항구에 부러진 짐들이 보인다.

바벨탑과 번역의 관계

그렇다면 이 바벨탑과 번역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라며 탑을 짓는다. 흠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데 모여 있자는 의미로 달리 읽으면 한마음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한마음은 한 시각을 의미하고 한 문화를 의미하며, 한 언어를 의미한다. 즉, 흠어지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며,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같이 있으려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흠어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마음이 될 수 없어서 흠어졌다는 것이다. 바벨의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여러 목소리가 한 번에 말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소음’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소음은 어떤 목소리도 가린다. 각자가 자기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말이 뒤섞였다는 사실은 곧 번역의 출발점이 된다. 인간은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상거래는 물론, 서로 다른 문물의 교환이 필수인 만큼 번역 또한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러 언어로 인간을 흠어놓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소통을 위한 번역은 바벨탑을 다시 쌓는 행위다. 그렇다면 번역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불충한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도 갈린다. 그중 하나는 번역은 오히려 다양한 언어를 한데 모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강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상의 각 강물은 각각의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강물의 종착지는 바다다. 각 강물이 지닌 다양한 특징들은 바다로 흘러든 다음에 모두 섞여 하나로 용해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시각은 번역을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매개체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대로부터 각 나라 혹은 부족마다 다른 언어를 갖고 있었으므로 바벨탑은 '왜 언어가 다를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번역의 기원 역시 정반대로 해석될 만큼 상징적이다. 달리 말하면 고대로부터 번역이 존재해 왔고, 그만큼 인간 역사에서 번역이 필요했으며, 앞으로도 번역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번역학자들이 번역의 기원을 다른 곳이 아닌 하필이면 성경에서 찾았는지 궁금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다. 종교는 특성상 포교를 필요로 한다. 전파가 종교의 생명인 것이다. 그렇기에 것처럼 많은 사람이 포교를 생명처럼 여긴다. 포교는 타문화, 언어권으로 확장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경전이다. 경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 전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대 및 중세, 그리고 근대 번역의 역사는 거의 종교와 함께 해왔다. 아니 종교가 가는 곳마다 번역이 필요했다. 동양의 번역 역사는 불교와 함께, 서양의 번역 역사는 성경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번역의 역사

동양에서 번역은 기원후 1세기 중국이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번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종교(宗教)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불교 용어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되었을 때 능가경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단타 데사나를 한역한 단어가 바로 ‘종교’이다. 이 종교는 ‘으뜸 종(宗)에 ‘가르칠 교(教)’를 사용하고 있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양에서 종교를 말하는 어휘인 ‘종교(Religion)’는 라틴어 레리지오(Religio)에서 비롯했는데, 이 어휘의 어원은 두 개다. 키케로(Cicero)는 이 어원이 라틴어 리레게(Relego, 숭배하다)에서 왔다고 보았다. 리레게는 Re(다시)가 레고(Lego, 읽다, Read)와 합해진 것으로, ‘다시 읽다’는 의미가 된다. 되풀이 읽으면서 신에 대한 예배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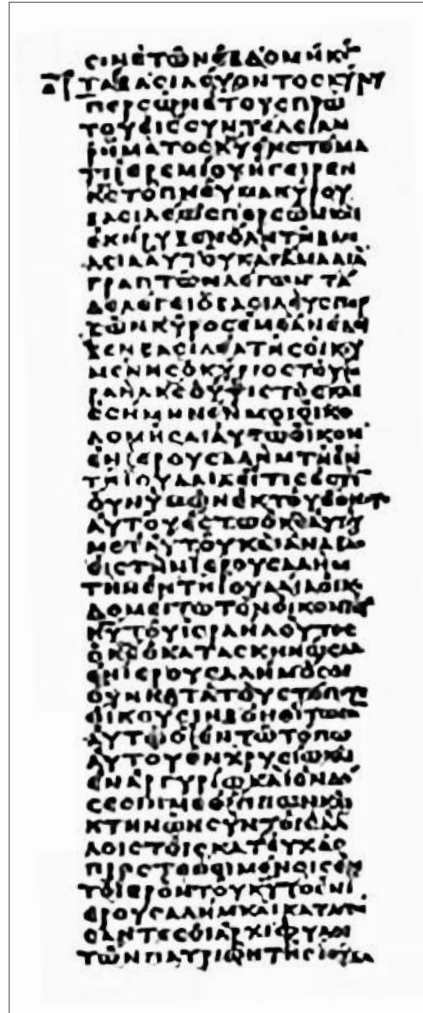
키케로와는 달리 락탄티우스(Lactantius)는 Re(다시)가 리가레(Ligare)와 합해 ‘다시 묶다’가 되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는 이 견해를 따랐다. 즉, 종교는 흩어진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결합하여 하나님께 경외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묶는다’는 이 어원에서 다음을 추론해낼 수 있다.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경외하기 위해서는 포교가 필요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필수였다. 그러므로 타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일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따라서 번역의 역사는 경전의 번

역사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처럼 포교를 위해 번역이 필요했다면 성경은 처음 쓰인 이래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을까? 우선 성경은 무려 1,500여 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또한 성경의 저자는 1-2명이 아니라 40여 명에 이른다. 그러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된 언어는 3가지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고, 아주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번역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히브리어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



셈투아진트의 조각

리아에 모여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역으로 기원전 2-3세기에 나왔다.

유대의 12지파가 각 6명을 보내 70(72)인이 70(72)일만에 번역해냈다고 해서 '70'을 의미하는 셉투아진트(Septuagint)로 불리는 이 번역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따른다. 각자가 독방에 들어가 번역했지만, 후에 결과를 보니 번역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역은 낱말 하나, 어구 하나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했음을 의미하는 축자역(흔히 직역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 직역은 중역이 아니라는 의미다)으로도 유명하다.

최초의 70인역 이후 성경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을까? 현재 성경은 전 세계의 6,909개의 언어 가운데 2,4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성경 번역에 힘을 쏟고 있는 기관으로 돋보이는 곳은 단연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ycliffe Bible Translators)다. 이 선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세계 성경 번역회'로 영국의 신학자이자 종교 개혁가인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0)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딴 것은 그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내세운 구호 중 하나에서 기인한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어 사제들을 비롯한 극히 소수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위클리프는 새 벽별답게 성경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했다.

이 기관은 1942년 이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했다. 현



재까지 6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위클리프 선교사들은 93개 나라에서 2,000여 개의 소수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바벨탑이 언어를 갈라 민족을 흩어놓았다면 번역가들은 번역을 통해 하나의 바다(구원)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ㄸ

이강선 박사

성균관대학교 영문학 박사, 번역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강선 박사는 호남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번역가,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지에서 영문학과 번역학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공저 『융복합시대의 인문학적 리터러시 이해』, 『초연결의 인문학적 쟁점과 치유의 모색』, 에세이 『몸이 아프다고 삶도 아픈 건 아니야』, 번역서 『문화란 무엇인가』,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등 9권의 영한번역서와 1권의 불한번역서가 있으며, 『Taekkyeon』, 『Arirang』, 『Yeondeunghoe』 한영번역서 3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민자의 나라가 될 것인가?

글 강진구 교수(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영화평론가)

‘캄보디아댁’은 당구 영웅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32회 2023 동남아시아 게임(32nd SEA GAMES, CAMBODIA 2023)’. 낯설기만 한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의 관심을 모은 경기는 스롱 피아비(Sruong Pheavy)가 출전한 여자 3쿠션 결승전이었다. 한국으로 시집와서 프로당구선수로 활동 중인 스롱 피아비는 ‘캄보디아 댁’이란 별명으로 더욱 알려져 있다. 스롱 피아비는 베트남 선수 응우옌호앙옌니와의 34이닝 접전 끝에 25:20으로 승리했다. 조국 캄보디아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순간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스롱 피아비의 인기는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전성기를 누릴 때 못지않다. 스포츠 스타가 워낙 적은 캄보디아로서는 당구로 아시아를 평정한 자국 출신의 선수가 자랑스럽기만 하다. 훈센 총리로부터 국민급 대접을 받기도 했으니 말이다.





한국에서의 인기는 2017년으로 올라간다. 그 해 1월 정식 선수로 등록된 이후 국내 대회만 3번 우승을 해서 국내 1위에 등극하며 당구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2018년에는 세계 랭킹 3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0년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20살 연상의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으로서는 꿈도 꺾보지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다.

너무도 특이하면서도 인생의 발전을 이루는 이주민 여성의 삶은 K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피아비의 꿈’이란 제목으로 방영된 <인간극장>의 시청률은 무려 10.6% 아침 프로그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피아비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향은 매우 컸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피아비가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총각에게 시집온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아비가 보여주는 자신을 계발하고 성장시키며 모국의 자랑이 되는 삶은 바로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피아비와 같은 이주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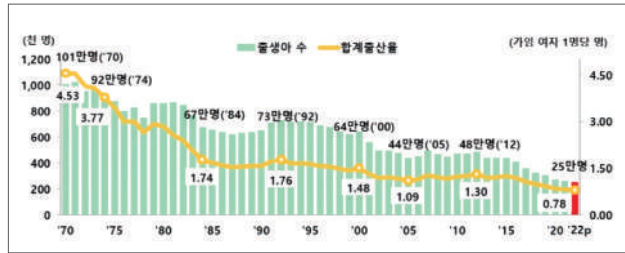
[출처] KBS 자료

인구감소의 사회를 막기 위한 외국인 이주 정책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들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022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 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말 그대로 백세시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미래에 노인을 부양할 새로운 세대는 더디게 탄생하는 바람에 사회인구의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선 것이다.

1992년 당시 모든 한국인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이의 나이인 중위 연령은 27.9세에



[출처] 통계청 자료

불과했다. 그 해에 한국에는 73만 678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2022년 중위연령은 45세로 높아졌다. 출생아 수는 불과 24만 9천 31명으로 3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는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노동력을 뜻하며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생산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무디스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 무려 24%나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인구가 줄고, 젊은이는 더 많이 감소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역시 심각할 정도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이나 제조업 등 생산 현장에서 이미 외국인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은 인구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30년은 앞서간 나라다. 초고령사회도 일찍 찾아왔고,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돌볼 자국민이 없어서 외국의 인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짙짙 언 발에 오줌 누듯,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중심으로만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시대가 도래하자 일본 정부는 결단을 내렸다. 일본은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음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말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도농 복합도시인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여 년간 이주외국인에 힘입어 인구 40만 선을 유지했다. 2010년 말 40만 53명이던 주민등록 인구수는 2022년 말에는 40만 654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기간 광산구의 등록 외국인인수는 6,968명에서 22,859명으로 3.4배 증가했다. 즉, 외국인이 그동안 줄어든 내국민의 자리를 채웠던 것이다.

광산구청은 올해 초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총 65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정착을 돕기로 했다. 외국인 이주자들도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산과 소비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노동력이 없다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노인 의존도가 높은 농사는 아예 지을 생각조차 못 하는 현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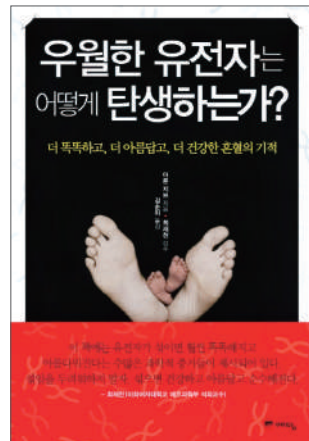
[출처] 광산구청 자료

다문화가정은 미래발전의 원동력

외국인 이주자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순혈주의적인 의식이다. 흔히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래에도 한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편견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한민족 개념 안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건, 필리핀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국적은 물론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피부색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한민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물학자인 아론 지브(Alon Ziv)는 그의 책 『우월한 유전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에서 혼혈이 순혈보다 강하고 아름답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고 있다. 그는 먼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보균자 가운데서 혼혈인 10명 중 2명만이 6년 안에 발병한 반면, 순혈인은 같은 기간에 10명 중 7명이 에이즈 증상을 일으킨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1986년 하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능검사에서도 유럽인 조상을 둔 주민, 일본인 조상을 둔 주민, 유럽인과 일본인의 피가 섞인 주민 가운데 세 번째 집단 즉, 혼혈집단이 가장 인지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혼혈이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면역체계 정보의 다양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면역체계의 정보가 다양하다는 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지능이나 매력적인 몸매를 갖게 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스티브 잡스나 벅락 오바마, 타이거 우즈는 모두 혼혈인들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으로 정평이 난 한국인의 역량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앞서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을 통한 혼혈인의 우리 사회 유입은 한국의 미래에는 축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민자 사회를 준비하는 교회

한국에도 이민청이 설립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을 수용하게 된다면 교회의 선교 정책이나 사역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역과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매우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지역을 떠나서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영화 <완득이>는 그때를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영화의 재미는 완득이와 동주 선생 사이에서 전개되지만, 감동은 완득이와 필리핀 어머니의 만남과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다. 영화의 감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또한 한국인으로서 다르지 않음을 영화는 보여주었다.

완득이와 주변 사람들은 완득이의 필리핀 어머니가 나타나기 전까지 완득이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완득이는 학교에서 곤잘 말썽을 피우기는 해도 다른 급우들과 차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피부 색깔이나 얼굴 모양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했다면 의식과 행동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동주 선생은 완득이를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동주 선생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완득이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완득이에게 필리핀 어머니가 있음을 알려준 인물이다. 그것은 외국인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머니의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사업가 아버지를 고발할 만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 공의로운 정신은 관객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객석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셋째, 완득이의 필리핀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와 똑같다는 점을 영화는 부각시킨다.

5일 장을 돌아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아버지 때문에 늘 혼자 밥을 해결

해야 하는 아들 완득이가 어머니로서는 안쓰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집에 놓고 간다. 식당일을 하며 살아갈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 때문에 남편과 다시 합치는 일 또한 한국적 정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특히 완득이 아버지는 완득이 어머니에 대해서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말을 통해 이주민 여성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었다. 실제로 완득이 어머니 역할을 맡은 이자스민(Jasmine B. Lee)은 필리핀 수능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고 명문 의대에 다녔던 수재였음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완득이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긴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글로벌 사회이자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거두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핏줄과 문화를 초월하는 까닭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롬 10:12) ☞

강진구 교수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강진구 교수는 매달 서울과 부산공동방송을 통해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진행하고, 기독교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사역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교회성장연구소



가장 빠르게 목회 관련 정보와 IT융합 기술을 전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 추가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설교
SERMON

- 설교 준비 노하우
- 주일예배
- 수요일예배
- 금요일예배
- 다음세대

오피니언 리더
OPINION LEADER

특집
PERSPECTIVE

미션
MISSION

개척
CHURCH PLANTING

목회 가이드
MINISTRY GUIDE

문화
CULTURE



설교 준비 노하우

인터뷰이 **임병선 목사**(용인제일교회)
정리 편집부

❶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껏 우리만의 성에 갇혀 있었던 경향이 컸습니다. 이는 목회의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하는 데, 이 두 가지의 타깃은 일차적으로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되 묻습니다.

“이 설교를 불신자들이 알아 들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새신자가 안 오니까 기존 성도들을 위한 설교만 한다”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새신자는 더더욱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에 설교만큼은, 처음 교회에 오는 불신자들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대신 저는 금요기도회의 경우에는, 기존 성도님들의 영성과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

임병선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과(B. A.), 동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미국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신약학, 설교학 Th. M.), Liberty University(교회성장학 박사, D. Min.)를 졸업하고, 대한교회 부목사, 달라스제일장로교회 교육목사, 신반포교회 부목사를 거쳐 현재 용인제일교회 담임목사, 칼빈대학교 대우교수, 용인동부경찰서 경목위원, 용인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 용인시청 시목위원, 총회세계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설교 한눈에 보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열왕기하 5장 1-7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리이러하더이다 하니...”

서론

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며 기적적으로 치유할 것인가?

본론

1.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겨야 함

기적의 치유를 이루려면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2.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함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3. 마지막까지도 소망의 길로 인도해야 함

치유 받으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

결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가 이루어져, 치유받은 사람들이 여생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





기적의 치유를 이루라

열왕기하 5장 1-7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리이러하더이다 하니...”



김의식 목사
치유하는교회

오늘 본문에는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가 나병에 걸려 절망적인 나아만 장군을 위해 한 선지자를 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으로 치유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전도하여 기적으로 치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겨야 함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 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왕하 5:2)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은 당시 이스라엘과 싸웠던 벤하닷 1세 (주전 900-860, 왕상 20:1-20, 22:31)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군대장관 (Commander, 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아람 왕은 그를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great and highly regarded).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 즉, 용맹스러운 전사(a valiant soldier)였으나 불행하게도 나병이라 하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다 누리고, 아무리 좋은 의원을 만나고, 좋은 의약을 사용하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אֶתְּחִי(앗테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직역하면 그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 ‘앞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 몸종인 그녀는 밤낮으로 늘 가까이서 주인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섬김이, 나아만 장군의 기적과 치유의 첫 출발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되, 그들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수고를 함께 나누며 털어주어야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의 선물도 전하고,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라도 사랑으로 녹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 혼, 육의 온전한 치유를 기적적으로 체험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3월 22일 국민일보에 나온 ‘행복 지수(Happiness Index)’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2013년 유엔은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행복의 측정을 계량화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나라 ‘부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엔은 부탄의 ‘행복국가론’을 발전시켜, 10년 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천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고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현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이 집권한 1974년부터 국민들의 행복을 경제 성장보다 더 중시하는 ‘행복 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운 것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1987년 왕축의 ‘행복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캐나다와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부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축은 “부탄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며 “국내총생산(GDP)보다 국가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경제 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물질적 풍요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탄의 개발 철학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5.9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58위), 콜롬비아(72위), 튀르키예(106위)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핀란드가 6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5위), 대만(27위), 사우디아라비아(30위), 일본(47위), 말레이시아(55위)가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중국은 64위에 그쳤고, 북한은 조사 대상국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도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교회 오용선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오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주(主)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주(酒)님을 모셔서 매일 막걸리 통을 달고 살아, 1년 곡식을 수확하면 매출의 5%는 술값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구나 하루 종일 술통을 벗 삼아 사시니 농사일은 거의 주말까지 다 미뤄놓아, 어린 아들인 오 목사님이 주말에 지게질부터 시작해서 삽질, 낫질, 호미질, 칼질, 도끼질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뜨개질 빼놓고는 다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 동네 1년 선배 형이 “야 새끼야, 너 교회 안 나오면 죽어!” 하고 전도하더랍니다. 전라도 말은 정감이 있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오 목사님은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고주(苦酒) 망태셨던 아버지는 60세에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2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적의 치유를 이루려면 사랑의 섬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
(고전 15:58)**

우리는 평생토록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 친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불 못에서 건져지고,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죄악까지도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함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왕하 5:3)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자인 것을 알자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주인의 나병을 기적적으로 고치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물에 소금을 던져 물을 고치는 기적’(왕하 2:19-22),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42명의 아이들이 고퍀에게 생명을 잃게 했던 기적’(왕하 2:23-25), ‘모압과의 전쟁의 승리의 기적’(왕하 3:1-27), ‘선지자의 제자 아내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한 기적’(왕하 4:1-7),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기적’(왕하 4:38-41),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왕하 4:42-44) 등 ‘6가지 기적’을 행했던 분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을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던 어린 소녀는, 그녀의 주인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치유를 체험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의 원수를 용서하고, 육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 간구하여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대학교 음대 백기현 교수님은 8개월 반 만에 미숙아(未熟兒)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살 때 여덟 살 고모 등에 업혀 놀다가 대청마루에서 굴러떨어져 척추가 디딤돌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결핵균(結核菌)이 들어가 곱사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6·25 직후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곱사등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뼈가 굽어 불룩해지고, 가슴이 튀어나와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늘 뒤통수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가 등이라도 한번 만지는 날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누구도 다가오길 꺼려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커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로 성공해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했던 그는 1971년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부풀었던 그에게 불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입학하고 두 달 뒤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 척추 마디 마디에 고름이 짝 차서 24시간에 걸쳐 화농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죽을 가능성이 있고, 하반신 마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다행히 수술 결과가 좋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악가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남들보다 각고의 노력으로, 무수한 눈물을 흘리며 연습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키와 곱사등 때문에 무대에서 쫓겨난 적도 허다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의 눈길을 받았던 적이 셀 수 없었지만, 그는 오직 성악만을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후 젊은 나이에 대학교수가 되었고, 교수인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곱사등이에 대한 열등감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악 대신 오페라를 제작하기로 하고 1991년 '성곡오페라단'을 창단했습니다.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해 국내외 공연에서 호평을 받아 2002년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10여억 원의 산더미 같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약을 사서 절벽을 찾아 나서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추로 55년 살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교회에 다녔으

나 불만과 비방이 가득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탓하고, 걸핏하면 목사님을 비난하고, 박수치며 찬송하거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식해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4일 운명의 날, 기적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한국형 오페라를 공연하다 빛을 진 그는, 동료 교수의 권유에 마지못해 부인과 함께 도곡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하며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옆구리와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리고, 팔이 꺾이고, 고개가 젓혀졌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편다! 네가 55년 동안 너무도 마음이 아팠구나!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집회 이후, 며칠 사이에 등이 온전히 펴져, 55년간 그를 괴롭혔던 곱사등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5년간 앓어왔던 질병과 열등감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백 교수님은 “성령의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갈등 중이라도 끈질기게 소망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의 은혜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때가 기적을 체험할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 공주 해월감리교회 장로로 2천 회 이상 연주와 간증을 하며 자신이 체험한 치유의 복음을 전하다가 2022년 70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17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동안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 절망과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요 문화사역자인 미국 드류대학교의 전도학 교수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 박사가 쓴 『넛지 전도(Nudge)』라는 유명한 전도 서적이 있습니다. 원래 ‘Nudge’라는 단어의 뜻은 ‘팔꿈치로 살짝 찌르며 살살 밀다’라는 뜻입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말세, 마지막 때에 세대와 세대, 문화와 교회를 잇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 우리의 오감 즉, ‘눈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코로 하나님의 떨기나무 연기를 맡게 하고’, ‘귀로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갈라 터지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참맛을 맛보게 하고’, ‘손으로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온기를 느끼게 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 전인격을 담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부담이 없으면서 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

치고 떠나는 순간부터,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듯이 평생 우리가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할 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3. 마지막까지도 소망의 길로 인도해야 함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왕하5:6)

나아만 장군이 아내가 전해준 어린 소녀의 말을 그의 상전인 아람 왕에게 고하였더니 아람 왕까지 감동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문을 보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 은 10달란트(약 342kg), 금 6천 개(2달란트 = 약 68.5kg), 의복 10벌을 함께 보냅니다. 이는 나아만 장군을 살리기 위한 막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문이 전해졌습니다.

“...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왕하5:6b)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 붙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왕하 5:7)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기적적인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



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유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917년 황해도 은율의 가난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황해도에서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는 대중목욕탕 심부름꾼부터 모자 가게 점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의학 강습소의 급사 자리를 얻어 등사기를 미는 일을 했습니다. 강습소 학생들이 볼 교재를 등사기로 밀다보니 자연스럽게 들여다보았고,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면 한자 옥편을 뒤져가면서 독학을 하다 보니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대에 다니지 않고 시험만으로도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주경야독으로 의사고시에 매달린 지 꼬박 2년 만인 20세에 그는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선 국내 최연소 의사라고 축하해 주었고, 시험에 합격한 해인 1937년 서울 성모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평탄했지만 몇십 년 뒤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사건이 생겼는데, 뼈가 앙상하고 배만 볼록 솟아오른 갓난아기 환자가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 걸려 왔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며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 차트를 보니 병명이 소화불량이었습니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고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복부 팽만으로 병원을 찾은 적지 않은 신생아들이 설사만 하다가 무력하게 죽어갔습니다. 의사가 된 청년은 자책과 의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언젠가는 고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3세가 되던 해, 그는 의사 초년병 시절에 접했던 소화불량에 걸린 신생아들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학 선진국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6남매가 있었고,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어, 이때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반대했지만,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대학으로 공부하러 간 그는 뽀족한 수를 찾지 못했고, 곧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C 메디컬센터로 건너가 비슷한 증상이 있나 살살이 뒤져봤습니다. 1964년 그는 도서관에서 소아과 교재를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유당불내증(乳糖不耐症, lactose intolerance)'이 소개된 대목이었는데 20여년간 지녀온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나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증상을 가진 신생아는 모유나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대용식을 만드는 게 급선무란 생각이 들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줬던 콩국이 떠올라 그는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정소아과'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우유 대용식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콩을 맷돌로 갈아 콩국을 만들면 그는 콩국의 영양이 충분한지 분석했습니다. 병원 지하에 실험용 흰쥐를 잔뜩 갖다 놓고 콩국을 먹인 쥐에게 유당불내증이 나타나는지 등을 실험했습니다.

주변에선 정소아과 원장이 미국에 다녀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수군댔지만, 이렇게 3년 남짓 연구한 끝에 두유를 개발하여 이것을 설사병에 걸린 신생아들에게 줬습니다. 병상의 아이들은 눈을 뜨면서 기력을 차렸습니다. 콩에는 필수 영양소(단백질 40%, 탄수화물 35%, 지방 20%)가 들어 있지만, 유당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설사병을 앓는 아이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소아과가 용하다는 입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환자가 몰리자 두유 공급이 모자랐습니다. 자연히 아픈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결국 1973년에 회사를 세워 두유 대량 생산에 나섰습니다. 콩국이 ‘식물성 우유’라는 점에 착안해 식물(vegetable)과 우유(milk)의 영문명을 합쳐 ‘베지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식품’의 ‘정재원 회장’입니다. 당시 56세였던 그는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개인 병원만 운영하다 기업을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지만, 신생아들을 살리려면 창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89년, 67세 때 그는 세계 최대 규모와 시설을 갖춘 두유 전문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가 사명감으로 만든 베지밀은 지금도 두유업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창업 후부터 올해(5월 말 기준)까지 만들어진 두유는 총 130억 개로, 이를 나란히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1,630차례 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 건강을 위해 이 한 몸 바친다’를 창업이념으로 정한 그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기업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1984년 혜춘 장학회를 설립했고, 33년간, 약 2,350명의 대학생들에게 21억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100세를 사시다가 2017년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평생토록 세상의 부귀, 영화, 향락을 다 누렸던 다윗 왕은 시편 39편

6-7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번 왔다가 떠나가지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있다면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기고,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도 소망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가 이루어져, 그들이 여생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

김익식 목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공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교역학석사, 신학석사)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졸(신학석사)
시카고신학대학원 졸(철학박사)
호남신학대학교(명예신학박사)
(前)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現)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부총회장
(現)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現) 치유하는교회 위임목사

■ 저서

『한 어린이의 꿈』, 『상한 마음의 치유』, 『상한 가정의 치유』, 『상한 교회의 치유』 외 다수

설교 한눈에 보기

김형배 목사(서산성결교회)

마가복음 16장 17-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서론

‘치유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본론

1. ‘치유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치유 사역’에 있어서 믿음은 근본 원인이고, 치유는 그 결과이다.

2.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교회는 왜 치료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위임하신 사명으로, 전도에 필요하며 사역자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3. 성경에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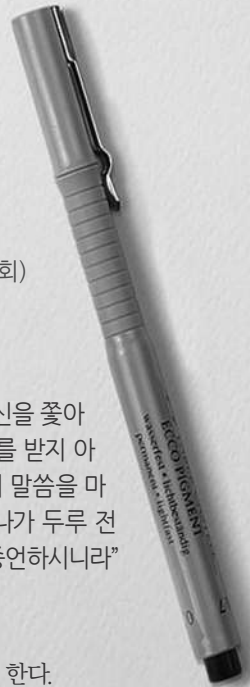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안수하고, 명령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치료하셨다.

4. 치료할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작극적인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김형배 목사
서산성결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하여 예수님의 ‘3중 사역(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중 사역’의 본을 친히 보이셨고(마 9:35),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시면서(마 10:1)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마 10:8).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본질 사역이고,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바른 삶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비해, 특별히 부족한 사역이 ‘치유(신유)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이 ‘치유 사역’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3중 사역’을 온전히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마 10:1, 5-8). ‘신유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1. ‘치유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마 8:2; 눅 5:12-13) ‘치유의 하나님’ 이십니다(출 15:26, 23:25; 신 7:14).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치유 사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치유는 불가능합니다(마 9:22, 13:58). ‘치유 사역’에 있어서 믿음은 근본 원인이고, 치유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마 8:13). 믿음을 세우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롬 10:17).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간증, 체험 등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집니다.

2)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히 12:2).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

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전이됩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는 날마다 모여 가르침의 교제와 떡의 교제, 기도의 교제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치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료하시는 한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2.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교회는 왜 치료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잭 디어(Jack S. Deere) 박사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왜 치유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가 많으시기에 치유하시고(마 14:13-14),
- 2)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고(요 11:4, 40),
- 3)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치유하시고(행 14:8-10),
- 4) 그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신다(약 5:14-16).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라

고 말씀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시 103:3),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출 23:25)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 사역 중 70%를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데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하나요?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마 8:2-3; 눅 5:12-1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난받으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렘 29:11),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2)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기 때문이다(눅 9: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 10:1)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4) 전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치유 사역과 전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곳곳에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가지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후 치유 사역과 연결하여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전도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5) 사역자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치유 사역을 하려면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며,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늘 깨어 있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역자는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 때문에 기록해지고 강해집니다.



3. 성경에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오늘날 치유 사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 사역에는 성경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 바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 안수함으로 치료하셨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킬 때,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8)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고(행 28장),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눅 13장).

2) 예수님께서서는 명령의 말씀으로 고치셨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치유 사역은 말씀이 믿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요 1:1) 명령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열병을 꾸짖어 치유하셨고(눅 4:39) 문둥병자에게는 “**깨끗해질지어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들것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귀머거리에게는 귀를 향하여 “**열리라!**”, 손 마른 환자에게는 “**네 손을 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3)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료하였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더니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11)

우리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2-14)

4)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이루셨다.

마가복음 11장 22-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기도하는 중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기도 후에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24절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3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막 11:22). -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막 11:23). - 기도와 생각을 일치시키라.

셋째, 받은 줄로 믿으라(막 11:24). - 믿고 선포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치료를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5) 기름을 바르며 치료하셨다.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막 6:13)라고 기록되었으며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약 5:14). 그러면 기름 바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당시 ‘기름’은 ‘치료 약’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성경은 병 고치는 사역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치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회개할 때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행 2:38).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고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질병의 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행 1:8) 성령의 권능의 한 부분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성령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을 병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치료에는 의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이고,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의학을 이용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면 치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병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고(약 5:14-16), 서로가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은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시는데 ‘치료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7-18)

믿음의 사람들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내며 증언함으로, 주님께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막 16:20).

4. 치료할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

치료할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치유 사역자들이 나중에 곤경에 처하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자는 반드시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엡 6:11), 사역 후에 다시 한번 전신 갑주를 입어야(엡 6:13)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은사로 치유되지만 믿음의 역사로(막 16:17-18) 일어나므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치유 사역자(요 11:22)와 환자 자신(막 5:34; 눅 7:9, 17:19),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나 가족들(막 2:5)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사랑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

김형배 목사

서울신대 졸업
 서울신대 상담대학원 졸업
 평택대학교 실천신학 박사과정 수료
 교단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現) 서울신대 글로벌사증복음 연구소 이사장
 (現) 교단 교육위원회 위원장
 (現) 서산성결교회 담임목사



새 삶이 열릴지어다!

마가복음 7장 31-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아 시돈을 지나고 데가 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김근영 목사
수원제일교회

복효근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란 시입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달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선재 같은 친구,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티 내지 않고 “야, 네 가방 지퍼 열렸다” 하면서 가방 속으로 슬쩍 붕어빵을 넣어주는 그런 친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붕어빵 다섯 개를 먹던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다며 시를 맺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소중한 친구를 통해 ‘인생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간증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소중한 친구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보통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를 수반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 형제는 아예 말을 못 하기보다는 심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자신의 시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던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막 7:32). 이 친구들이 종종 장애를 지닌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어장애를 지닌 형제는 비록 불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오긴 했어도, 그의 내면만큼은 소중한 길벗들과의 동행으로 인해 든든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듯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볼 때 지금 내 주위에, 나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중요한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영혼의 어둠을 말끔히 거두어 주겠노라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경로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위치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시돈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순회 선교사역을 하신 후,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흑암 속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방 도시 행적을 소개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 흑암 중에 있던 이방인들의 모든 어둠이 걷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둠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9:1b-2)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찬란한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3-14)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본질적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말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본질적 기쁨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면, 내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영혼의 어둠을 말끔히 거두어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힘 있게 전파하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처지를 헤아리며 맞춤형으로 역사하겠노라

본문 33절부터는 친구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형제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막 7:33)

예수님은 이 형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시켜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장애를 가진 이 형제의 심정과 처지를 헤아리신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개 장애를 겪는 이는, 자신의 장애가 드러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게 된 이유가 대인공포증 때문에 생겼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어 보

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 부분도 고려하여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켜 치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우리 삶의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디테일하게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장애인 형제를 어디론가 데려가신 예수님께서서 치유를 행하십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형제의 양 귀에 넣고,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 그 침을 형제의 혀에 대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기에,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형제의 귀에 예수님 능력의 손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 그 침을 형제의 혀에 갖다 대셨다는 대목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비말 전파를 걱정하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서 이런 치료 행위를 하셨다면, 아마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했다며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지탄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많은 경우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혹 말씀을 통한 치유가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손을 만져주시거나, 거꾸로 환자들이 예수님의 몸이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의 침을, 형제의 혀에 갖다 대신 겁니다. 이걸 모기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 침을 바르는 것과는 완전 수준이 다른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형제에게만큼은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던 것일까요?

솔직히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적어도 이 장면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다양하기에,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장애인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지 않고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처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다양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되,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노라

형제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신 예수님께서 독특한 치유 절차를 행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막 7:34)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 형제의 아픔을 당신 가슴으로 고스란히 끌고 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에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무게감을 가지고 형제를 향해 ‘에바다(열릴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에바다’는 주문이 아니라, 이 형제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언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는 단어를 주문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치유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언어나 주문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비스러운 것들을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분들 중에, ‘에바다’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에바다’라는 평범한 일상 언어를 통해 장애를 지닌 형제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형제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형제에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수



님 만나기 전까지, 귀먹고 말 더듬는 형제처럼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에바다’를 외쳐주셨습니다. “너의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너의 닫혀진 심령의 문이 열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빛 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추구하는 본질적 방향과 궤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 5:8-9)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에바다’, 주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 내 인생을, 빛을 추구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열어주신 겁니다. 소망하기는 ‘에바다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속에 끊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한평생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길 바라고, 더불어 닫혀진 인생의 상황들도 풀려지고, 닫혀진 건강도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삶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피날레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

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애인 형제를 치유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침묵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슴에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가슴에 불붙은 사람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는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막 7:37a)

소망하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잘하십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우리네 삶은 ‘모든 것을 잘하셨고, 잘하시고, 잘하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참 친구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므로 삶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총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

김근영 목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Th. M.)을 졸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철학박사(Ph. D. cand.) 과정 중
 충현교회 부목사
 사랑의교회 부목사
 (現) 세계선교신학원 원장
 (現) 수원제일복지재단 이사장
 (現) 아름다운동행 부이사장
 (現)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시편 56편 8-13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눈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나의 고통, 슬픔, 외로움을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눈물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담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세계 3대 콩쿠르 중의 하나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콩쿠르 역사상 60년 만에 열여덟 살 난 한국의 임윤찬 군이 최종 결선에서 우승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했는데 연주를 마치자, 온 청중이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를 보냈고,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솅(Marin Alsop)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10일 동안 약 350만 명이 유튜브에서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눈물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는 눈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갔을 때 지은 시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
이다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시 56:1-2)**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윗에게 임했는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 56:8)

새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내 비참함을 세어 두십시오. 주님이 친히 담아 두십시오. 내 눈물을 주님의 물독에 주님의 두루마리에 들어 있

지 않습니까?”(시 56: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 죽음의 위협과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절망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난 가운데 많이 울었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울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무뎠게 버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가족이 그 예쁘고 귀여운 10살 딸을 데리고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금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줬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회의 무관심과 본인의 절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흘린 눈물들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 그 모든 눈물이 주님 앞에 쌓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늘 우셨습니다. 남편이 워낙 속을 썩여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또 우십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그분에게 붙인 별명이 ‘울보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께 그만 우시라고 해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눈물이 하늘나라 보석함에 잔뜩 쌓인 보석들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 처럼 떠도나이다” (시 39:12)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내 사랑하는 그 이름>이란 곡의 2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卍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오고 몸이 아파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2.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 56:9)

우리의 슬픔을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 102:2)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영국군이 덩케르크(Dunkirk) 해안에 갇혀서 독일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30만 대군이 전멸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세는 완전히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조지 6세와 영국 왕과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국 군인 30만 명이 덩케르크 해안에 갇혀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여 저들이 무사히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독일군이 진격해 오는 그곳에는 폭우를 내리셔서 탱크의 바퀴가 진흙에 엉켜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덩케르크 해안 쪽에는 맑은 날을 주셔서 많은 배들을 통해 30만 군인들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다듬어서 독일군과 싸워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이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삭을 핍박해도 이삭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삭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며 화해하기 위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 26:28-29)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다시는 우리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이제 우리와 화해하자.”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게 되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다윗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 56:10)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부정적인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 56: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누가 나를 괴롭히며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는 담대히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들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말하듯이, 고난은 끊임없이 바다 물결이 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도 나중에 우리가 일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시인 ‘리나 샌델(Lina Sandell)’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는 곡이 하나 있는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Day by Day)>라고 하는 성가입니다.

리나 샌델은 1832년 스웨덴에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호수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호수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눈앞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여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하십니까?”라며 며칠 동안 그녀는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주신 시를 쓰는 재능으로, 앞으로 나의 여생 동안 주님 앞에 찬송을 써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라면서 많은 성가를 작사했는데 그 곡

들이 650편이나 됩니다.

리나 센델의 삶은 참으로 큰 고통과 고난이 계속 다가왔던 삶이었습니다. 1867년에 사업가인 오스카 버그와 결혼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스웨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5살에 사고로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간 그녀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복음서가 176장은 그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음서가 179장 :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앉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에 처해도, 아버지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도 먼저 떠나보낸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린 리나 센델 같이 위대한 믿음의 자녀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이영훈 목사

연세대학교 신학과(Th. B.) 연합신학대학원(Th. M.) 졸업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석사(Th. M.)
 미국 템플대학교대학원 종교철학 석사(M. A.)
 미국 템플대학교대학원 종교철학 박사(Ph. D.)
 워싱턴순복음제일교회 및 순복음동경교회, LA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일본순복음신학대학교 학장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한세대학교 교수 및 기획실장 / 신학연구소장
 미국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장
 아시아태평양신학협의회(APTA) 신학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사단법인 국민희망실천연대 공동대표
 한국 교회희망봉사단 공동단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現) 교회성장연구소 대표이사
 (現)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現)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 저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수 우리의 기쁨』, 『세계 오순절 성결 운동의 역사』, 『성령과 교회』, 『참기쁨』, 『물 댄 동산』, 『The 나눔』외 다수



산아 네가 무엇이나 시리즈 11

시험의 산을 옮기라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이다 아멘)”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핑계의 산을 옮기라’라는 주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핑계’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초장에 막는 방법은 핑계거리를 주어서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를 이기고 주의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시험’을 검색하면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보거나 특정 상황을 만나는 게 괴롭다’라는 뜻으로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시험의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산 앞에서 넘어져 실족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교

회 안 가고, 시험 들어서 사역 내려놓고, 시험 들어서 헌금 안 하고, 시험 들어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시험 들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사람 얼굴 안 보고 자리를 뜨고, 시험 들어서 목장에 안 가고... 이 시험이라는 사탄 마귀의 무기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시험이라는 무기는 핵무기보다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는 집사님이 교회에 못 나가고, 사역을 못 하게 하려고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핵폭탄에도 죽지 않고 일어나 교회를 갑니다. 혹시 ‘돈 없으면 돈 번다고 안가겠지!’ 싫어서 돈을 빼앗더니 사업이 망해도 주일이면 열일 제쳐두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건강을 가져가면 신앙을 버리겠지’ 싫어 건강에 손댔더니, 오히려 건강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떤 고난으로도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귀가 시험에 들게 했더니 그때부터 병으로도, 돈으로도, 핵폭탄으로 막지 못했던 교회 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말은 사역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험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40일 금식기도를 한 부부가 주보에 본인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가장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단지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후에 ‘왜 내 이름이 빠졌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상상이 상상을 키우고, 서운함을 만들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까지 했는데, 교회는 나에게 해주는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에 이르니 시

힘이 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가고, 가게도 찾아가 봤지만, 그 가정은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가정을 사랑하고 아깁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가정도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헌신과 충성은 오히려 더 큰 서운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각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헌신을 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 차 한 대를 헌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집사님이 임직에서 떨어지자 교회 앞에서 “내 차 내놓아라!”고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사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헌신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임직에서 떨어지니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고 나니 지금까지 헌신했던 것이 다 부질없어지고, 현금 한 것까지 다 토해내라며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중요하며, 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은 언제, 누구에게 득달같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모르고, 누구에게 시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쏘는 시험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흥배를 단단히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시험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제는 오른쪽에서 공격했다면 오늘은 왼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가만 살펴보면, 등은 비어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기 위해 등을 보이면, 마귀가 쏘는 시험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또한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험은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항복하고 믿음의 방패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13)

어떤 사건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냥 시험에 빠져 들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닐 거야! 잘못 본 걸 거야!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속히 시험에 빠지는 자신을 피할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전 15:58)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1.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공통으로 소개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의 본문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마 26:41) 역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 있으면 시험에 들다가도 분별이 생깁니다. “아, 이걸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문제구나” 하며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무장해서 시험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는데 졸리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를 멈추게 되면서 시험을 이길 힘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힘이 있습니다. 분별이 되면 쫓아낼 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2.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험은 보통, 사람으로 인해 생깁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생기고, 내가 부당한 대접이나 오해받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있으면 가서 따지겠지만, 따질 힘도 없고,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니 시험에 들어서 잠적하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먹살 잡고 싸우지만, 착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이렇게 잠적합니다.

독하든, 약하든 시험에 든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시험들 거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시험 거리가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 10:30)

여러분에게 큰 시험을 안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큰 시험을 안겨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 간에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만 맡기지 말



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루속히 시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3.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멈추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하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시험을 당해 믿음을 떠났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시험을 당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다시 교회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해서 성경도 덮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험을 이기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처방전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 2:4-5)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시험당해서 멈추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그 열정을 되찾은 다음,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섬김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새벽, 닭이 울 즈음에 모닥불 피워놓은 마당 앞.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가 자신에게 시험이 들어 고기 잡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으러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새벽닭이 울 즈음에 찾아오신 예수

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꿰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실망하고 남들에게 실망해도, 그 시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 1.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쳤던 그 외침으로 외치십시오.

“그러나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시험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



산아 네가 무엇이나 시리즈 12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하박국 3장 17-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953년 5월 29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8,849m)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영국의 원정대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와 그를 돕는 셸파 텐징 노르가이(Tenzing Norgay)입니다. 하지만 이날이 그들의 최초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성공은 9번째 시도한 끝에 이루어 낸 것입니다. 2년 전, 그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실패하여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에베레스트산을 보고 주먹을 치켜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인 줄 아니? 산인 너는 자랄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자랄 수 있기 때문이야!(I will come again

and conquer you because as a mountain you can't grow, but as a human, I can!)”

이 사람은 산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산이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면 산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산은 자라지 않았지만, 능력이 자란 힐러리는 2년 후에 마침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오를 수 없도록 신이 울타리를 쳐놓았다’는 그 산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산 시리즈의 마지막 제목은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나 14세 때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되어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부친이 사망했고, 아들의 이 소식을 들은 모친도 충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하던 누나 역시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하다가 과로로 죽고, 남겨진 삼남매는 급기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맹인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안마 기술을 배우며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남들보다 열심히 점자를 배워 대학 입학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입 원서 지원 자체를 거부당하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나마 자원봉사자로 왔던 여대생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자원봉사자 중의 한 명이 아내가 된 석은옥 여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차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후, 석은옥 여사와 결혼을 한 그는 장애인 최초로 유학

길에 오르게 되며,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차관보 직위)이 되어 한인으로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며 장애인 인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삶을 살며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자서전의 제목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입니다.

강영우 박사 앞에 놓인 모든 것은 높은 산들이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오르기 쉬운 산은 없었습니다. 모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 믿음의 근육이 점점 자라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은 점점 낮아져 보일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해 힐러리 경처럼 외치십시오.

“산아,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자라고 있다. 내가 언젠가는 너를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다!”

사해에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높고 깊은 벌거숭이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그 황량함. 그런데 그 벼랑 끝을 넘어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게디’라고 하는 산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엔게디’(En gedi) 광야는 ‘게디의 샘’이라는 뜻으로 게디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깎아지른 그 절벽을 게디들은 평지처럼 뛰어다닙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산을 뛰어다닐 발목의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 3:19)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는 저 높은 절벽을 평지처럼 달리는 사슴과 같이 된다”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지만 찾아서 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산을 평지처럼 달린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산을 평지처럼 달리며 사는 것일까요? 바로 앞의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7)

엄청난 산들이 하박국 앞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 농사를 짓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 고백을 읽을 때 “아멘!” 하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상황에 맞게 현대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비록 잠실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 사업이 망하고, 분당에서 시작한 포도청과 사업이 마침내 문을 닫고, 강남에 시작한 감람오일 사업이 마이너스 수입이 되고, 이곳저곳에 사놓은 논밭들이 맹지가 되어 팔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통장의 잔고는 어느새 바닥이 났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하박국이 지금 이런 산들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만만한 산이 없습니다. 그 산을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실 문

제도 해결 못 하는데 강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물처럼 새 나가는 통장잔고는 무슨 능력으로 지켜냅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리로다” (합 3:18)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노래입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 앞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 산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산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이 그 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 3:19a)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발목의 힘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

리분에게 이 능력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을 받았다가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걷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그래서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적응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산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수많은 담과 산을 마주하면서도 그가 그 모든 산과 담을 평지처럼 뛰어넘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시 18:29)

멀리뛰기 할 때 도움닫기 해보셨죠? 도움닫기는 멀리뛰기를 시작하는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도움닫기를 하는 이유는 멀리뛰기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닫기가 끝나는 지점에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프링 발판입니다. 멀리 뛰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스프링 발판을 밟으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멀리 뛰게 됩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스프링 발판이요 내가 담을 뛰어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라는 뿔뿔을 밟고 적군 머리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뿔뿔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주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의 산>을 옮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닌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자범죄의 산>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산>을 옮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의 <두려움의 산>을 옮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이지 않는 밧줄로 손과 발을 묶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상처의 산>을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고, 상처를 칼로 만들지 말고 사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의 산>을 옮겨, 제대로 된 경제원칙을 세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래 우리가 있고, 우리 아래 물질이 있음을 기억하여 물질의 종노릇 대신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질병의 산>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막힌 <관계의 산>을 옮겨 하나님과 영통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여 나와 소통하고, 내 곁의 사람들과 인통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의 산>을 옮겨서 우리 인생의 남은 금쪽같은 날들을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에게서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시험의 산>을 옮겨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을 모두 옮겼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 산들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일렁이는 바다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입니다.

참된 능력은 주렁주렁 열린 무화과나무 앞에서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외양간 앞에서도 그 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큰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산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치며 산을 올라가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후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장장 1,500km를 가야했던 스투바벨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투바벨아, 네가 건너야 할 수십 개의 강들, 넘어야 할 수백 개의 산들, 네가 싸워야 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네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때 내가 외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는 없다.”**

맞습니다.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성령의 사람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와의 영으로 나가는 여러분 앞에 모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여덟 계단 시리즈 1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 3-11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흔히 ‘믿음 생활’을 ‘계단 오르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여덟 계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계단을 열심히 올라서 3층에 가면 구원이 있고, 4층부터 10층까지 오르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입니다. 태어날 때 교도소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내가 최고 좋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기는 것이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사한 그 순간부터 ‘바닥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콘스탄티누스(Flavius Valerius Constantinus)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Saint Helena)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곳에서 ‘28개의 계단’을 직접 가지고 와서 라테란(San Giovanni in Laterano) 성당에 안치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 28개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정결하게 된다는 중세의 가르침을 믿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런 고행이나 수행을 통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 “로마여, 안녕!”이라고 외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가서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계단은 없습니다. 믿는 즉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벧후 1:3)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성품들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 1:4)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동시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건에 속한 것들을 계속 사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주신 경건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5-7절에 나오는 8가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벧후 1:5-7)**

11절을 같이 봅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11)

그래서 이 8가지 덕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8가지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계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에서부터 마지막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품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경우 계단 같은 것은 없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이르는 계단은 있습니다. 이 계단은 우리의 경건 훈련을 통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올라서야 할 계단은 ‘믿음의 계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첫 번째 계단에서 시작하며, 그

다음으로 ‘덕의 계단’, ‘지식의 계단’, ‘절제의 계단’, ‘인내의 계단’, ‘경건의 계단’, ‘형제 우애의 계단’, 그리고 ‘사랑의 계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계단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 14:8)

하나님의 최고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계단의 가장 높은 계단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제일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까지 가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천국에서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계단부터 사랑의 계단까지 총 ‘8가지 단계’를 매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는 아쉽게도 생명에만 집중하고 경건에 속한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지하실이라도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했지, 경건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강점기, 6·25전쟁, 보릿고개 등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기 때문에 천국 지하실이라도 좋으니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인품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갑질하는 졸부처럼 기독교인들의 인격 없음이 공격을 받게 되고,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삶이 지옥 같을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통했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너랑 같이 간다면 나는 안 갈래” 하고 전도가 안 통하게 된 것입니다.

제 친구가 어머니의 임종 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무이. 평안히 눈 감으소. 아버지 봐야지.”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며 하시는 말씀이, “니 아부지 천국에 있나? 그러며, 나 천국에 안 갈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눈을 감으셨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2-5)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 가지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화날 일이 생길 때, 또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화를 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 앞에서 금방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비겁해지고, 불리하면 금방 사나워지거나 모함하고, 급하면 절

제하지 못하고, 또 금방 배신하고, 조급하고, 좋은 것 있으면 쾌락을 좇아가는 사람.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언제 “아멘” 할지, 언제 “주여” 할지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금방 찾아내는 지식을 갖추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4절까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전혀 다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절제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당연히 차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다들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을 감싸줄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다들 무정할 때 온정을 보여주고, 다들 바빠 갈 때 뒤쳐진 사람 없나 살펴 함께 가는 게 능력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후 4:7-8)

부지런히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골프 연습하고, 자전거 연습하고, 붓글씨 연습하고, 취미생활 연습하는 것처럼 경건도 몸에 밸 때까지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안 쓰는 근육을 쓰면 아프지만 나중에는 편안해지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케빈 벤후저(Kevin J. Vanhoozer)는 『들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경건의 훈련을 위한 체육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 훈련을 위한 체육관은 교회입니다. 체육관은 실전 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실전인 세상에 나가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나는 일을 만나면 “야!”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었다면 벌써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양보를 잘 못하고 새치기하는 사람은 백화점이나 시장, 마트에서 새치기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식당이나 백화점, 마트에서 불평 선수라고 봐야 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백화점은 비상이 걸리고, 마트 직원들이 도망가기 바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경건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몸에 배도록 교회라는 경건 체육관 안에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농구 연습 때, 3점 슛을 눈감고 넣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실전에서 2점 슛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눈치채버렸습니다. 이제 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경건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성 프란체스코(Saint Francis)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전도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경건의 말보다 경건의 능력이 훨씬 강력한 전도지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라는 양날 검으로 겸비하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그리스도 닮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8가지 성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을 함께 데려가고 싶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 하고픈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여덟 계단 시리즈 2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계단

베드로후서 1장 4-7; 로마서 1장 1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사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첫 번째 계단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닮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도 덕이 있고, 절제를 잘하고, 인내를 잘하

고, 형제간의 우애를 잘 지키거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아무리 덕이 있어도 그 덕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박애주의자는 될 수 있어도 천국 백성은 못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덕스러운지, 얼마나 절제력이 큰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지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성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박애, 하나님을 떠난 덕, 하나님을 떠난 자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집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뭘 하나님을 찾느냐?” 덕스럽게, 검소하게, 청빈하게, 사이 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선행과 자비와 행함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지만 거듭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 계단의 출발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단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간결하면서도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영어 성경은 ‘From faith To faith’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로는 ‘εκ πίστεως εις πιστιν’입니다. 여기서 ‘εκ’는 무엇으로 부터, 즉 출발이라는 뜻이고, ‘εις’는 ‘~안으로, ~에까지’라는 도착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말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이 완성되어 마침내 도착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다고 할 때 앞의 믿음은 믿음의 전 단계가 아니라, 믿음이 막 시작된 단계이고, 뒤의 믿음에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므로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단계의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는 충분합니다. 오늘 믿고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믿는 믿음,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Justification)’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Sanctification)’의 단계라고 말하고, 평생 동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믿음이 완성되어서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날의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자마자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이런 믿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태어난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히브리서 5장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히 5:12-6:2)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같



은 믿음이 아니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기와 같은 믿음이 있고, 어른과 같은 믿음 있는데, 믿음은 아기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결국에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기 믿음의 특징과 어른 믿음의 특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 믿음의 특징은, 젓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딱딱한 음식, 시험거리, 기분 나쁜 소리, 마음에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만 체해서 울고불고 하는 게 아기들입니다.

조그마한 믿음의 도전을 던져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헌금하자” 그러면 교회가 돈 이야기 한다고 체하고, “건축하자” 그러면 교회가 건물만 짓는다고 체하고, “선교가자” 그러면 바쁜데 선교가라 그런다고 체하고, “목장모임 하자” 그러면 바쁜 것도 몰라주고 모이라고 한다고 체하고, “금요성령집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팔자 좋은 소리한다고 체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내 성격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한다고 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렇게 좋아서 자신의 죄를 밤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도 하고, 침례 받고, 안수기도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도 다 믿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면 다 체해버리는 사람들은 아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히 6:1-2)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침례를 받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이것만 믿고 있다면 “어린 아기의 믿음이다.”, “이건 완전히 초보 믿음이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데로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초보 아기의 믿음에서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엡 4:13-14)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맛있게 감상함으로 삼킬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4)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신기하게도 기도응답이 잘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초신자들의 기도응답이 잘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스운 비밀이지만, 혼

히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오래된 권사님들에게 기도부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바뀌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가진 기도제목을 초신자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잘됩니다. 권사님들은 웬만한 데는 시험에 안 들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아직 아기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는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연단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나면 보호식을 해야 하는데 처음 며칠은 맹물에 가까운 미음을 마시고, 며칠 뒤에는 밥알이 느껴지는 미음을 먹고, 며칠 뒤에는 죽을 먹고, 며칠 뒤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일반음식을 먹으면서 보호식을 끝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젓을 먹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삼키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웬만한 말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웬만한 오해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웬만한 시련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닭싸움의 최고 고수가 ‘목계’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 같아서 앞에서 아무리 싸우려고 텨비고, 소리치고, 겁을 주어도, 조금도 미동이 없이 나무처럼 서 있는데 그 모습에 모든 닭들이 무서워 36계 출행량을 치고 맙니다. 장성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분에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을 택하신 후에 잘못 택한 것 같다고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거나 우리를 향한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민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그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클 뿐입니다.

어릴 적 시골 저희 집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날아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처마 밑에서 대어섯 마리가 하루 종일 먹이를 달라고 “ 짹짹 ” 거리고, 엄마 제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물고와 먹이면서 그 새끼들 다 키웁니다. 그리고 찬바람 부는 가을이 오면 따뜻한 남쪽나라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다가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일반 새들은 엽총을 쏘서라도 잡아서 구워먹고, 삶아먹고, 숲속에 다니는 짐승은 털을 놓아 잡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왜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는 처마 밑의 제비는 마음껏 집을 짓고 살도록 놔두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인간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제비를 잡아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굳이 잡기 힘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잡아먹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해준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보니 심심찮게 뉴스나 영상을 보면 이런 장면들 나옵니다. 늘 잡아먹던 들짐승도 다쳐서 집 마당으로 절뚝이면서 살려달라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에 박힌 가시를 빼주고,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고, 다친 상처를 치료해주고 살려서 되돌려 보냅니다. 다른 때는 기어 이 잡아먹지만, 왜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 들짐승은 살려서 보내나요? 인간을 믿고 고쳐달라고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계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호통하게 웃으시면서 “네 배짱 한번 좋다, 내가 너는 평생 책임지마” 하시고 믿음에 대한 선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데에 이를 때까지 멈추어 있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ㄸ

최병락 목사

침례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 졸업(B. A.)
 사우스웨스턴신학교 졸업(M. Div. Biblical Language)
 Dallas Theological Seminary(M. A. 성서연구과정 수학)
 사우스웨스턴신학교(Th. M. Evangelism 수학)
 (前) 세미한교회 Founding Pastor 및 담임목사
 (現) 사우스웨스턴신학교(D. Min. 과정 중)
 (現)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 저서

『다시 일어남』, 『부족함』, 『쏟아지는 은혜』, 『자라가라』,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0-37절

“...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붙잡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장창수 목사
대명교회

‘님비현상’이란 말을 아십니까?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의 앞자리를 딴 말입니다. 뜻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를 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피 시설(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시설, 장례식장 등을 자신이 사는 곳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탑산 초등학교의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 토론회 현장에서 장애아 부모를 무릎 꿇린 사건이나 2018년 대구의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장애인 입주를 반대하고 거세게 저항했던 일 등이 이런 현상에 해당됩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님비현상의 장소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요?

이기주의에 병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여 자격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조그만 이익이나 불이익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밀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계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줄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5-16)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와 가르침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강도 만난 이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떼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본 체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봐 피해 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

가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응급조치를 한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붕대를 감고, 밤새 간호합니다. 숙박비를 계산하고, 치료비로 두 데나리온을 주고, 잘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한 후 치료비가 더 들면 갔다와서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첫째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율법사가 질문한 도와야 할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고통받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까지도 내가 도와야 할 이웃**입니다.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은 세리, 창녀 등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을 즐겨 받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한센병 환자, 소경, 앞은뱅이, 귀머거리 등의 고통 속에 있는 장애인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삶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외롭고 소외 받았지만,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웃이 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이 죄를 지어 고통받는 여인에게도 용서와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눅 12:20)

토니 캠펠로(Anthony Tony Campolo)의 『회복』에는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자신이 겪은 창녀의 생일파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그네스라는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이 밤에 야식을 먹으러 갔다가 창녀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인이 생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듣는데 모든 주변 동료 창녀들이 다 비웃고 놀립니다. 그러나 그는 생일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여인의 생일 파티를 열어 주고, 축복 기도까지 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날 밤의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는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을 계층이나 자신의 경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와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너도 이같이 하라’는 표준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이웃인가요?

1. 그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의 국적, 사회적 지위, 재산, 자신과의 관계, 이익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로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성도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그는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눅 10:33)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 5:7)

‘긍휼’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기독교 유머 중에 씩씩한 유머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는 두 전도사님이 기차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분 전도사님 중 김 전도사님은 준비성이 철저하여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다른 박 전도사님은 성격도 좋고 털털하지만, 허세가 강하고 준비성이 없습

니다. 드디어 기차여행을 떠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김 전도사님은 도시락을 꺼내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점심을 굶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또다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김 전도사님이 또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한 박 전도사님이 김 전도사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나도 응답받았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참 알기는 많이 알고 성경도 알지만 얼마나 얄밋고 형식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진재혁 목사의 글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공홀은 마치 연필 끝에 달려있는 조그만 지우개와 같습니다. 경쟁과 매정한 세상에서 작은 지우개 처럼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가끔 등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공홀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a. 불쌍히 여겨 b. 가까이 가서 c.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d. 자기 짐승에 태워 e.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절에 보면 그다음 날도 자신이 손해 보는 데도 돈을 써가며 후속 조치까지 하고 갑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눅 6:35)

공홀은 ‘같이, 함께’라는 ‘Com’과 ‘고통, 아픔’이라는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즉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돌보는 것이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3. 자기 희생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사랑, 섬기는 사랑,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사랑...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하나님의 일군은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사람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스페인 철학자 미구엘(Miguel)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가?” 정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대충하시거나 형식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유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메트 파크스(Emmet Parks)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 합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지,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라!!” ☞



기쁨으로의 초대

빌립보서 4장 4-1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략)...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장창수 목사
대명교회

<은행잎에 대한 단상>이라는 오래된 글에서 보면 사람들의 심적 변화를 재치있게 써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행잎’이나 ‘은행나무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10대는-책갈피, 20대-그녀와의 데이트, 30대-아~ 환경미화원 아저씨 힘들겠구나, 4, 50대-은행 대출 생각, 60대 이상- 은행잎에서 추출한 것이 몸에 좋다지... 결론은 시간이 갈수록 삶의 문제와 염려거리로 기쁨을 잊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기쁨이 잊혀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 20세에서 50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Life style 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 결과 한국인은 하루 평균 10번 웃고, 한번 웃을 때 약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 평균 1분 30여 초 웃는 것입니

다. 반대로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남:2시간 30분, 여:3시간 30분) 그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근심 속에 산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철부지 아이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여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신구약 성경에 즐거움, 희락, 만족, 자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서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하시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즉,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강준민의 『기쁨의 영성』이란 책에서는 기쁨은 신비이며,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기쁨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유머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할 때 절망합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쁜 것을 찾아내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귀는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해야 합니다. 결국 기쁨과 감사,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가 성도의 표시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힘든 가운데서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영망이 되어버린 일상 생활 속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럴수록 더욱 기쁨을 누리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유달리 기쁨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빌 1:4) -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 2:4) - “나의 기쁨을 충만케하라”

(빌 2:18) -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3:1) -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 4:10) -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서 4장 한 장에서는 무려 19번이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교회의 형편을 보면 풍요로운 환경과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서로 분쟁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책망과 향락 문화 속에서의 죄책감 등으로 기독교인의 특징인 기쁨과 감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종교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4, 11)

기쁨은 절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찾아내고, 노력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남자는 군 생활이 힘들고, 제대하면 “그쪽을 향하여 오 줌도 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대 후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 생활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지만 경험치 못한 의리, 전우애, 재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군 생활도 기쁨과 감사의 요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군 생활은 4년간의 장교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과 환경도 있었지만, 참 재미있고 감사하고 기쁜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과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비록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에게 삶의 존재 이유,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 1:12) -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빌 1:15) -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 1:16) -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빌 1:18) -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감격,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엡 2:5)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 2:1) -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은혜로 만세 전에 선택받았고,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는 감사와 찬양,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는 “예수 믿고 사람이 나아졌다, 달라졌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인격 개선이 아닌 “죽었던 자가 살고”라고 했습니다. 즉, 새 인간, 새 존재가 된 우리는 삶도 새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쓴 존 뉴턴(John Newton) 목사님의 스토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죽고 그다음 해 아버지는 재혼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비뚤어져 불량배의 삶을 삽니다. 청년이 되자 아버지를 도와서 노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폭풍 속에서 죽음과 함께 맞게 될 자기 영혼의 종말을 두려워하다 4주 만에 구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사건과 거듭남의 체험 이후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 올니교회에서 27년을 섬기면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 노년이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두 가지는 결코 잊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쁨은 건강한 생각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 중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염려의 마음이 되면 순간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이것은 기쁨을 위한 성도의 기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염려, 근심,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염려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는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 짓습니다. 미움, 시기, 부정적인 생각, 원망 등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로 채워야 합니다. 9절에도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 4:9)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별한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티테디오스’라는 말인데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 이런 식으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기에 아예 별명을 지어 준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7)

염려에 놀려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므로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창 2:8).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죽음, 형벌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수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이 땅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로 참된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쁨’은 “죽어 마땅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은총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기쁨

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생각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마지막으로, 기쁨으로의 초대에는 ‘자족의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바울의 삶의 철학과 실천 과제는 ‘자족’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1)

‘자족’이라는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은(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 철학자들이 쓰는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 환경도 받아들이고 현재의 모든 것을 만족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의 비결은 성격이나 기질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3절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소위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못하게 없다’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바로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기쁨, 자족으로 살 수 있

는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칼빈(Calvin)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자족이 참된 능력의 원천입니다.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과 성과 권력은 인간의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3가지이다. 처음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며 기쁨이 사라지고 더, 더, 더 추구하지만 더 갈급해한다.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과 상관 없이 기쁨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해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과 기쁨의 비밀이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와 건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잣대로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평, 절망,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유한 자에게는 자랑과 교만과 세속에 집착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자족'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자리나 위치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

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쁨과 자족’은 믿는 자에게 저절로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11절의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할 때 ‘배웠다’는 헬라어의 원문 ‘에마돈’이라는 단어는 ‘연습했다’,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족의 삶을 위해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안에서 자족한 삶, 기쁨의 삶을 위해 좌절하지 말고 힘써야 합니다.

마이크 메이슨(Mike Mason)이 쓴 『내 영혼의 샴페인』에 보면 저자는 자신이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부정적이고 우울한 성격이었습니다. 20대 후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하고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선포하며 90일간 일기 쓰듯 기쁨으로 사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체크한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니 실제로 기쁨이 몰려 오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온 기쁨을 내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놀랍게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영어 표현의 ‘Rejoice’는 ‘Re(다시)’라는 단어와 ‘Joice(기쁨)’이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면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자녀 된 여러분!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사도행전 3장 1-10절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걸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장창수 목사
대명교회

인터넷에 많은 누리꾼의 관심을 모았던 ‘성공한 인생’이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세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0대 - 좋은 부모 만나면 성공한 것이다.

20대 -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30대 -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40대 - 술자리에서 2차 쓸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50대 -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60대 - 아직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70대 -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다.

80대 -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90대 -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100세 이상 -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는다. 성공한 남자는 아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자요, 성공한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아낸 여자이다.

이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진재혁 선교사님의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인가?』에 보면 진정한 성공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 a. 사람의 신뢰를 얻는 삶
- b. 어떤 상황에도 신실한 삶
- c.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한 삶

제 생각에 성공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조선 시대를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면서도 학문과 정결한 삶,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을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진짜 거지'란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남에게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일스(D.T. Niles) 박사는 “복음이란 한 거지가 다음 거지에게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먹을 것과 금과 은 그리고 돈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 여야 할지니라” (행 20:35)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앓은병이가 되어 구걸하며 생을 연명하는 한 거지가 고침을 받은 초대교회 최초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일시에 회복과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 율법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세 번 3, 6, 9시에 기도합니다. 9시는 오늘날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연결하는 문이 바로 미(美)문인데 문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성전에 예배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미문 앞에는 여러 해 동안 나면서부터 앓은병이 된 자가 미문 앞에 매여 나와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 3:6)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와 똑같이 가진 것은 없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순간 더 이상 영적 거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무엇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상한 점은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도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와 성도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도 내 이름으로 내가 주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불쌍한 거지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돈이 없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여 불쌍한 거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눈도 맞추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한다’는 헬라어로 ‘아테니스스’라 하는데, 이것은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앓은뱅이의 구걸하는 손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안타까운 발을 본 것입니다. 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얇은뱅이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자였고, 몸은 불구자,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12세부터 성인 취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약 30년간 구걸 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절망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흘러간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이성으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 주목하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의 언어입니다. 대화 내용의 38%는 청각으로, 55%는 몸의 언어로, 그러나 눈의 언어는 무려 83%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안 되는 것이 눈 마주치기입니다.

b.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라는 사회학자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Understanding’이라고 했습니다.

c.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하루에 딱 세 마디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아이는)/묵자(먹자)/자자”

d. 내게 있는 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대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화를, 정이 필요한 자에게는 정을,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는 강력하게 주님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 하시느니라” (히 13:16)

e.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행 3:7)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붙들어 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사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님은 『더불어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 그의 짐을 나누어지실 뿐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앓은뱅이는 자기를 주목하던 두 사람을 보고 큰 건이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습니다. 기다리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걷기만 하면, 구걸하지 않아도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로 인생에 은과 금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데 일시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앓은뱅이가 일어나 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단순한 다리 치유만이 아닌 영혼 구원과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근본 해결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보배들은 사람의 육신을 잠시 즐겁게 해 주지만, 그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보배들은 영원할 수 없지만,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죄 사함의 은총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닢을 주었다면 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게는 되어도 다음 날 또 구걸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그 은혜를 나누는 결과 장애에서의 해방은 물론 스스로 자립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성희 변호사의 『당신의 심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법』을 보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진정한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1남 6녀의 집 안에 귀하디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무속신앙과 굿이 일상생활이었

고, 늘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였으며,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도피처 이기도 하였고 그에게는 공부가 정말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증산도에 빠져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도서관에서 적은 노트를 보면 “나는 기쁘다!”였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삶에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 한 말이 예수 만나고 “나는 기쁘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얻었고, 그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축복은 어떤 절망과 벼랑 끝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걸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생이 똑같다면 희망과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인생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인생을 남의 동정을 받아 돈이나 구걸하다가 죽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행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든지 소망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누구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말씀 가운데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럭저럭 속아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권운동가로 198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엘리비젤(Elie Wiesel)이란 분은 15세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보는 데서 어머니와 누나가 산채로 소각로로, 아버지도 화장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두 남자와 어린아이가 교수형 당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처절한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절망의 현장에도 거기 계시고, 가장 낙심과



희망이 없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활 범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과 생활에 대한 부분에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 친 베드로와 일행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 분, 절망의 삭개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분, 소경 바디매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 8:35)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한 우리에게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세상에 주시다!! ☞



하늘 시민으로 살기

빌립보서 1장 25-30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장창수 목사
대명교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세계 각국에는 도시마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와티니의 경우에 여성이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기면 군인들이 바지를 찢거나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인권 국가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는 ‘방귀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이후 11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의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 게임 금지법, 일본의 2009년 비만 금지

법,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는 ‘항상 스마일 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9세기에 제정된 것인데 단 병원 직원, 장례식장 가는 사람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어이없어 보여도 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살 때 그 나라의 법과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의 방식이 아닌 그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서의 법과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직역: 단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행동하라)”(빌 1:27a) 본문에서 ‘생활하라’는 헬라어 ‘폴리투에스데’라는 말은 ‘시민이 되라, 시민으로 행동하라, 시민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진재혁 목사님의 『일상 영성의 힘』이란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인 자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둘째는, 구원과 죄 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

셋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하늘 시민으로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 시민으로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2-63년경 로마에서 가택 연금 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빌립보교회에서 자신의 투옥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선교비를 보내고 위로하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전해 들은 빌립보교회의 소식은 감사할 것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 D. 50년 이른 봄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향합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성이요 중심지인 '빌립보 성'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빌립 2세가 세운 휴양지이자 아시아 유럽을 잇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레이먼드(Reymond)의 연구를 보면 당시 빌립보는 최악의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주피터 신을 필두로 마르스 신, 그리고 황제숭배, 이집트의 이시스, 세라피스 등의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어려울 만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제대한 군인들의 휴양지로 온갖 위락시설과 향락 시설로 매춘과 도박 등이 보편화된 그야말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복음 들을 만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녀의 집을 근거로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장점도 많은 교회입니다. 예배, 선교, 구제, 믿음이 탁월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

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천국 시민’다음은 사라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유대파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율법의 노예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로,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단 영지주의 사상은 철저한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여 구원조차도 영혼의 구원만을 인정하며 성도들이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행동을 하든지 전혀 영혼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실천, 도덕적 삶은 필요 없다는 사상이 팽배하고, 성도들은 온갖 더러운 우상숭배를 겸해서 하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과 향락에 젖어 사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 4:2)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왜 다투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 주도권 싸움을 하고 비본질에 힘을 빼는 교회 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한 가슴 깊이 우려나오는 권면은 “주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라”, “하늘 시민처럼 살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늘 시민은 늘 주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1:27)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

본문에서 “협력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쉬나들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와 함께)과 ‘아들레오’(싸운다. 씨름한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함께 씨름하는 것, 함께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주고 늘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절대로 혼자 잘되고, 혼자 승리하고, 혼자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승리하고, 함께 잘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생각대로, 나의 기대처럼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시민의 눈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의 눈은 늘 하늘과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 2:2)라고 했습니다.

존 맥스웰(John C. Maxwell)의 『함께 승리하는 리더』에 보면 댄 클라크의 아버지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 갔습니다. 댄과 그의 아버지 앞에 입장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있는 두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데 12살 이하로 보이는 아이가 자그마치 8명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기다리며 부모님이 표를 구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어른 둘, 아이 여덟”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격을 듣고 돈이 모자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자 바로 뒤에 서있던 댄의 아버지는 슬그머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20달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례합니다. 이게 선생님 주머니에서 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제 가족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댄과 아버지는 서커스를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댄 클라크는 그날 밤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아볼 수 있었기에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어떤 경우와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도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 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 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 1:28-29)

온갖 불안, 염려, 주변의 핍박, 놀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 시민,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삶과 환경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기질 문제가 아닌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28절 후반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구원의 증거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표적이고 징조’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 42:11)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시 27:1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 힐먼(Os Hillman)의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간의 역경을 통과하는 시련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분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역경을 통과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목

적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오스 힐먼은 요셉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고난에는 4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a. **유다 시험** - 신뢰하던 친구가 유다로 돌변, 배신하고 아픔 주는 경우인데 참 힘든 경우입니다.

b. **성실성 시험** - 요셉의 경우 팔려가 나쁜 방향으로 이끌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여전히 성실, 정직, 정체성(Integrity)에 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c. **인내 시험** - 바로의 시위 대장의 집에 종살이로 시작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며 잊힌 존재로 지냈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습니다.

d. **성공시험** -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모든 하늘 시민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백화점 왕 제임스 캐시 페니(James Cash Penney Jr)는 진실한 신앙과 삶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825년 미주리주 한 농장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02년 캐머러에서 첫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성경에 근거하여 '황금률 가게'로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점포 수 30개 연간 매출액 200만 달러였습니다. 페니는 초창기부터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1971년 소천하기 전에는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1910년 아내가 죽고 1913년 J. C. 페니 백화점을 설립하였습니다. 1923년 두 번째 아내도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니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1929년 10월 주식 붕괴로 하루 만에 4,000만 달러를 잃기도 하였습니다. 54세 무일푼이 되었고, 근심, 불면증, 신경 안정제 복용 등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입원해 있던 병원 근처 예배당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에 잠이 깨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있었습니다.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

뒷좌석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나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대공황을 이겨내고 지금의 세계적인 백화점 기업이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 1:30)

신앙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고난의 싸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소망하며 기다리세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장창수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 Div.)
 계명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M. A.)
 미국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M. A. R.)
 미국 Liberty University 졸업(D. Min.)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Ph. D.) 수료
 미국 Torrance 소재 남가주 크리스천 한인교회 담임 역임
 월드비전 목회자 홍보대사
 대구 매일신문 칼럼니스트 역임
 GMS 세계선교회 부이사장 역임
 대신대학교 11.12대 재단이사장 역임
 (現) 대구 CBS 운영이사장
 (現)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現) 대구 대명교회 담임목사

■ 저서

『길라잡이』, 『성령의 열매 맺기』, 『하나님의 명령에 싸인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1, 2』, 『말씀을 따라 산 믿음의 거장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유치부)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재영 소장
영유아교회교육연구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
어요.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
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고 말하거라.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집트에 큰 벌을 내
려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예,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물고기들이 다 죽고, 강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바로 왕은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번에는 개구리들이 나와서 이집트 땅을 덮어 버렸지 뭐예요. 온 세상이 개구리로 가득해졌어요.



“개구리를 없애 주면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예배할 수 있게 하겠소.”

바로 왕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모세가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개구리를 없애주었어요.

바로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땅 위의 먼지를 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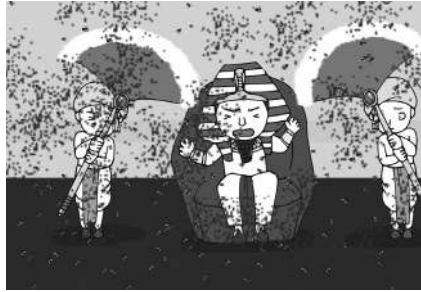
그러자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아주 작은 벌레인 이리로 변했어요.



“앗, 따가워!!”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겼어요.
 하지만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과 네 집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파리떼가 왕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바로는 다시 간청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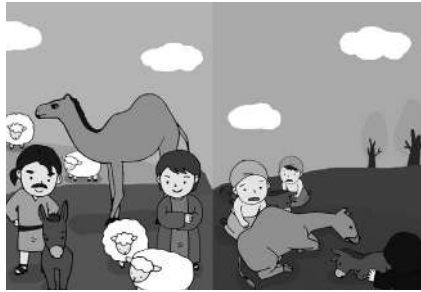


“파리떼를 없애주면 재물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겠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리떼를 없애 주셨지요. 하지만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이집트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릴 것이라고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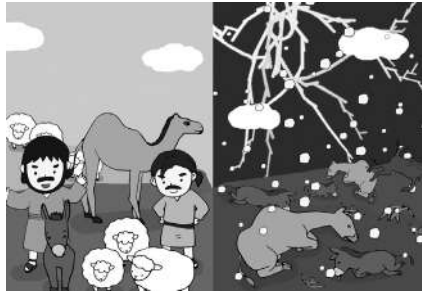
대로 이집트 짐승들은 모두 병에 걸려 죽었어요. 바로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아궁이의 재를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의 모든 사

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이집트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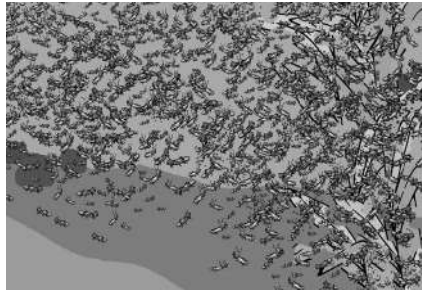
“우르릉 쿵”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어요. 일곱 번째 재앙이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일 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메뚜기들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 버렸지 뭐예요.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오. 이 죽음의 벌을 멈추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여덟 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어요.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고 그 양의 피를 집 문틀 옆과 위에 발라라.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지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밤중에 바로의 만아들까지 죽자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 밤을 새워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



등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지켜주셨던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늘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 그림자료는 영유아교회교육연구소 자료입니다.

유치부 설교를 할 때 유용한 TIP!!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생활 주제로 다양한 특별한 날들을 유아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경험합니다. 열 재앙의 설교를 하실 때 유아에게 익숙한 국경일이나 명절 이야기를 도입으로 시작하면 설교가 한층 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왜 생겼는지, 다른 절기는 어떤 날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열 재앙 설교를 10 재앙의 순서를 알려주며 암기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유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전하는 설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재영 소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 Div. 목회학 석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M. Ed. 유아교육학 석사)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Ph. D. 기독교교육학 박사)
 (現) 영유아교회교육연구소 소장

■ 저서

『영유아를 위한 바이블스토리텔링』,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유초등부)

요한복음 12장 3-8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박준우 목사
동행교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갑자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나드 한 근이었는데, 나드는 저 멀리 북인도에서 수입한 향유로써 값이 비쌌어요. 나드 한 근은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비싼 향유였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므로 삼백 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 중 가롯 유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차라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왜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냐?”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 부어서 낭비할 거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편이 낫다며 마리아를 책망했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분노를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마리아에게 그만 화를 내거라. 지금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란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하셨어요.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

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까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 부흥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은 아프리카를 위한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잠시 놓고선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런 리빙스톤의 행동에 어른들은 나무랐지만, 어린 리빙스톤은 헌금 바구니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런 리빙스톤은 이후 성장하여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어요. 리빙스톤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

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모두 우리의 몸을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해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헌신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예배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ㄹ

* 그림자료는 리바이벌북스 자료입니다.

박준우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목회학석사) 졸업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M. Ed. 교육학석사) 졸업
 동행교회 담임목사
 리바이벌북스 대표
 교회교육 칼럼니스트

■ 저서

『뉴스운드캠프 이야기』, 『필승! 교회개혁을 명 받았습니다!』
 외 다수



특별한 선물 (중고등부)

요한복음 3장 16-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민형 목사
사랑의교회 중고등부
제자/리더훈련

아이들의 소중한 선물

우리 집에는 저를 꼭 닮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자녀 둘이 있는데, 어릴 때도 예뻐지만 지금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가끔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자기들 방에 들어가 부스럭부스럭하며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지난주에는 제 생일이라고 예쁜 색종이로 만든 케이크와 편지를 써서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 선물을 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선물을 받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요! “대박! 우리 아들, 딸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하며, 다소 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해 주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더니 아빠가 좋아한다고 까르르 까르

르하며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는 사람도 기뻐하는 상대방을 보며 행복해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포함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단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가운데 여친, 남친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말로만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무신사에서 플렉자켓도 사주고 지그재그에서 화장품 파우치도 사주고, 에어팟도 사주고, 핫플 가서 맛있는 거도 먹고 인생네컷도 찍고 해야지. 그리고 보면 참 할 게 많네요.

아무튼,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의 무게와 위대함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16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을게요.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

이 선물을 받아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선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망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

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 25:41)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9:47-48)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13-15)

이처럼 지옥이 있으면, 반대로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림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21:4)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구절이 천국을 설명하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5)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 하며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중략)...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무릅쓰고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왜 이런 대가를 치르셨던 것일까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세상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최근, 마약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미국이나 동남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꼭 받아야 되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야지요. 성



경에서 이 선물을 받는 행위를 다른 말로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2:8, 메시지 성경)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얼마를 내느냐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만 원에 샀다면 이 의자는 ‘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오만 원을 내고 샀다면 그 옷은 ‘오만 원짜리’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

이민형 목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졸업
(前) 사랑의교회 교육연구소 연구원
(現) 사랑의교회 주일학교 디렉터
(現) 고등3·수험생부, 고등부 제자/리더훈련,
청소년학부모교육 담당



나의 하나님(feat. 이사야) (청년부)

이사야 6장 1-5절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던더라”



박기범 목사
내수동교회 대학부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고 가족들이 다 같이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하나님 얼굴이 궁금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응, 하나님 얼굴은 못 봐~ 하나님은 영이라 얼굴이 없으시거든.”

“왜 영이야? 영이 뭐야? 그럼 어떻게 만나?”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설명하는데, 어느 순간 저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요. 아들은 자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소개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에 관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나? 혹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라고,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오늘 본문에는 저와 같은 현타를 경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니까 성전에 자주 갔겠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아?” 그러면 “당연히 이사야지”라고 말할 거예요. 본인 생각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사야는 소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생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1절 상반절입니다.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계기를 알려면, 먼저 웃시야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웃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열여섯 살 때 왕이 된,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영토를 넓혔고요. 성벽을 튼튼하게 정비하고 국가 경제를 일으킨 왕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웃시야가 있는 왕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웃시야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겠죠. 이사야도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당연하죠. 잘 나가는 왕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6:1)

이사야가 봤대요. 무엇을 봐요?

“...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웃시야는? **믿을 수 있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지 않게 하는 존재. 다시 말해, 웃시야는 이 웃시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웃시야 왕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어떤가요?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웃시야 왕이 죽어요. 이 말은 믿을만한 상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 그러자,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는 웃시야가 있어요. 각자의 웃시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웃시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웃시야가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웃시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웃시야를 잠깐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기가 자라온 고향과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든든한 혈육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 조카 롯이에요. 왜 조카를 데려가냐면,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험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본인도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유일하게 기댈만한 존재는 딱 한 명, 조카 롯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었겠죠? 아들과 같은 존재,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웃시야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에 조카 롯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4-15)

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나요?

우리 삶에 안정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예요. 우리 삶에 웃시야가 사라질 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 이별해야 하거나 내가 어떤 환경에서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과정이에요? 나의 웃시야가 사라지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웃시야가 사라져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때가 아니

라, 하나님이 우리를 꼭 만나기 원하는 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세요.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떠난 그해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 이로다 하였더라” (사6:5)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와, 내가 하나님을 봤다. 대박,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게 아니예요. 그럼 뭐예요? “나 망했다...”, “이제 나 죽었구나...”예요.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즉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자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보이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입술이 부정한 자.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마디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데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서야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짜리 목사일까?’ 스스로 점수를 매겨 봤어요. ‘몇 점 정도일까?’ 저는 ‘그래도 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스스로 모습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를 줄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1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나 정도면 5점 정도는 되겠지.’

그런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였나요? ‘아... 나는 5점짜리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 빵점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보여요. 우리를 잘 몰라요.

왜 안 보일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나의 모습.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래요. 베드로 보세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질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와, 대박, 나 이제 부자다!!!”인가요? 아니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눅 5:8)

“대박이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두우니까 그래요. 나를 밝히 보여주는 진짜 빛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이지”, “나 정도 성격이면 나쁘지는 않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자기 모습을 알게 된 이사가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내 안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보이고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목욕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씻어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가 없나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모두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

박기범 목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졸업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신학(Th. M.) 과정 중
 (現) 내수동교회 대학부 목사 및 젊은이사역국 팀장

월간 『교회성장』 정기구독 안내

■ 구독 문의

02) 2036-7914, www.pastor21.net

■ 정기구독료 납입

* 온라인 입금 : 농협 1197-01-003201 (예금주 교회성장연구소)

* 신용카드 결제 : 삼성, 신한, BC카드

■ 정기구독료(국내)

인쇄형복 - 1년: 150,000원 / 2년: 300,000원 / 3년: 450,000원

온라인복 - 1년: 120,000원 / 2년: 240,000원 / 3년: 360,000원

■ 정기구독료(해외)

1지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	225,000원	2지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243,0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네팔, 유럽, 중동	302,000원	4지역	중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러시아	330,000원

■ 정기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

인쇄형복	온라인복
* 사은품 증정(단행본 및 교재, 바인더) * 일시납 신청시 보너스 구독 (1년-1개월, 2년-3개월, 3년-5개월)	* 사은품 증정(바인더)
* 과월호 무료 열람 제공(https://portal.icg21.com 에서 정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 * 교회성장연구소 주최 세미나 25% 할인	

기도하고 기억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대

-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단행본 패키지 -

2023 지로상품

가격: 42,750원

[도서 목록]

- 1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그대에게
- 2 부모갱신
- 3 오직 기도로
- 4 기도노트

* 구매 가능 기간: 2023년 8월 31일 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성장연구소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

• 지로 납부
월간지와 함께 발송되는 지로용지를
은행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입금
농협 091-17-003733
(예금주 교회성장연구소)

• 구매문의 02) 2036-7913

• 도서구입물 www.pastor21.net